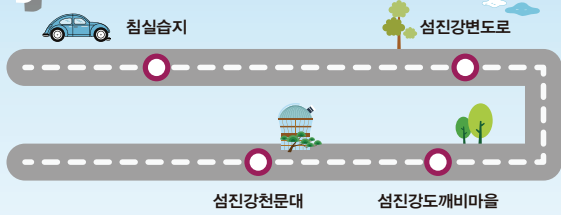


1코스

섬진강변 드라이브 코스



침실습지



이른 아침 물안개와 일출과 일몰 풍경 등 시각각 변화는 풍경이 한 폭의 풍양화를 연상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흰꼬리수리, II급인 삿, 남생이, 새매, 큰말뚝구리, 새호리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섬진강변도로



섬진강 줄기를 따라, 철쭉꽃길따라, 철로엽 증기기관차따라, 그림 같은 풍경을 함께 즐길수 있는 곡성군의 대표적 드라이브코스이며,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중 하나입니다.



섬진강도깨비마을



섬진강이 흐르는 곡성에는 도깨비를 테마로 한 즐거운 섬진강 도깨비마을이 있습니다. 도깨비공원과 도깨비 숲길, 도깨비전시장, 체험 학습장에서 숲 체험, 인형극, 동화 구연, 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천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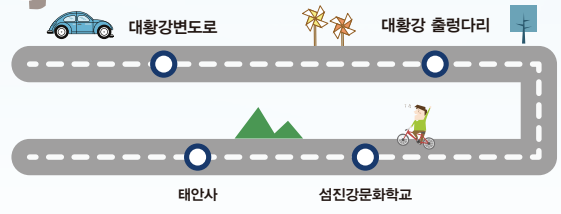


곡성 섬진강변에 있는 섬진강천문대에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들이 설치되어 있어 달과 행성은 물론 성운, 성단, 은하 등의 천체들을 모두 관측할 수 있습니다.



2코스

대항강변 드라이브 코스



대항강변도로



곡성을 아우르는 두 물줄기는 섬진강과 보성강(대항강)을 일컫습니다. 섬진강은 곡성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보성강(대항강)은 곡성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암록에서 섬진강과 합해집니다. 강을 따라 54km의 강변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입니다.

대항강 출렁다리



대항강변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걸을 때마다 출렁거리는 스릴을 만끽 할 수 있으며 건너편 숲은 트레킹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섬진강문화학교



우리나라의 산과 들 바다, 출몰 성 독도 등 수많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과 문화적인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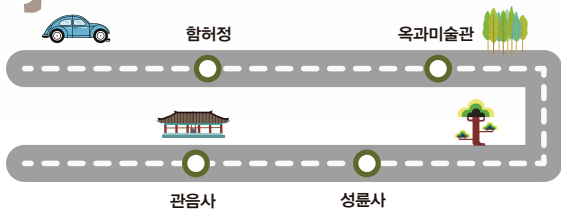
태안사



승광 화엄사의 본사인 태안사는 신라 때 창건한 고찰로 총 5점의 국가지정 보물이 있으며, 봄에는 신록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가을에는 짙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3코스

문화예술 기행코스



함허정



섬진강을 끼고 있는 언덕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선시대의 정자입니다. 정자 밑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멀리 무등산이 드러나 보이는 명승지로 지방 유림들이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옥과미술관



4천 2백여평의 부지에 2층으로 3백여평 규모의 전시관을 구비한 현대식 미술관입니다. 전남 미술의 진수를 한눈에 느낄수 있고 전남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전당입니다.



성룡사



당대를 대표할 최고의 선승인 청화 큰스님이 창건하고 주석하였던 곳인 성룡사는 형형색색을 띠고 있으나 혼소럽지 않고 고풍스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물에 화려 하면서도 단아한 단청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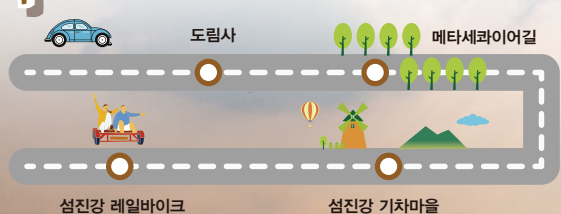
관음사



백제의 불교 공인 384년보다 앞서는 시기에 창건한 사찰로 백제 최초의 가람이며 한국 최초의 관음도량이라 할 수 있으며 고대 소설 심청전의 원류로 추정되는 원흥장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4코스

네바퀴로 즐기는 코스



도림사



도인이 숲처럼 물려들었다 하여 이름붙여진 도림사는 노송, 계곡, 폭포들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계곡에있는 9개의 반석에는 선현들의 문구가 음각되어 있으며 반석위로 맑은 물줄기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메타세콰이어길



곡성역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는 정미공원과 기차마을이 있고 곡성역에서 약 5분만 걸어서 곡성 17번국도에 일자로 푸욱 뻗은 왕복 2차선 도로에 메타세콰이어길이 펼쳐져 있으며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걸어보고 싶은 길이다.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소리가 둔탁하지만 촘촘하지 않고 신기한 듯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만 혼자의 공간이 있는 곳.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체험, 음악보수, 엔터테인먼트 놀이공간까지 옛 추억과 테마가 있고 새로운 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입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



아름다운 섬진강변을 감상하며 5.1km 레일 바이크를 타고 내려가는 색다른 경험을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CONTENTS

04 머리말 05 포토에세이

08 기차마을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 증기기관차
섬진강 레일바이크

16 섬진강권역

환상의 드라이브코스 섬진강 17번국도
함허정 / 가정역 / 곡성섬진강 천문대
섬진강레프팅 / 섬진강 자전거하이킹
강따라 트레킹, 섬진강둘레길
섬진강 무릉도원 침실습지
마지막 나루터 호곡나루터
영화곡성 촬영지동산마을 뉴시터
압록유원지

29 대항강권역

아름다운 18번국도 대항강 드라이브코스
산따라 강따라, 대항강 트레킹
코스모스 축제의 현장 대항강 수변공원
우리나라 가장 긴 출렁다리, 대항강 출렁다리
반구정습지 / 대항강 수상레저

34 곡성읍권

아름다운 소읍 곡성시티투어
구절초 천국 총의공원
600년 전통 곡성전통시장
문화장터, 곡성 뚝방마켓 / 죽동방죽
항일투쟁의 발원지 단군전
곡성 정신의 원천 곡성향교
옥터성지 곡성성당



42 옥과권

아산 조방원의 옥과도립미술관
청화스님의 성류사
하늘이 감춘 절집, 수도암
충절과 효행의 중심 옥과향교
슬프고 아름다운 목조신상의 전설

46 체험관광

동화속 환타지나라 도깨비마을
곡성 농업의 상징 미실란
섬진강 치즈학교 / 생태체험관
효체험관 / 승마유스빌
광주컨트리클럽 / 기안컨트리클럽

53 산행

동약산 / 삼산 / 설산 / 통명산
봉두산 / 곤방산 / 천마산

60 계곡

도림사계곡 / 원효동계곡
청계동계곡 / 태안사계곡



65 사진 촬영지

강변풍경 / 운해 / 일출명소
낙조명소 / 기차와 꽃길
생태탐사 / 야생화 / 그밖의 풍경

71 역사유적

도림사 / 태안사
관음사 / 유팽로장군 유적
덕양서원 / 영귀서원
가곡리5층석탑 / 마천목사당
용산재 / 영류재

81 문화유산

조태일 시문학관 / 낙죽장도
섬진강 문화학교 / 갑진갤러리
돌실나이 / 좌도농악
갤러리 몽리/ 짚풀공예

87 체험마을

가정농촌 / 두계농촌
봉정농촌 / 용암농촌
칠봉농촌 / 무창농촌
봉조농촌 / 상한농촌
단사산촌 / 원달산촌
유봉산촌 / 겸면죽산
대신정보화마을

95 캠핑·리조트

심청한옥마을
강빛마을
좋은세상리조트
도림사오토캠핑장
청소년야영장
기차마을 유스호스텔
기차펜션

100 축제

세계 곡성섬진강 장미축제
곡성 심청축제



부록

103 음식점

104 숙박

105 특산물

106 곡성관광지도



곡성으로 오시라.

'압록귀범(鴨綠歸帆)'과 '대황어화(大荒魚火)'는 곡성 8경의 장엄한 풍경들이었지만 섬진강을 거슬러 뚝단배가 들어오는 그림 같은 장면, 햇불을 밝혀 들고 고기 잡는 대황강의 역동적인 모습은 이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다. 곡성도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향의 원형이 느껴지는 곳이 곡성이다.

봄의 꽃길과 여름의 산맥과 가을의 숲길과 겨울의 강을 따라가면 곡성에 닿을 수 있다. 섬진강변에서, 죽곡 골짜기에서, 산골 암자에서, 산촌 생태 마을이나 외갓집 체험 마을에서 고향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기차마을, 도림사, 태안사, 관음사, 동약산, 섬진강,

대항강, 심청마을, 도깨비마을, 함허정 같은 명소들도 좋지만 골짜기 마을에 서려 있는 고향의 원형이야말로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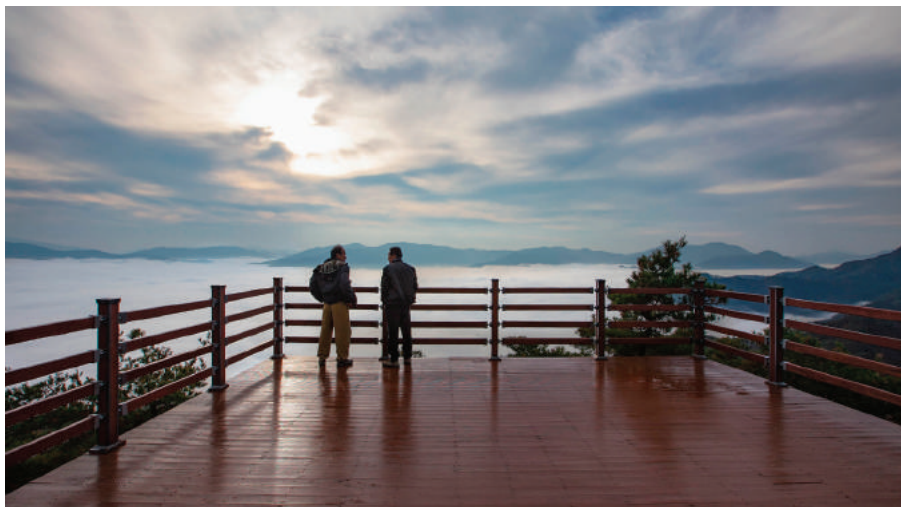
심청마을 한옥 텃마루에 앉아 추녀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를 들으면 누군들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랴. 조용히 지느러미를 흔들며 강물 속에 유유히 정지해 있는 물고기 떼를 바라보라. 사공도 없는 작은 나룻배 하나 강변에서 저 혼자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은빛 물살들과 도란거리는 광경을 바라보라. 추억이 간혀 있는 상자의 봉인이 뜯겨지면 어린 시절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기억의 노를 저어가게 된다.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핑계로 감동을 잊어버렸던 우리는 이곳에서 비로소 가슴 뛰는 경

험을 하게 된다.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일지라도 곡성에 가면 왠지 고향의 원형을 만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우리는 '외갓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이라 표현한다. 그래서 서슴없이 곡성을 '온 국민의 외갓집'이라고 부른다. 냄비 바닥에 꿈 한 자락 깔아두고 갓 따온 남새와 물을 넉넉히 넣어 하루를 보글보글 조용조용 익혀가는 곡성의 아침(아주머니)들은 온 국민의 이모인 셈이다. 이모들의 식탁은 흙속 미생물의 시간, 바람과 비의 시간, 벌레들의 시간, 뿌리들이 빗물 빨아들이는 시간, 농부의 시간, 조리과 숙성의 시간, 음식을 즐기는 여행자의 시간이 혼재해 있는 느낌과 성찰의 식탁이다.

잠시 머물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이런 고향은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곡성에 오면 사소한 풍경 하나하나에서 그 그림자를 찾을 수 있다. 죽곡의 시인 조태일이 노래했던 것처럼 '작아서 작아서 늘 아름다운 것들, 밑에서 밑에서 늘 서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울리는 곳이다. 당신은 고향을 잃어버렸는가. 고향의 원형을 만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곡성으로 오시라. 곡성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발길 닿는 대로!

유근기 곡성군수 전남일보 기고문 중에서



위대한 시인

조태일의 고향 곡성

죽형 조태일 (1941~1999)

조태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참여 시인으로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주옥같은 시들을 선보였다. 그 시대 숨 막히는 압제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은 점점 더 가열차게 타 올랐던 것은 조태일 같은 시인들의 영혼이 영롱한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시인의 [국토서시]와 [식칼론]같은 시들이 들불처럼 청년들의 가슴에 정의감을 불러일으킨 죄로 감시와 탄압, 체포와 투옥을 계속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갔지만, 그의 시는 독야청청한 소나무처럼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푸르러 간다. 그의 시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사이다 같은 통찰력과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진한 서정의 온기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조태일의 시에서는 곡성 냄새가 난다. 그가 곡성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곡성이 보인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태안사 입구에 조태일시문학관이 있다.
[편집자주]

곡성으로 띄우는 편지

조태일

죽곡면 원달리 동리산 태안사에서 태어나
광주를 거쳐 풀씨처럼 떠돌다
서울의 한 귀퉁이에서
육천조가 조태일은 이 글월 올립니다.

일제하 5년을 겪고 여순사건을 겪으면서도
태안사에서 동계국민학교까지 걸어 다니던 시절이
오늘까지 한 시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많던 산짐승들도 다 무사한지 궁금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새벽 압록강을 건너
광주로 피난하던 시절
뒤를 돌아보며 곡성의 산천을 모두
눈 속에 가슴 속에 담았었죠.

사람들, 곡성사람들
마음 굳기로 대나무인들 따르겠소?
40년을 풀씨처럼 떠돌다
오늘 문득 곡성을 떠올리니
눈물보다 앞서 가슴 먼저 러져오네요

이 풍파 속에서 눈을 뜨면 먼저 곡성을 생각하고
잡자리에 들 때도
프근하고 아늑한 곡성땅에서 잠을 이룹니다.
시를 쓸 때도, 서울 거리를 누빌 때도
竹谷의 대나무처럼 꽃꽂이 생각하고
꽃꽂이 걸어 다닌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원달1리의 태안사 턱밑에 있는 마을은 모두 10여호에
지나지 않는 산골의 작은 마을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한 20여리 떨어진 동계국민학교를 2학년까지 다녔다.
이리 멧돼지 늑대 노루 따위의 산짐승들 때문에 항상 친구들과 떼지어 다녔는데
한 손엔 작대기나 돌맹이들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짐신이나 검정고무신은 칠푼콜 같은 것으로 칭칭 동여매었는데,
산짐승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내기위한 배려에서였다.
물론 책보따리는 어깨띠 두르듯이 메고 다녔다.
방학 때가 되면 앞산 뒷산 옆 산을 온종일 쏘다니며 토끼사냥 평사냥 멧돼지 사냥에
해가 지는 줄도 몰랐다.

「조태일의 유년기의 자전적 시론」 중에서



사진 곽해익



국호 서시

조태일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야윈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어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버려진 땅에 돌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치는 들멩이 하나에까지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하늘에 부려진
천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 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낼 일이다.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허연 뼈까지를 흥재로 보낼 일이다.



마지막 현실을 이어주는 판타지 공간

꿈성 심신강 기차마을

철도에서 사라진 증기기관차는 우리를 꿈과 모험으로 가득한 미지의 세계로 데려다 줄 것 같은 판타지의 세계의 교통수단으로 여겨진다. 철이의 은하철도 999도, 해리포터를 마법학교로 데려다주는 열차도 새하얀 수증기를 내 뿜으면서 달리는 증기기관차다.
곡성은 자연스럽게 그런 증기기관차를 떠올리게 하는 고장이다. 그래서 왠지 곡성에 가면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고향이나, 꿈속에서 그리던 판타지의 배경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지리산과 가깝고, 삼진강을 품은 곡성의 정감이 기차와 어울리면서 신비한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GOKSEONG

TOUR
001

판타지와 로맨스를 향한 옛 곡성역과 기차마을 테마파크

곡성기차마을



Train

기차는 현실과 미지를 이어주는 아련한 판타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우주로 향하는 은하철도 999나 해리포터를 마법학교에 태워다주는 기차가 그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기차를 보면 환호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곡성하면 증기기관차라는 등식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왠지 판타스틱한 뭔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된다. 아마도 지리산 자락이나 섬진강변 어딘가에 숨겨진 미지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기차와 함께 버무러지면서 신비한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 닫은 방직공장이나, 선창가의 창고, 사용하지 않는 철도나 공항, 광산이나 채석장등을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테마파크로 활용하는 경우는 국내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초창기에만 반짝 대중의 이목을 끌다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 또다시 애물단지로 바뀌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런 점에서 폐 역사와 철도 부지가 테마파크로 탈바꿈한 이후 유명세를 더하고 있는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은 이 분야에서 단연 성공한 롤모델이다.

이렇게 인기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차마을의 첫 관문은 생각 보다 요란하지 않고 오히려 정겨웠다. 옛 곡성역 건물을 그대로 기차마을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표를 끊고 들어가는데 미지를 향한 간이역으로 들어서는 것 같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곳을 통과하면 아련한 추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친구들도 그런 느낌을 간직하기 위해인지 옛 곡성역사 건물을 드나들면서 사진을 찍느라 부산을 떨었다. 기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 압록유원지를 함께 다녀왔던 추억을 공유하는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다들 상기된 표정으로 기차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때마침 긴 기적소리와 함께 콧등에 등을 환히 밝힌 증기기관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들어오고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낮익은 장면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드라마 토지와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에 등장하는 기차역의 배경이 곡성역이었던 것이다.

1960년대를 고스란히 옮겨 놓은 것 같은 플랫폼으로 기차가 들어오자 내리는 승객들과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뒤섞이면서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이런 소란스러움이 더욱 진한 옛 기차역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플랫폼에는 수형이 아름다운 두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는데 친구들은 정동진 소나무와 비할 바가 아니라며, 소나무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옛 곡성역 철도 부지에 실제로 운영했던 증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 그리고 객차들이 세워져 있어 지금도 운행 중인 철도역 같다는 느낌이 들어 기차에 대한 판타지를 유감없이 충족시켜 주었다.

기차마을에 들어왔으니 기차를 직접 타볼 차례다. 이번에 타려는 기차는 아까 본 증기기관차가 아니라 기차마을 내부를 운행하는 미니기차다.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분이 기차 타는 재미를 흠뻑 안겨주었다. 콧노래를 부르는데 함께 흥얼거리던 옆자리 친구가 이런 것이 낭만 아니냐고 묻는다.





낭만! 그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다. 맞다. 기차는 낭만의 코드이기도 하다. 미니기차를 타고 둘러보니 기차마을은 옛 철도 부지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아기자기한 볼거리로 가득한 대규모 테마파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 바퀴를 도는데 2.4 km에 약 20분가량이 소요되었다.

어디서부터 관람을 시작하는 정해진 동선은 없는데 안내책자를 보니 반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관람시설과 놀이시설을 하나씩 섭렵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았다. 기차 체험 공간 치치뿌뿌 놀이터, 오감으로 느끼는 4D 영상관, 커다란 도깨비가 방망이를 치켜들고 서 있는 재미있는 요술 랜드를 차례로 돌아보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동심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다. 전통체험관에서 칼에 글귀를 새기는 무형문화재 낙죽장도 전시관도 눈길을 끌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출연한 짚풀공예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눌 땐 꼭 유명 탤런트를 직접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말이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여행자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 같은 곳이다.

게다가 미니 동물원도 있었다. 여기서는 유모차에 탄 예쁜 아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집 아이들 키우던 시절이 떠올라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는 대중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데 한 친구가 대관람차를 타보자는 제안을 했다.

우리는 타니 못타니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전원 탑승했다. 런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템즈강 유역에 서 있는 것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서 올려다

보니 높이가 아슬라했다. 표를 끊고 차를 기다리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쿵쿵거리고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발바닥에 짜릿함이 느껴진다.

드디어 탑승, 쓰옥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막상 타보니 그리 무섭지는 않았다.

올라갈수록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기차마을부터 시작하여, 곡성을 시가지와 가을 들녘 그리고 섬진강이 한눈에 들어올 때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 한동안 멈춰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야속한 대관람차는 귀한 경치를 잠깐 보여준 다음 서서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기차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 번 감탄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청결하고 정원과 화초들도 정성을 다해 가꾼 흔적이 역력했다.

이 부분만큼은 전국 관광지 중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대규모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관리도 훨씬 더 버거운 텐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싶다.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 최고 관광지를 골라 수여하는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한 것은 절대 우연은 아니었다.

중앙광장으로 향하는데 개운한역이라는 팻말을 달고 있는 건물이 보여 의아했는데 화장실이었다. 먼저 이곳을 다녀간 친구가 얘기해준 개운한역에 대한 에피

소드에 모두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기차마을 건설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화장실이라는 이름보다는 뭔가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걸 지켜보던 어린 아들이 “아빠도 화장실에 다녀오면 개운하잖아요. 그러니 개운한 역으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저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침곡역 화장실 이름은 시원한역이라고 한다.

가벼운 설렘과 함께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중에서 가장 기대감에 부풀게 만든 장미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기차마을을 알리는 사진에서 본 낮익은 풍치가 먼저 반긴다. 기차마을 최고의 포토존으로 알려진 곳이라서, 친구들은 또 이곳에서 한바탕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보내느라 정신이 없다. 한옥으로 지어진 휴게실에서 기차마을의 명물 냄비 팔빙수를 맛있게 먹은 다음 장미공원으로 향했다.

장미공원은 기차마을 안에 있으면서도 별도의 공원이나 다름없는 매우 특별한 공간이다. 매년 이곳에서 열리는 세계장미축제 홍보 효과 때문일 것이다. 정문 앞에 설치된 하트모양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팔린 일행들을 채근하여 장미공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먼저 전망대 역할을 하는 언덕위로 올라갔다.

장미공원이 국내 유명 테마파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어 봄이면 장미축제를 하는 곳들이 많다. 그 중 곡성 장미공원이 단연 으뜸이라는 평가다. 전망대에 올라 보니, 구성과 조경 등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만나 본 장미공원들과는 역시 한 수 위다. 한 관광객이 장미로 이름난 유럽의 공원에 들렀는데 그곳 안내인이



당신네 나라 곡성에 가면 더 많은 장미를 볼 수 있다며 소개하더라는 일화가 그냥 지어낸 말은 아닌 것 같다.

장미공원은 무려 3만 7천여주, 1004종의 장미와 세계 몇 안 되는 희귀종도 수십종을 보유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숙련된 원예 전문가들이 일년 내내 정성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5월 장미 축제때는 이곳의 장미들이 일제히 개화를 하면서 대단한 장관이 펼쳐진다고 한다. 이때 우리나라 최고로 꼽히는 장미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서 전국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인파에 치이는 한이 있더라도 곡성장미공원의 5월 장미는 꼭 봐야할 것 같다.

가을인데도 제법 많은 장미가 피어있어. 멜랑콜리한 정감을 자아낸다.

여기는 아까 다녀왔던 관광공간이나 놀이시설에 비해서 가족단위의 관광객 보다는 부부나 연인인 듯 한 커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팜플렛을 살펴보니 역시나 싶었다. 장미공원은 연인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완성



시키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만남, 사랑의 대화, 설편, 고백(참고로 이 공간엔 키스와 허깅의 존이 마련되어 있으니 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 금지) 데이트, 그리고 소망의 다리를 건너 소망정에 올라 사랑을 만천하에 고하는 북을 울리고 언약의 자물쇠를 채우면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중년인 우리도 장미공원의 각 코스를 돌다보니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잔잔한 무드음악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친구들과 함께 왔으니 망정이지 혼자 왔으면 외로움을 탈 뻔 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오면 더 좋은 로맨스 공간인 장미공원에 아쉬움을 남겨놓고 마지막 목적지로 장미공원 생태전시관으로 향했다.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설치된, 귀여운 수달 조형물을 보면서, 아까 소망정 호수를 관리하는 분이, 인근 하천에 사는 수달들이 호수의 물고기를 죄다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생각나 저절로 웃음이 터지면서 '때끼 요놈' 하고 가볍게 툭 건들었다.

생태전시관은 곡성과 섬진강의 생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었는데 그중 곡성에만 서식한다는 꼬마잠자리에 대한 전시물과 설명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곡성여행 중에 귀여운 꼬마 잠자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장미공원을 둘러본 다음 일부러 노랗게 물든 상수리나무 가로수 길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상수리나무 가로수 길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곡성 기차마을이 유일할 것이다.

곡성섬진강기차마을은 워낙에 볼 것이 많아 건성건성 둘러보는데도 세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함께 간 친구들과 중 상당수는 최소한 한번 이상 여길 다녀갔다는데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어 마치 처음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진화중인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 머무는 동안 동심의 세계와 낭만과 로맨스의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5월 장미가 만발할 때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꼭 다시와보고 싶은 곳이었다.

◆ 여행자 노트

- 주 소 :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
- 예매사이트 : <http://www.gstrain.co.kr/>
- 요금(대인기준) : 개인 3000원, 단체 2500원
- 출입시간 : 0900~1800
(계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홈페이지 참조)
- 전화번호 : 061-361-7461/8635

◆ 기차마을 히스토리

섬진강기차마을의 전체면적은 51만5천여㎡

장미공원 부지 면적 4만㎡

옛 곡성역사 건물과 참고시설 등은 1930년대 건물로 등록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됨.

1914년 이리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개통

1933년 곡성역 개설.

1999년 전라선 복선화 공사

곡성군, 옛 곡성역과 13.2km 폐 철도를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

2000년 역사 및 철도 시설 정비

2003년 영화 태극기희날리며 촬영지로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됨.

2005년 곡성군민의 오랜 노력과 숙원으로 테마파크 기차마을 개장과 증기기관차 운행

2006년 전국 관광특구 지정 및 대통령상 수상

2012년 CNN 선정: 한국에서 가 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곳 선정

2014년 한국관광공사 국내 관광지 브랜드 "한국관광의별"에 선정

2015년 네티즌이 뽑은 베스트 그 곳 선정

Steam Locomotive

GOKSEONG

TOUR
002

추억 심고 섬진강변 달리는 칙칙푹푹

증기기관차



운명이 발달할수록 거꾸로 정서는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추억의 공간을 찾아 나선다. 곡성이 가면 그것을 만들 수 있다. 환은 섬진강, 산골짜기 마을들 그리고 칙칙푹푹 달리는 증기기관차....

한적하던 기차마을 플랫폼이 북적이게 하는 것을 보니 기차 출발시간이 임박한 것 같다. 읍내에서 열리는 5일장을 보러가기 위해서 장보집을 이고 맨 사람들이 마을 간 이역으로 몰려들던 고향 풍경을 떠올렸다. 엄마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구르며 울고있는 어린 아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기차 놓칠 새라 종종걸음 치던 어머니를 떠올렸기 때문일까. 나도 모르게 주변을 휘익 둘러보았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곡성기차마을, 예전에 비해 곡성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난 듯 전체적으로 활기가 넘쳤다. 더욱이 곡성의 대표 관광 상품인 증기기관차는 미리 인터넷 예약을 하지 않으면 탑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폐 철로를 활용하여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사례는 있지만 증기기관차를 운행하는 곳은 곡성이 유일하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추억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증기기관차를 타기위해 기다리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실감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도 곡성처럼 관광용 증기기관차를 운행했는데, 그것을 통해 향수를 떠올리는 승객들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박물관에 전시중인 증기기관차를 꺼내 노선을 신설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와 함께 운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탑승을 재촉해서 맨 나중에 기차에 올랐다. 청년시절 비둘기호를 탈 때처럼 열차 난간에 매달려 섬진강 바람을 쐬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안전문제 때문인지 기차가 출발하면서 그쪽엔 얼씬도 못하게 한다. 어쩔 수 없이 객차 안으로 들어가 주어진 좌석을 찾아 앉았다.

기차마을을 출발하면서 들뜬 관광객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했던 기차안이 점점 조용해지고 철로위를 굴러가는 쇠바퀴가 내는 덜컹 소리만 요란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 승객들은 저마다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일반 기차보다는 느린 속도로 달리는 철마 걸으로 17번 국도와 섬진강이 바짝 따라 붙으면서 강변 풍경이 펼쳐졌다.

곡성에서 운행하는 증기기관차가 주는 매력은 기차에 대한 판타지뿐만 아니라 기차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섬진강을 감상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잠시 상념에 젖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사이에 요란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기차가 정차했다. 침실역이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려 의아했는데 이곳은 섬진강 기차 철로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의 출발점이었다.

기차는 가정역을 향해서 막바지 기운을 쏟으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섬진강변 정겨운 마을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간다. 앞자리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



던 어르신이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옛날에 내가 살던 마을도 저렇게 이뻐났다.' 아마도 저 어르신이 살던 강마을은 헐려 공장지대나 아파트촌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사람 태반은 실향민이다. 사람들이 이런 증기기관차가 주는 향수예라도 기대고 싶은 것은, 저 어르신처럼 잃어버린 고향을 떠올리고 싶어서가 아닐까. 가정역에 도착하여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승객들을 보며 피식 웃었다. 식인종 눈에는 기차가 김밥으로 보인다는 옛날 유머가 생각나서였다.

곡성역과 달리 가정역은 제법 멋스럽게 지어져 있어, 마치 유럽의 산악열차 플랫폼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르르 몰려가는 다른 승객들의 뒤를 쫓아 가정역과 섬진강 건너편 청소년 야영장을 잇는 출렁다리를 건넌



다. 그쪽에는 청소년 야영장을 비롯하여 곡성천문대가 있었다. 청소년 야영장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섬진강변을 달려보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주어진 시간이 30분 남짓에 불과하여 다음을 기약하고 기차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증기기관차가 승객만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침곡역에서부터 타고 내려온 레일바이크를 달고 간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기차가 왠지 버거워하는 것 같다. 때마침 아까 익살스런 농담으로 승객들을 웃기던 교련복을 입은 판매원 아저씨가 나타나자 그 모습만 보고도 승객들은 웃기 시작했다. 한바탕 웃음과 함께 기차는 달리고 차창 밖 섬진강은 무심코 흘러간다.

같은 지역이라도 풍경은 올 때와 갈 때 보는 풍경이 다

르다.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멋들어진 한옥이 눈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두가현이라는 카페 겸 펜션이었다. 강 건너편에서 있는 도깨비 석상은 그곳이 도깨비 마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마천목장군이 고기를 잡았다는 도깨비살의 자취도 보였다.

다시 긴 기적소리와 함께 증기기관차는 기차마을로 돌아왔다. 기차를 타고 가정역을 왕복하는데 불과 1시간 20분 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긴 시간을 미지에 머물다 온 것 같은 착각과 함께 가벼운 현기증이 들어 기차에서 내린 다음에도 한동안 멍하니 기차마을 플랫폼을 떠나지 못했다.

◆ 여행자 노트

- 예약 사이트 : <http://www.gstrain.co.kr/>
- 기차요금 : 왕복 7000원, 편도 4500원 기차마을-가정역 개인(대인) 좌석 기준
- 기차시간 : 9시30분, 11시 30분, 13시 30분, 15시 30분, 17시 30분
(기차마을 출발 기준 1일 5 회 왕복)
- 전화번호: 061-363-9900

◆ 기차마을 히스토리

- 1914년 이리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개통
- 1933년 곡성역 개설.
- 1999년 전라선 복선화 공사
곡성군, 옛 곡성역과 13.2km 폐 철도를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
- 2000년 역사 및 철도 시설 정비
- 2003년 영화 태극기희날리며 촬영지로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됨.
- 2005년 곡성군민의 오랜 노력과 숙원으로 테마파크 기차마을 개장과 증기기관차 운행

GOKSEONG

TOUR
003

레일바이크



Rail Bike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정문, 구 곡성역 앞에서 침곡역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데 가벼운 흥분이 일었다.

지난번에 침곡역에 가면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갔다가, 표를 구하지 못하고, 대기 순번도 바로 앞에서 찢리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했고, 날씨가 화창하니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 한 레일바이크를 타지 못하게 될 일은 절대 없으니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레일바이크를 타기 위해 침곡역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중 두가지를 추천한다. 첫 번째는 직접 침곡역으로 가서 가정역까지 레일바이크를 타고 이동한 다음, 증기기관차나 셔틀버스로 타고 침곡역이나 기차마을로 돌아오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처럼 기차마을에서 셔틀버스로 침곡역까지 이동한 다음, 레일바이크로 가정역으로 가서 증기기관차로 다시 기차마을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이것은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곡성 3종 세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강추한다.

드디어 셔틀버스 출발, 여친, 친구, 친구 여친 이렇게 넷이서 침곡역으로 향했다.

"정선에서 타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거기가 레일바이크 원조잖아." 친구가 제법 아는 채를 했다. "무식한

녀석, 내가 다 알아봤는데 레일바이크 진짜 원조는 정선이 아니라 우리가 타는 섬진강 레일바이크거든! 그러니 진짜 원조를 즐기시길..."

전라선 복선화로 인하여 생긴 폐 철로를 어떻게 활용할까 궁리하던 곡성군은, 증기기관차와 함께 철도 위를 굴러가는 자전거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거듭한 끝에 오늘날 우리가 전국 어디든 만날 수 있는 철도 자전거를 개발하고 이름도 레일바이크라 지었는데, 마찬가지로 사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던, 정선군에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선수를 뺏겼다는 것, 그래서 정선이 원조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제 원조는 곡성섬진강 레일바이크라는 것이다. 하지만 관광객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스가 얼마나 재밌느냐가 더 관건이다. 레일바이크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재 레일바이크를 운행 중인 곳은 전국에 30곳이 넘는다.

레일바이크 출발시간이 가까워지자 침곡역은 발 딛을 틈 없이 북적였다. 전번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약도 안하고 무작정 찾아와 어떻게든 태워 달라고 읍소하는 광경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인기 좋은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평일이라도 인터넷 예약이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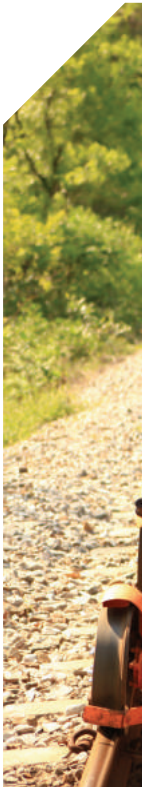
2인승 40대, 4인승 60대의 오렌지색 레일바이크 군단이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열심히 페달을 돌려 침곡역에서 가정역까지 총 5.1km를 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커플끼리 2인용 2대를 예약할까, 4인용을 예약할까 고민하다가 넷이서 함께 타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4인용을 선택했다. 비용 부담이 절감되는 효과도 그렇게 결정했던 요인이다. 먼저 2인용부터 탑승이 시작되었다. 플랫폼을 가득 채운 수백명의 인파가 레일바이크와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우리 차례가 가까워지자 두려운 건지, 설레는 건지 종잡을 수 없는 이 심장의 바운스! 힘을 써야 할 남자는 뒷좌석, 여자분들은 앞좌석에 착석! 그리고 출발, 앞차와 거리가 벌어져 있어서 힘껏 페달을 밟았더니 헉 앞차가 가까워진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레일바이크 브레이크는 무척 예민해서 살짝만 브레이크를 잡아도 속도가 확 줄었다. 레일바이크는 다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홀로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면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 약간의 인내심과 더불어 힘 조절이 필요하다.

레일바이크가 지나는 철로는 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은 있었지만 그다지 경사가 급한 편은 아니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타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한 10분 가량 페달을 밟았더니 장딴지가 빠근하다. 알고 보니 앞좌석 레이디들이 잠전 모드로 페달위에 발만 올려놓고 있었던 것 "헤이 레이디분들도 함께 좀 밟으시지?" 순간 순풍에 돛단 듯 가볍게 미끄러지는 섬진강레일바이크! 역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실감 난다.

섬진강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강바람을 기분 좋게 음미하며 달리는데 그만 휘릭 하고 친구 여친 모자가



GOKSEONG

날아가고 말았다. 레일바이크를 탈 때는 안내요원들이 주의를 건성으로 듣지 말고 모자, 선글라스, 지갑, 핸드폰등을 잘 간수해야 한다. 페달을 밟으면서 몸을 격하게 흔들 수밖에 없으니 대중 간수했다가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 그렇다고 레일바이크를 세운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0여대의 레일바이크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어 위험할 수도 있고 뒤따라오는 탑승객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계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자 정도는 조금 아깝다 정도지만 몇 십 만원짜

리 명품 선그라스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는가 말이다.

우리는 모자 날아간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일단 가정역을 향해서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드디어 가정역 도착! 침곡역을 출발한지 30분가량 소요되었다. 모자가 날아간 옥의 티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섬진강 레일바이크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스트레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 여행자 노트

- 예약 사이트 : <http://www.gstrain.co.kr>
- 운행 시간 : 9시, 11시 13시, 15시 17시
- 요금 : 2인승 20,000원, 4인승 30,000원
(개인기준)
- 전화번호: 061-363-9900

TOUR



굽이굽이 섬진강

섬진강 드라이브/ 함허정, 군지총정사/ 섬진강 들레길/ 침실습지/
장선습지 동산리 낚시터/ 섬진강 자전거길/ 섬진강 레프팅/ 가정역/
압록유원지/ 유평로장군 유적지/ 섬진강 천문대



곡성은 길의 고장이다. 하늘 같은 섬진강은 실 새 없이
흐르면서도 속도로써 우리를 재촉하지 않는다.

그 옆에는 물길 따라 자전거길, 자동차길, 기차길,
숲길이 곁을 이루고 있다.

길과 길 이 만나는 곳에서는 사람도 서로 만나
소담한 마을이 만들어지고, 마을마다에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우리네 이야기가 있다.

[유근기 군수의 전남일보 기고문 중에서]



섬진강 드라이브

낯선 것과의 조우뿐만 아니라, 낯익은 것과의 교감을 통해서도 여행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

이른 아침 일출 국사봉에 올라 섬진강 상류 옥정호수에서 일출을 맞이한 다음 순창을 거쳐 내려올 땐 카 네비게이션이 필요없었다. 여기서부터는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어서다. 산처럼 쌓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 땐, 섬진강을 찾는다. 섬진강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는 것 만으로도 숨통이 트인다. 이번엔 처음으로 아내와 동행했다.

진안고원 팔봉산 데미샘을 출발하여 쭉쭉거리며 흐르던 시냇물에 진안고원이 골짜지 골짜지 물들이 다 모여 비로소 섬진강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옥정호에서 한 숨을 돌리다듬, 다시 순창을 거쳐 곡성을 향해 도도히 흘러가는 섬진강은 호남의 정기이며 정수다.

산 좋고 물 맑은 곡성땅을 흐르는 순박한 지천들이 모인 옥과천과 함류하고 지리산의 맑은 정기를 담은 남원의 요천이 합세하면서부터 섬진강은 어엿한 강으로서 위용을 갖추고 드넓은 장선습지와 고달습지 그리고 침실습지를 적시며 도도히 흘러간다.

남원과 곡성을 잇는 청계동교를 건너 도로변 널찍한 공간에 차를 세우고 곡성과 남원의 경계에서 섬진강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탄성을 지른다. "와 그림이네" 남원 고리봉과 동악산 사이 좁은 협곡에서 잔뜩 몸을 움추린 섬진강은 대신 속도를 더하여 손팔랑개비를 돌리며 고삿을 달려다니는 아이들처럼 아우성을 치며 하류를 향해 달음박질 한다. 고리, 동악 두산이 서로 손을 맞잡기 위해 등성등성 놓아 둔, 짐채만한 바위들들도 흐르는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만 볼 뿐, 속수무책이다. 게다가, 완연한 가을색으로 물 들어가는 양쪽 강변 풍경에 이 길을 수 없이 오고간 내 가슴도 벌렁거린다. 핸드폰을 꺼내어 그 풍경을 찍어서 지인들에게 보내느라 여념이 없는 아내를 불러 세웠다. "왜 섬진강이라 하는줄 알아?" "두꺼비가 다리를 놔서 섬진강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인터넷에 나온 말이고.."

"섬진강은 흐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곡성에

선 순하고 착한 강이라고 하여 순자강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옛날 섬진강변에 살던 사람들은 달래강이라 불렀다네." "달래강? 무지 토속적인 이름이네."

"그래 순 우리말 표현일꺼야. '달'이란 하늘의 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메산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 왜 산동네를 달동네라고 하잖아. 이 강이 산골짜기를 굽이굽이 끼고 돌아간다고 해서 달래강이라고 했겠지." "그런데 달래강이라는 이름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에 달래강이라는 옛 이름을 가진 강들이 수없이 많거든"

"그리고 달래강엔 자기말대로 토속적이고 예로틱하면서도 한편으론 애절한 전설이 서려 있어"

그 말에 아내는 호기심이 동했는지 눈을 번쩍 뜨면서 이어지는 얘기를 재촉했다. "오우!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일찍 부모님을 여읜 남매가 살고 있었어. 논밭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했는데, 찰방찰방 겨우 밭목이나 적시던 강물이 때마침 내린 비로 많이 불었나봐. 그래서 남매는 하는 수 없이 옷을 벗어두고 조심조심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벗은 누이의 몸을 본 동생이 갑자기 불끈해 버린거야. 누이한테 그런 감정을 가진 것에 대해 자책하던 동생은 순간적으로 돌을 들어 자신의 몸을 짓이겨 버렸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동생을 꺼안은 누나는 돌아버린 거야."

"아 이놈아 정 못 견디겠으면 말이나 해보지, 달래나 보지" 통곡하는 누나를 따라 강물도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 잘 들어봐. 저 강물이 "말이나 해보지. 달래나 보지" 그렇게 외치는 것 같지 않아?" 슬픈 표정을 지으며 흐르는 강물을 망연히 바라보던 아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얘기를 들으니 왠지 섬진강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네.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도 피흘리는 동생을 꺼안고 있는 누나의 통곡처럼 들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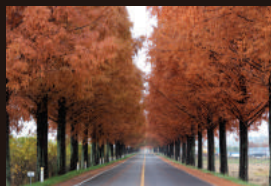
"아따 이사람 한숨 더 뜨네. 갈 길이 멀다 얼른 가자."

840번 지방도로 고틀머리에서 완벽한 S 자형대로 구부러진 길



여행가 노트

- 섬진강드라이브길 출발점 : 함하강
- 섬진강드라이브길 종착점 : 양쪽
- 거리: 13 km





양옆 메타스콰이어 가로수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가을
냄새를 물씬 풍겼다. 그런 풍경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진
짜 메타스콰이어 길을 보여주고 싶어 17번 국도를 버리
고 곡성읍으로 방향을 잡았다. 영화 "곡성" 포스터에도
등장한 적 있는 이 길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는 이른 봄
과 짙은 갈색으로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가장 아름답다.
아직 단풍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을 분위기는 완
연했다. 천천히 그 길을 통과하는데 아내는 마치 드라마
의 여주인공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곡성읍 가장자리를 살짝 스치고 작은 소읍 오곡면 소재
지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섬진강 드라이브코스 17번 국
도에 접어들었다.

섬진강을 끼고 달리는 17번 국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길이라는 찬사가 모자라지 않을 만
큼, 멋과 품격을 자랑한다. 자전거도로, 17번국도, 중기
기관차가 다니는 철로, 전라선철로, 섬진강 둘레길까지

각각 5개의 길이 겹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길 위를 움
직이는 것 자체가 음악이나 다름없어 나는 이 길을 오선
지길이라 부른다.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 철로를 달리는 레일바이크 출
발점 침곡역에 들러 시원한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장
실을 다녀왔다. 용무라기보다, 여기 오면 거긴 꼭 들러가
야 웬지 시원한 느낌이 든다. 가정역에서 잠수교를 건너
고향 냄새 물씬 풍기는 가정마을도 잠깐 기웃거렸다. 주
말에도 일을 하느라 바빠서 어지간해서는 여행을 할 엄
두를 내지 못했던 아내가 모처럼 길을 나서 "좋다. 좋다"
를 연발한다. 진작 데려올 것을 하는 미안함이 가슴을
저민다.

다시 17번 국도로 올라와 단골 식당에 들러 내 땀엔 아
내를 위한담시고, 참게 매운탕과 은어회, 은어튀김을 주
문했다. 상에 가득한 음식을 보고 왜 쓰잘데 없는 짓을

하느냐고 핀잔을 주던 아내가 이번엔 "맛있다. 맛있다"
를 연발한다.

배도 든든히 채웠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우리는
느긋한 마음으로 학창시절의 진한 추억이 서려 있는 압
록을 찾았다. 널따란 은모래밭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쇠
퇴한 압록에선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새롭게 바뀌게 될 압록은 우리에게 어
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가 된다.

섬진강 드라이브길은 일년 사시사철 언제라도 신선한
청량감을 안겨주지만, 철로변에 심겨진 붉은 철쭉이 일
제히 꽃문을 여는 5월이 가장 아름답다. 이제 두 시간 남
짓을 함께한 섬진강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섬
진강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대황강으로 향했
다.





GOKSEONG
TOUR
005

함허정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전쯤 과거로 돌아가 곡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찾는다면 그곳은 틀림없이 함허정이 될 것이다.

섬진강은 진안고원 팔봉산 백운봉 데미샘에서 시작하여 임실, 순창의 산을 끼고 들을 적시며 흘러와 곡성 제월에 이르러 비로소 지친 몸을 풀어놓는다. 옛 사람들은 거기서 부터를 순자강이라 불렀다. 그곳엔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고, 동악산에서 흘러온 산등성이가 강물을 마시기 위해 길게 목을 내민 거북의 형상을 하고 강을 가로막는다.

강이 다시 굽이쳐 흐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소담한 정자 하나 자리잡고 있어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이면 천상에서 잘려 나온 풍경 한 자락을 방불케 하였을 것이다.

강과 산이 맞닿은 곳에는 섬진강을 지키는 신령스런 용이 올라와 노닐다 간다는 용암이라는 녀력바위가 있다. 함허정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남도의 내노라 하는 풍류객들은 이곳을 찾아 시를 짓고 자연을 노래했다고 전한다. 그 흔적이 아직도 함허정 누마루 천정위를 비집고 들어갈 틈 없이 빼곡하게 걸린 편액으로 남아있다.

중종 무렵 이곳에는 사화로 얼룩진 조정에 나아가기를 마다하고 교육기관인 군지춘정사를 설립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후진양성에 힘을 쏟던 부호이자, 덕망 높은 선비, 제호정 심광형 선생이 살고 있었다.

이곳의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선비들을 위해서 섬진강이 굽이쳐 흐르는 언덕위에 누정을 짓고, 옥심일랑 다 내려놓고 폭 쉬어가라는 의미로 함허정이라 이름 하였다.

오늘날 현존하는 함허정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옮겨 다시 지었다고 한다.

추측컨대 아마도 언덕의 일부가 함몰하여 붕괴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남도 수많은 누정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던 함허정이었는데 근대 이후 섬진강 상류에 저수지며 댐이 들어서고, 보가 막히면서 넘실대던 강물이 실개천으로 바뀌는 바람에 드넓은 제월 백사장은 수풀과 잡목으로 뒤덮인 습지로 변하고 주변 경관도 많이 훼손되어, 더 이상 풍류를 떠 올리게 하는 옛 모습을 찾아볼 길 없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함허정의 고매한 자태와 누정에 남아 있는

풍류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 편액에 새겨진 시구들을 더듬어 읽다 보면 저절로 시가 읊조려진다.

함허정 누마루에 무심코 앉았는데
한줄기 강바람 가슴에 스며드네.
옛 선비 손때들은 기둥에 등을 기댄채
들녘 꼬트머리 무등산 바라보니
세상에 찌든 마음, 신선 인냥 가벼워라.

여행기 노트

- 개요.

건립 유형무형제 160호로 지정된 함허정은 조선 중종 1543년에 심광형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중요민속자료 155호인 군지춘정사를 짓고 이 지역 선비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 지은 전형적인 누정건물로서 군지춘정사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함허정은 사방이 트인 일반 누정과 달리 3면이 트인 미륵 1칸, 방 2칸 방, 그리고 반 칸 크기의 쪽마루형 미륵을 한칸 높인 형식이어서 있어 최시와 죽거기 가능한 형태이다.

-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계곡리 1016

GOKSEONG
TOUR
006

‘추억의 종착역’ 섬진강 플랫폼
가정역



가정역은 기차마을을 떠나 13km를 달려온 증기기관차와 침곡역을 출발하여 5.2km를 굴러온 레일바이크의 종착역이다. 원래 전라선 철로에는 없었던 역인데 증기기관차 운행과 함께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지어졌다. 통나무집을 연상케 하는 가정역의 외관은 마치 알프스 산악 기차역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증기기관차로 가정역에 도착하면 출발시간까지 30분

여유시간이 주어진다. 이곳에 머무는 이들이 '추억과 향수에 젖어들게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정역을 '추억의 종착역'이라는 부른다.

가정역이 '아름다운역'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지척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고향의 강으로 여겨지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서다. 가정역에 내린 승객들은 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건너가서 자연스럽게 섬진강을 만난다. 그리고 강변을 산책하면서 더 가까워서 섬진강 풍경을 감상하게 된다. 따라서 이곳을 처음 찾는 이들에게 가정역은 섬진강과 동의어로 여겨진다.

강을 건너올 때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출렁다리를 이용하지만, 다시 가정역으로 건너갈 때는 대개, 아래쪽에 설치된, 사람과 차량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두계 세월교를 이용한다. 이 다리는 강물이 불면 물속에 잠기게 되는 잠수교다.

여행지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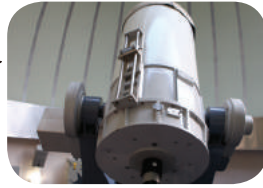
가정역 주변에는 곡성청소년이영양, 섬진강문화재단, 기념품점, 체험마을이 있어 기념품, 천문대, 섬진강캠핑, 서바이벌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널중 진행된다. 객기를 리모컨으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섬진강기차미니어처이다. 아영양에서 렌탈을 임대하여 특별한 히로빈을 경험해보는 것도 미리 예약하면 가능하다. 주변에 섬진강 특산 오아자와 함께 오리를 걸머로 하는 맛집들도 즐비하다. 그래서 가정역은 섬진강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진정한 플랫폼이다.

- 위치 : 곡성군 고대면 가정마을길 51

가정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증기기관차가 긴 기적소리를 울리면 출발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섬진강과의 짧은 만남은 너무 아쉽지만, 가정역에서의 추억이 가슴속 깊이 아로새겨지는 순간이다.

GOKSEONG
TOUR
007

섬진강을 흐르는 별을 잡아라
천문대



시골 살다가 도시로 나간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한다. "나 어릴 때는 별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는데, 지금은 별 볼일도 없고, 별을 볼 수도 없어, 그런 별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원이 없겠어." 그러나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고, 어딜 가나 인공 불빛이 난무하여 별을 보기가 더욱 쉽지 않다. 그래서 천문대를 생각해 보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마음만 있을 뿐 쉽사리 천문대를 찾지 못한다. 연구 목적의 천문대는 일반인에게 개방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설혹 개방된 천문대라 할지라도 대부분 접근이 쉽지 않은 산지나 오지에 위치해 있다.

곡성에는 연구 목적이 아닌 관광객을 위한 천문대가 있다. 다행히 그곳은 평지에 위치해 있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증기기관차 종착역인 가정역에서 바라보면 건너편 섬진강변에 둥근 돔 지붕을 하고 있는 건물이 곡성섬진강천문대다. 이곳은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곡성일대에서도 가장 하늘이 맑은 곳이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공

불빛을 차단해주고, 관측범위도 충분하기 때문에 천문대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2007년 문을 연 곡성섬진강천문대는 600mm 리치크레티앙 반사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천체 관측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천문관측 체험 서비스를 자랑한다.

곡성섬진강천문대에서는, 이곳을 운영하는 천체 전문가들의 안내에 따라서 천체 영상물 관람, 천체 관측요령 교육 그리고 실제 천체 관측 체험 순으로 누구나 천체 관측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별 볼일 없고, 별을 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곡성섬진강천문대에 가면 별 볼일이 생기고 별을 볼 수가 있다.

- 예약필수 : 홈페이지 <http://star.gokseong.go.kr>
전화 : 061-363-8528

- 운영시간 : 오후 2시 ~ 오후 9시 (입장시간 기준)

- 관람시간 : 1 시간 이내

- 입장료 : 성인: 3000원 청소년, 군경 2000원,
어린이 1000원

*** 단체 할인 적용

여행지 노트

1회 입장인원이 30명인 관계로, 시간에 예약을 해야 승리를 기다리지 않고 천문대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시간이 여유있을 때 예약을 하고, 밤 시간에는 별 관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계절에 따라 관측시간이 바뀌고, 날씨에 따라 실제 천체관측체험은 곤란하여 디폴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곡성섬진강천문대 홈페이지와 더불어, 일기예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섬진강로 1234
(곡성군 곡성의 경계선이며, 곡성이 운영한다.)

GOKSEONG
TOUR
008

섬진강을 온몸으로 만나는 방법
레프팅

수영을 비롯해서, 레저보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카누, 카약 그리고 레프팅까지 강은 다양한 수상 레포츠 공간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가장 맑은 청정 1급수 섬진강은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물살이 세고 급류가 많아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록유원지 제한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상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섬진강에서 레프팅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다. 또한 온몸으로 섬진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기도 하다.

섬진강은 수량이 풍부하고 잔잔한 구역과 급류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주는 평화로움과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익사티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레프팅을 하다보면 온몸이 강물에 젖고, 때로는 입이나 코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섬진강이 천연기념물 쏘가

리와 깎지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최고의 장점으로 꼽힌다.

섬진강 레프팅은 섬진강청소년야영장을 출발하여 압록유원지를 지나 종착지인 팔도강산까지 약 5 km의 구간에서 진행된다. 섬진강 한 가운데서 만나는 아름다운 강변 풍경은, 섬진강 레프팅이 주는 보너스다.

운영업체: 섬진강레저박스
위치: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466번
연락처: 061-363-7879

홈페이지: <http://www.gsntnt.com>
구간거리: 5 km

소요시간: 1시간 30분~2시간

요금: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1인당 2만원 내외



여행기 노트

섬진강 레프팅은 강역을 간추려 건담기에 의해서 인공된 강비를 간추리고, 충분한 시간 교육은 실시하기 때문에, 초보라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험지에서 직접 밭길을 하는 것보다, 회원기업을 하고 미리 예약을 하면 20% 가격 저렴한 요금으로 즐길 수 있다.

GOKSEONG
TOUR
009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길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은 라이더들이라면 반드시 한번쯤 달려보고 싶어 하는 로망의 길이다. 그중 곡성을 통과하는 25km 구간이 섬진강 자전거길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다. 자전거길 대부분이 차도와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은 특 트인 강둑과 정겨운 시골 마을길을 통과하고, 크고 작은 다리를 건너기도 하면서 흥미진진함을 안겨준다.

그래서 섬진강 자전거길은 라이더와 지역 농민들이 사이 좋게 이용하는 길이라는 뜻으로 '함께 나누는 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섬진강 곡성구간을 통과하는 라이더라면 반드시 들려가는 두가현은 '두바퀴 쉼터'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로, 라이더들에게는 친숙한 곳이다. 자전거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숙박을 할 수 있는 펜션을 갖추고 있다. 한번 다녀간 이들은 이곳을 전국에서 가장 예쁜 자전거 쉼터로 부른다.

섬진강 자전거길 곡성구간은 수시로 그 모습을 바꾼다.

봄에는 화사한 매화와 함께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철로 변을 수놓은 철쭉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고, 여름내내 자전거길을 따라서 붉은 배롱나무가 피고, 가을에는 섬진강변을 붉게 물들인 단풍사이로 선선한 강바람을 안고 달릴 수 있다. 겨울에는 서걱이는 갈대의 춤사위와 물새들의 군무가 패달을 멈추게 만든다.

섬진강 전 구간을 종주하는 전문 라이더들처럼, 자신의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곡성섬진강변 자전거길에 주는 이러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가정역 건너편 섬진강 청소년 야영장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섬진강 강바람을 안아볼 수 있겠다.

여행기 노트

섬진강 곡성구간의 자전거길은 대부분 섬진강에 비껴 나가지 않아, 섬진강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묘미가 더해져, 기성 농촌체험 마을을 비롯하여, 미치 오기까지 경관이 멋진 풍경은 강변마을 골목길을 걸어도 볼 수 있다. 자전거를 대여하여 하이킹을 즐기려면, 20분 코스에서, 섬진강 곡성구간을 제대로 걸어도 21km 구간까지 다양한 코스가 구성되어 있다.

자전거 대여 문의

곡성청소년야영장: TEL 061-362-4186,

자전거대여소 061-363-4189

자전거 대여 요금

개인: 1인용 시간당 5,000원, 2인용 10,000원





GOKSEONG
TOUR
010

‘마음의강’ 섬진강을 걷다
둘레길

인간의 몸은 자주 걸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할수록 걷는 시간보다 자동차를 타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이는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신은 점점 약해지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것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건강 증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걷기를 통해서 면역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우울증 같은 현대인에게 만연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임상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도심지 거리나 아파트 단지를 걷는 것도 좋지만, 공기가 맑고 경관이 아름다운 산길이나 바닷가 또는 강변을 걷는 것이 심신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춘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동해안 해파랑길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진강은 청정함, 순수함, 정겨움을 상징하는 ‘마음의 강’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섬진강을 따라 걷는 길이 만들어진다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될 것이다. 섬진강트레킹! 생각만으로도 설레지만 우리나라 전국 유명한 길들을 누빈 전문 트레커들에게도 섬진강 트레킹은 아직 생소한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자체별로 조

성해놓은 섬진강을 끼고 걷는 각종 둘레길이 있고, 곡성도 진작부터 ‘섬진강 둘레길’이라는 이름으로 트레킹 코스를 개설하였다. 섬진강둘레길은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시작하여, 압록 유원지까지 이어지는 15km 코스다. 이 길의 가치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트레커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섬진강 둘레길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구간별로 길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그 길에서 만나는 풍경도 무척 다양하다는 것이다. 섬진강 둘레길은 다섯 구간으로 나뉜다.

시내길, 제방길이라는 이름의 1구간은 기차마을을 출발하여, 들녘과 마을, 그리고 강둑을 지나는 곡성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3.2km 구간이다. 숲길, 공원길이라는 이름의 2구간부터 길은 울창한 숲속으로 기어올라가 한적하고 소담한 오솔길로 이어진다. 산 모퉁이를 돌아 가면 그리운 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길이다. 침곡역에서 가정역까지 이어지는 힐링숲길 3구간은 섬진강둘레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클라이막스 구간이다. 증기기관차 철로길을 따라가다가 하면 다시 산등성이를 오르기도 하고, 외나무다리나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어릴적 읽었던 전래동화를 떠올리게도 한다. 이따금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을 굽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섬진강 둘레길 딱 한구간만 체험하고 싶다면 3구간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침곡역과 가정역사이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기가 쉽다.

하지만 섬진강 둘레길에서 가장 매력적인 길을 꼽으라면 가정역에서 이정마을까지 연결되는 4구간 2.1km

철도길일 것이다. 아직도 옛날 전라선 철로와 침목이 그대로 남아있어, 영화의 배경화면 같은 그 길을 걷다보면 누구라도 아련한 옛 추억에 사로잡혀 마치 영화배우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5구간 2.4 km의 이름은 강길이다.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섬진강 둘레길이다.

이 길에선 대밭, 흙길, 돌길을 따라 걸으며 여울목을 지나는 섬진강이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시내길, 제방길, 숲길, 공원길, 힐링숲길, 철로길, 강길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된 둘레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매력에 비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 언제 가든지 한갓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갈아입는 섬진강둘레길은 철따라 최소한 4번은 걸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여행기 노트

구간별 이용가능한 교통편

1. 구간 끝점 - 곡성버스
2. 구간 끝점 침곡역 - 기차마을, 기차역 오행 셔틀버스, 증기기관차, 케이비이크
3. 구간 끝점 가정역 - 셔틀버스, 증기기관차
4. 구간 끝점 이정마을 - 곡성 버스
5. 5구간 끝점 압록 - 곡성버스

*** 각 구간에서 곡성 클렉시 이용 가능

GOKSEONG

TOUR
011

섬진강 침실습지

섬진강 침실습지,
내 생애 만난 가장 아름다운 아침 ...

섬진강을 덮고 있는 어둠은 깊고 천지는 고요했다. 새벽 이시간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갈대숲을 서걱이는 강바람조차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건지 기척이 없다. 멀리 마을의 골목을 밝히는 가로등은 줄음에 겨워 깜빡거리고, 뭇 별들은 하늘을 덮은 구름사이에서 잠시 얼굴을 내밀었다가 사라진다.

적당한 위치를 잡아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셋팅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카 오디오를 켰다. 이런 분위기에는 시크릿가든이 제격이다. 느긋한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데, 온갖 상념들이 여명보다 먼저 머릿속을 헤집는다. 하지만 그것은 번민이나 회한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찰이나 세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런 맛있는 고독의 시간이 이 꼭두새벽에 어둠을 헤치며 침실습지를 찾게 만드는 매력인 지도 모른다.

마침내 강 한가운데 육중한 실루엣으로 서 있던 물벼들 나무숲들의 모습이 점점 더 또렷해지면서 여명이 시작되었다. 시나브로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물벼들 나무가 서 있는 섬들 사이로 여울을 이루는 강물과 모래톱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여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비치기 시작한 물안개가 솔뚜껑을 열었을 때처럼, 강물에서 관목과 갈대숲사이로 확 번지면서 순식간에 피어오르는

데, 마치 섬진강과 습지 전체가 마법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다행히 물안개는 내가 서 있는 강둑 위로는 올라오지 않고 습지위에서만 넘실거리거나,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고 있어서, 이 마법 같은 풍경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뭔가 후다닥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바라보니, 내가 서 있는 강변 가까운 모래톱에 물을 마시러 온 고라니가 카메라 셔터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소리였다. 좀 더 거기에 머물러 주었다면 안개와 함께 멋진 모델이 되어 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잠깐, 이번에는 수달 가족 세 마리가 얼굴을 내밀더니 사진을 찍을 새도 없이 얼른 물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때부터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아침 풍경이 변화하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다보니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런데 게으른 해는 건너편 고달 들녘 끄트머리 산등성이 위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만 있을 뿐, 당체 얼굴을 내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같은 풍경을 계속 찍는 것이 물려서, 여유를 부리며 커피를 마시려는 순간, 석류빛보다 붉게 물든 하늘에서 해가 빼꼼하게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동시에 거기서 뻗어 내린 햇살은 온 누리로 번지고 습

지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버무러지면서, 침실습지 전체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출렁였다. 국내외, 산과 바다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내가 만난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풍경이었다. 하늘과 대지로 부터 이런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고 보니 가슴이 북받쳤다. 천지창조, 혹은 빅뱅의 순간에도 이토록 황홀한 빛이 온 누리에 가득했을까.

이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미켈란젤로처럼 그것을 화폭에 그릴 수 없다는 것이, 베토벤처럼 그것을 악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김용택 시인처럼 이 섬진강의 아침이 보여준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할 능력이 없어서, 엠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여기저기 전화라도 해서 아는 사람을 모두 불러서 보여주고 싶은데, 아쉽게도 해가 떠오를수록 안개는 잦아들고, 침실습지는 빠르게 현실세계로 돌아오고 있었다.

강물은 여기저기에서 여울을 이루며 재잘거리고, 광활한 습지에 가득한 무수한 물벼들 나무들도 안개 이불을 박차고 술렁거렸다. 가녀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갈대밭은 춤을 추고, 왜가리며 백로 같은 물새들은 우아한 자세로 서서 강물을 응시하며 아침식사를 기다렸



다. 일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상쾌함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다.

비로소 시선을 먼 곳으로 향했다. 요천과 합류하는 장선습지까지 섬진강 물길이 닿는 곳에서는 아직 물안개가 가시지 않고 뭉게구름을 이루고, 산등성이 마을 골목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연기와 어울려 정겨운 고향 풍경을 연출하였다.

아무리 사진으로 담는 들,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천지차이인데 이런 풍경을 혼자서만 누렸으니 아깝고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아내에게 보내면서 내가 만난 이 감동을 전하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의외로 뜨악하다. 두눈으로 보지 않은 니가 어찌 내 기분을 알랴.

섬진강과 함께 흐르던 안개강이 사라지면서 흥분했던 마음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나는 차마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섬진강 제방에서 내려오는 순간 내가 봤던 이 모든 것들이 기억 속에서조차 깡그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였다.

잠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간 밤 꿈속에서 만난 풍경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듯.....

침실습지가 내려다보이는 제방길과 섬진강 자전거길과 연결되는 무지개다리, 그리고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뽕뽕다리를 거닐면서 내 생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아침풍경에 대한 기억을 녹음해 두었다가 다시 글로 옮겼다.

침실 습지는 섬진강 유역인 곡성군 고덕면 고덕교에서 오곡면 오기교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광활한 강 습지로서 뚝뚝 굴푼이 이룬 기왓대, 강변에는 울창한 갈대숲이 형성되어 있다. 수달, 고리니, 오소리 등을 비롯한 포유류와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 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2016.11.7 국기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침실 습지는 언제 어느 때 칩어도 섬진강이 기어내는 아름디움의 길속을 만날 수 있지만 특히 이룬 아침 무렵에 칩어지면 겨울에는 상고대, 이룬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가 그려내는 비경을 만날 수 있다.



침실습지 찾아가는 법

1. 도보이용
 - 오곡면 종합회관에서 구름다리까지 걸어서 10분 소요.
 - 기차마을 레일펜션에서 20분 소요
2. 차량으로 신리제방 포토포인트 찾아가는 법
 - 오곡면 농협에서 주유소를 끼고 계속 직진하면 신리 제방 도착
3. 차량으로 구름다리 포토포인트 찾아가는 법
 - 오곡면 금천교 다리 건너기 직전 오곡면 종합회관을 끼고

돌면 뚝방길이 나옴. 구름다리를 지나 제방위 주차 가능
4. 네비게이션 : 곡성군 하수 처리장 입력

침실습지 물안개
4~5월, 9월~11월, 일출 40분전부터 물안개가 올라오기 시작함.

침실습지 상고대
11~2월 사이, 일교차가 크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새벽녘

GOKSEONG

TOUR 012

강나루를 아십니까 호곡나루터

현대인은 어떤 의미에서 실향민이다. 고향이라는 의미를 상실했거나, 고향이라는 공간이 훼손되어 더 이상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딱히 자신의 고향은 아니라도 그 정취라도 만나고 싶어서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지만, 대부분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곳들이라 실망감만 더해진다. 산과 강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거기가 어디든 고향으로 가기위해서는 나루터를 건너야했다. 예로부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할 땐 반드시 나루터가 등장하는 이유다. 그래서 나루터는 고향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구절양장처럼 굵이굵이 흘러가며 양쪽에 포도송이처럼 많은 마을을 끼고 도는 섬진강만큼 나루터가 많았던 강도 드물 것이다. 그리고 최근까지 섬진강 나루터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섬진강 나룻배는 강 양쪽에 매어놓은 줄을 당기면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줄배라고 불렀다. 그래서 섬진강을 찾는 여행자들은 줄배를 타고 오지 마을을 들락거리며 고향에 대한 진한 향수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랠 수 있

었다. 그 섬진강 나룻배들도 이제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오편면 소재지에서 압록으로 가는 17번 국도에서 섬진강과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초입에 있는 침곡마을과 강 건너 호곡마을을 연결하는 호곡나루터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줄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제는 여기도 더 이상 줄배를 운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루터의 모습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우리나라 마지막 나루터가 주는 정취를 눈으로라도 느낄 수가 있다. 호곡나루터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호곡마을쪽으로 건너 가야한다. 17번 국도를 타고 침곡역에서 약 2km 가량 내려가서 좌회전하면 사곡교를 통해 섬진강을 건널 수 있다. 그러면 눈앞에 예쁜 한옥카페 두가현이 나타난다.

자전거길, 농로길, 이른바 '함께 나누는 길'을 천천히 달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커다란 도깨비상을 만나게 된다. 마천목 장군을 위해 도깨비들이 고기를 잡는 어살

여행지노트

- ★ 호곡나루터 :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350
- ★ 경유지 두가현 :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569-1

두가현에서 호곡나루터까지는 도로는 지도와 지형지도로, 농로길 경하고 있으니 절대 서행이 필요함.

- ★ 함께 볼거리
- 두가리 마을신채
- 호곡리 마을신채
- 도깨비마을 체험

을 막아주었다는 도깨비상이 위치해 있고, 도깨비 체험마을이 있음을 알리는 이정표다. 거기서 2km 쯤 올라가면 호곡마을입구다. 그리고 사공은 간데없고 빈 배만 강물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어 나그네를 감상에 젖게 만든다.

여기까지 온 김에 아직 고향의 원형을 간직한 깊은 산중 호곡마을도 찾아가 보자.

어쩌면 거기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고향의 원형을 만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GOKSEONG

TOUR 013

한 폭의 수채화같은 풍경, 영화 곡성 촬영지 동산마을 낚시터

영화 곡성은 외지인 쿠니무라준이 강을 향해 돌출된 바위에 앉아 낚시에 미끼를 끼우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불길하면서도, 신비하고 또 아름다운 강변 풍경이다. 마침 곡성을 여행하게 되어, 우선 그곳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영화가 막 개봉된 상태라서, 곡성 사람들조차도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며 설왕설래했다. 섬진강에서 낚시를 즐긴다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아 거그, 동산이여.고달쪽으로 가다가 뚝방에서 좌회전해서 쪽 들어가면 거그가 동산마을이여!' 그가 알려준 위치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했더니 곡성읍에서 불과 3.6km 떨어진 거리였다. 네비게이션을 따라서 고달면 소재지로 향하는 지방도에서 섬진강 제방길로 접어들어 십 여분 남짓 들어가자 수령이 수 백년쯤 되는 느티나무로 짐작되는 고목들이 늘어진 동산마을 강가 쉽

에서 길이 끝났다. 마을사람들을 위한 낚은 체육시설과 진작부터 이곳을 트레킹 코스로 개발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나무 데크를 따라가니 섬진강이 급류를 이루는 넓은 습지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알고보니 장선습지였다. 위에서는 도저히 그곳을 찾을 수 없어 강변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살펴보니, 강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강변에는 낚시꾼들이 다녀간 흔적도 있고, 짐채만한 바위들이 강변에 듬성듬성 놓여져 있긴 했지만, 영화의 배경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모래사장을 따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낚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영화에서와는 달리,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유장하게 흐르는 섬진강과 강에 내려와 앉은 커

여행지노트

- ★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동산길 165

다란 바위덩어리 그리고 초록빛 강변과 멀리 강마을이 어울려 한 폭의 수채화같은 정겨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바위에 앉아서 물끄러미 섬진강을 바라보았다. 외지인 쿠니무라준의 알 수 없는 표정과, 일광 황정민의 대사가 오버랩 되었다. [왜 하필이면 자네말이냐고? 그 어린것이 뭐 죄가있다고~? 자네는 낚시할적에 뭐가 걸릴건지 알고 미끼를 던지는가? 그놈은 미끼를 던진 것이여, 자네 말은 그 미끼를 확 물어본것이고.]

그리고 영화에서 간간히 비춰주던 섬진강 풍경 도 가까운 섬진강 장선습지와 남원 고리봉과 동악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여기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얻은 소득이었다.

GOKSEONG

TOUR
014

압록유원지

추억과 낭만의 공간 압록유원지...

강을 통한 운송이 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시절, 두 강이 만나는 합수지점은 물산과 사람이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 구실을 했다.

섬진강과 대항강(보성강)이 합쳐지는 곡성 압록포구도 그런 곳이었다. 옛 사람들이 일컫는 곡성팔경중 압록의 귀범(歸帆)이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남해 하동포구로 들어온 무수한 배들이 뚝에 바람을 가득 안고 강을 거슬러 압록으로 들어오는 풍경은 상상만 해봐도 장관이었을 것이다. 효녀 심청의 원형인 원홍장이 중국으로 가는 무역선에 오른 곳도 압록이었을 것이며, 지금의 서울 낙성대에 살던 강감찬장군이 어머니를 모시고 올 수 있었던 것도 뱃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강감찬 장군이 모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도술을 부려 모기를 퇴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압록에는 모기가 없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삼국시대 태안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것도, 압록을 통해서 전국적인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며, 곡성이 배출한 영웅, 마천목 장군과 신승겸 장군이 야망을 품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때도 압록에서 첫걸음을 작했을 것이다. 당시 압록은 물류창고와 객점이 즐비했을 것이고, 요리집을 드나드는 뱃사람들로 흥

청거리며 도시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근대에 들어와 철도가 놓이고, 도로가 뚫리면서, 남해안 하동포구에서 압록으로 연결되는 수운은 쇠퇴했지만, 압록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보성강과 섬진강이 모이는 자리에 형성된 거대한 모래사장과 빼어난 주변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라선 열차에 몸을 싣고 봄철이면 행락객, 여름철엔 피서객들이 압록역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서울 젊은이들이 춘천 강촌으로 모여들었다면, 서울 포함해서 영호남 젊은이들은 압록으로 모여들었다. 피서철엔 압록 백사장에선 밤새 기타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열기왕성한 고등학생들끼리 일어나는 잦은 패싸움 때문에 지역경찰은 골머리를 앓았다. 두 강물이 한데 모이면서 일어나는 소용돌이로 익사사고도 자주 일어났다.

1980년대 이후 보성강이 주암댐으로 막히고, 섬진강 상류 임실 옥정호가 더 많은 물을 가두면서, 압록을 흐르는 섬진강 수량도 급격하게 줄었다. 동시에 섬진강 일대에선 무분별한 모래채취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굽티 고운 은모래로 가득한 모래사장은 반에 반토막으로 잘려나가고 말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압록을 찾는 발걸음도 줄어들고, 실상가상 전라선 철로가 정비되면서

압록역이 패쇄된 다음부터 쇠퇴일로로 걸었다.

낭만의 강변 압록 풍경은 지금은 7080세대들의 추억 속에만 남아 있을 뿐이다. 비록 옛 풍광은 사라졌지만, 압록유원지는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지금 압록에서는 잃어버린 과거의 영화와 명성을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압록 마을은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한 어드벤처 테마파크도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압록 유원지는 압록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하여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여행기노트

- ★ 주소: 경리남도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로 1012
- ★ 오토캠핑장 주소: 경리남도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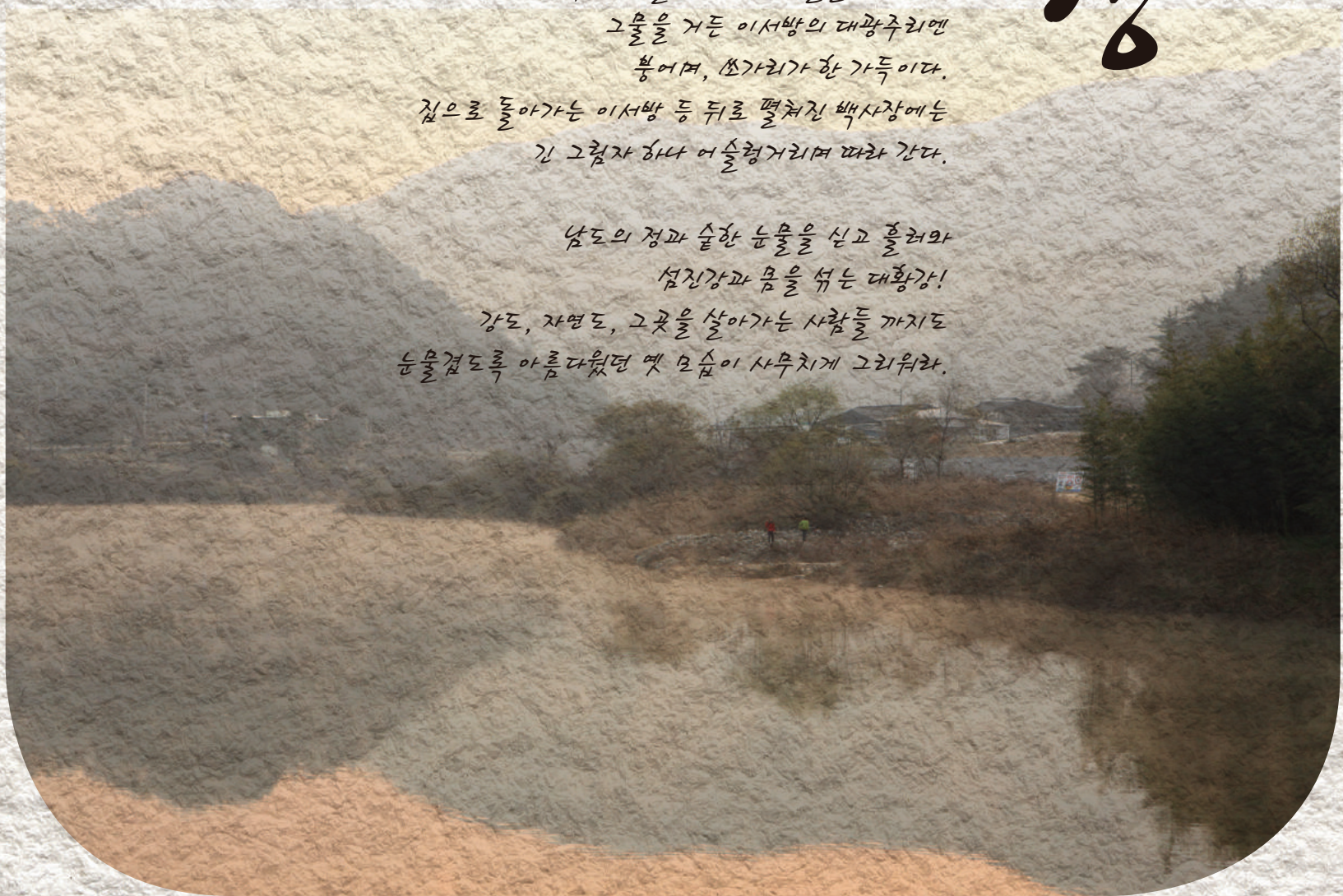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남도의 정한이 흐르던 대황강

바람이 불었다. 짙푸른 그림자를 드리운 대밭이 옥빛 강을위로 출렁거렸다.
높은 사공은 힘껏 줄을 잡아당겨
장 빛짐 가득 실은 나룻배를 건너편 강 언덕으로 데려가고
배를 타고 있는 아낙들은 떡을 괴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본다.

여울목에서 역 감는 아이들과 함께 재잘거리던 강물이
집채만한 바위 뒤로 들어가더니 시키면 소로 변했다.
그곳에 고기 뺨, 물 뺨 이서뺨의 어전(魚田)이 있다.
해거름은 강물에 검은 산그늘을 드리우고
그물을 거둔 이서뺨의 대광주리엔
뽕이며, 쏘가리가 한 가득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서뺨 등 뒤로 펼쳐진 백사장은
긴 그림자 하나 어슬렁거리며 따라 간다.

남도의 정과 슬한 눈물을 싣고 흘러와
섬진강과 몸을 섞는 대황강!
강도, 자연도,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 까지도
눈물겹도록 아름다웠던 옛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워라.

대황강



GOKSEONG

TOUR
015

환상의 대항강 벚꽃길

드라이브코스



봄을 맞이하면서 벚꽃, 매화, 산수유, 진달래, 철쭉
꽃이 장관을 이루는 섬진강 유역 하동, 광양, 구례, 등지는
전국에서 올려뜬 상춘인파로 생년리를 치른다.

물론 전국에서 손꼽히는 봄 풍경을 자랑하는 곳임에는 틀림없지만, 유명세를 쫓아 몰려다니는 대중들의 극성을 누려서 말리랴. 인파와 차량으로 발 딛을 틈 없이 북적이는 그곳을 탈출하여 지척에 있는 대항강과 함께 달리는 18번 국도에 들어서니,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꽃과 신록 그리고 강물이 어우러진 무릉도원을 독차지한 것 같아서 오진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1980년대 초반 구례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이 길을 처음 지나갔었다. 그때도 4월이었다. 이 길을 여태 잊지 못하고 찾아오는 것은, 지금까지 만난 무수한 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산 벚꽃들이 수놓은 연두색 산등성이 아래로 맑다 못해 옥빛을 띤 강물이 때론 여울로, 때론 잔잔한 호수처럼 흐르고, 강물위에 질푸른 그림자를 드리운 대나무숲이 보여주는 풍경은, 너른 평야를 흘러가는 황토색깔 영산강만 보고 자란 내게는 실로 경이적이었다. 어지간한 집채 보다 큰 바위들이 수호신처럼 우뚝우뚝 서있는 강변 풍경도 펍이나 이채로웠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던, 대항강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흐르는 강이었다.

그 이후, 오로지 이 길이 좋아 일부러 시외버스에 몸을 실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가을 대항강이 보여준 풍경에 대한 기억은 더욱 또렷하다. 가을날의 강물은 봄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했다. 산등성을 수놓은 울긋불긋한 단풍이 대나무와 어우러져 강물위로 붉은 그림자를 드리운 풍경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대항강 상류가 주암댐으로 막히면서 수량이 급격하게 줄고, 골재와 모래채취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점점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는 울고 싶을 만큼 참담했다.

그러나 자연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항강에 또 다른 형태의 자연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대항강을 거슬러 오르는 18번 국도 초입에 있는 레스토랑 [지리산 가는길]들러 차를 마시면서 옛 일을 회상하다가 발걸음을 재촉했다. 잠시 18번 국도를 벗어나 태안사 쪽으로 길을 잡았다. 이 길을 가다가 만나는 자연과 마을들 예선 아직도 순수함을 간직한 고향의 원형을 만날 수 있다. 원달 고개를 넘어 행정구역상 순천에 속하는 황전면 소재지까지 갔다가 다시 넘어와, 태안사까지 둘러 본 다음 다시 18번 국도로 돌아왔다. 유령마을 은퇴자 마을인 강빛마을, 지인택에 들러 발아래 펼쳐지는 봄빛 찬란한 대항강을 굽어보며 차를 나는 다음 죽곡면으로 향했다.

죽곡 소재지 앞으로 흐르는 대항강이 어울져 흐르는 모습은 사뭇 볼만했다. 게다가 대항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어 잠시 차를 세우고 다리를 건너는 느낌도 좋았다.

작은 소읍 목사동면에는 천변에 심어진 아름드리 고목들이 눈길을 끈다. 다시 길을 잡고 강변을 따라 석곡에 도착하여 석곡에서 유명한 돼지숯불구이로 늦은 점심을 하고, 반구정습지를 산책하는 것으로 대항강 드라이브를 마쳤다.

여행기 노트

- 대항강 드라이브코스 경로

이곡 -> 지리산 가는길 레스토랑 -> 북소 -> 레이싱카라 ->

황전면시막소 -> 레이싱카 -> 레이싱카시막소 -> 기림마을 ->

죽곡면소재지 -> 목사동면 소재지 -> 석곡면 소재지 ->

반구정습지



GOKSEONG

TOUR 016

강과, 산골 마을과 깊은 산속을 넘나드는

대황강 트레일

기차길, 자동차길, 자전거길, 둘레길이 시루떡처럼 겹쳐 있는 섬진강 17번 국도와 달리 얼핏 보면 대황강엔 자동차가 생생 달리는 18번 국도 말고는 걷기 좋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황강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험사리 그 길을 걷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대황강에도 길은 있다. 그것도 한갓지고, 편안하며 아름다운길이다. 원래 이길은 나뭇꾼들이나 다니던 산길, 산중의 논두렁, 밭두렁길이 임도로 활용되다가, 트레킹 코스로 정비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걷기 코스다. 그러나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 전국의 걷기 좋은 길을 찾아다니는 전문 도보여행자들조차도 이 길의 존재를 아는 이는 드물다.

18번 국도는 대황강 북쪽을 따라 가고 있지만, 이 길은 대황강 남쪽에 있다. 대황강과 섬진강이 만나는 압록유원지에서부터 임도와, 마을길, 농로와 강변길을 번갈아 지나면서 약 9km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가 죽곡면 소재지까지 연결된다. 죽곡면 대황강 출렁다리가 놓여 집에 따라, 앞으로 목사동면과 석곡면을 거쳐 반구정습지까지 연결되면 모를 지기 이 길을 대황강트레일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 하다.

대황강트레일의 경우, 대황강을 쭉 따라가는 본선과 인근에 산재해 있는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지선을 조합하게 된다면 무수한 도보여행 코스가 만들어지고, 이곳의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리고 독특한 경관으로 인해 도보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코스는 대황강과, 산골마을, 그리고 깊은 산속을 드나드는 그야말로 트레커들이 꿈꾸는 그런 길이다. 트레킹은 압록 유원지부터다. 강변에 즐비한 매운탕집을 지나 화이트빌리지펜션까지 이르는 길은 아쉽게도 아스팔트로 포장 되어있다.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비포장 임도다. 그러나 길이 워낙에 순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에

상관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 임도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농로와 연결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물속에 빠뜨린 북이 소리를 낸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대황강 북소를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대황강변 자전거길을 따라서 다시 하루로 내려가면 출발했던 압록으로 원점회귀 하는데, 이럴 경우 총 6km 거리에 넉넉잡고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면 충분하다.

진정한 대황강 트레일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북소에서 거꾸로 개울을 따라 상류에 있는 고치리를 향해 올라가면서 마을길과 계곡길을 번갈아 걷는 트레킹이 시작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느긋한 마음으로 계속 걷다 보면 점입가경, 계속 새로운 경치가 열리면서 마치 무릉도원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산골풍경이 펼쳐진다. 진짜 비경은 상한마을로 향하는 고갯마루부터이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상한마을과 하한마을은 특히 봄철에는 선경을 방불케 한다. 이 골짜기의 비경이 알려지면서 이른 봄에는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진다. 상한마을, 하한마을을 지나 개울을 타고 쪽 내려오면 섬진강과 함께 달리는 17번 국도와 만나게 되고, 17번 국도를 거슬러서 1km 가량 올라가면 처음 출발했던 압록으로 원점회귀하게 된다.



여행지 노트

대황강 트레일, 상한마을 코스 거리: 12 km
총 소요시간 : 7 시간 - 휴식 1시간 30분 포함.

- 1 구간 : 압록 유원지에서 북소까지
- 2 구간 : 북소에서 고치리 고개 마루까지
- 3 구간 : 고치리 고개마루에서 나루터 기둥까지
- 4 구간 : 나루터 기둥에서 압록 유원지까지



GOKSEONG

TOUR
017

코스모스축제가 열리는 현장

석곡 대항강자연휴식공원

석곡의 순 우리말 이름은 '돌실'이다. 석곡 주변 대항강에 멋진 바위들이 많아 유래된 이름이다.

석곡 소재지 인근 대항강 주변에 넓게 조성된 공원이 석곡 대항강 휴식공원 또는 돌실 대항강 휴식공원이다. 특히 이곳에는 코스모스로 가득 채워져 있어 꽃이 피는 매년 9월말이면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

고, 광주, 순천 등 인근 도시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 공원과 강변을 가득채운 코스모스의 향연을 즐긴다. 석곡의 돼지 숲불구이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카누를 비롯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대항강 휴식공원 산책

로에서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백일홍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핀다.

여행지 노트

- 경리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46-12

함께 볼 수 있는 여행지

- 돌실 니이 건수관
- 반구점 습지 캠퍼코스
- 마벌목장길 시냇



GOKSEONG

TOUR
018

대항강의 랜드마크

죽곡 대항강출렁다리

대항강 출렁다리는 공사 시작 단계부터 곡성의 명물로 관심을 끌었다. 대항강을 가로질러 죽곡면 태평리와 목사동면 구룡리를 연결하는 180m 길이의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건설된 인도교다. 대항강 출렁다리가 이지역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죽곡 인근의 대항강의 아름다운 풍광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다리와 연결되는 7km 가량의 트레킹 코스가 새롭게 정비되어, 여울목을 흘러가는 대항강의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강둑을 따라 펼쳐진 대숲과 소나무숲 그리고 삼나무숲이 주는 상쾌함을 만끽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출렁다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행지 노트

경리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83

죽곡면 볼만한 곳

- 캐인사
- 조래일 시묘하 기념관
- 기방미마을

GOKSEONG

TOUR 019

충절의 시인 김감의 열이 서린 반구정 습지



여행지 노트

- 반구정 습지 주차장 : 경리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곡리 34-1

- 죽간강에서 반구정 그리고 제방까지 목재 데크 길로 연결되어 있음.

굽이쳐 흐르던 대항강이 석곡면 봉전리에 이르러 몸을 풀어헤치고 커다란 호수를 방불케 하는 습지를 형성하였다. 사구와 갈대밭과 관목이 우거진 작은 섬들이 뺨뺨하게 들어서 있는 습지를 굽어보는 언덕위에 소담한 정자 반구정이 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반구정습지다.

김감선생은 문무를 두루 겸비한 조선 인조 때의 명신이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자 선생은 두 아들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임금을 구출하고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진격하지만, 인조임금의 항복소식을 접하고 비탄에 젖어 고향 석곡으로 내려와 은거한다.

선생은 강 언덕에 올라, 이곳의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즐겼다.

[하늘과 같이 푸르른 강물 위를 나르는 갈매기는 나처럼 한가롭다. [강변의 모래도 희고, 갈매기도 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머리도 희니, 같은 것 끼리 짝을 이룬다] 고 노래하며 세상에 초연한 삶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작고 소담한 정자 반구정을 앉혔다고 전한다. 애초에 김감선생이 지은 반구정은 주춧만 남아있을 뿐이라서, 지금 정자는 최근에 지어진 것이다.

이곳에 제방이 들어서고, 주암댐으로 물길이 막히면서 반구정 습지의 많은 부분이 농경지로 개간되었고, 김감 선생의 시심을 불러일으키던 아름다운 옛 모습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반구정 습지는 아직도 온갖종류의 조류들이 날아들고 무수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반구정 습지는 산책 데크가 잘 갖추어져 있어, 도보 혹은 자전거를 타고 둘러볼 수 있다.

GOKSEONG

TOUR 020

카누와 카약으로 즐기는 대항강의 절경 수상 레저

여행지 노트

죽간강(죽간캠핑장): 경리남도 곡성군 죽간면 대평리 408

대항강은 흐름이 변화무쌍하며, 급류가 많고, 경관이 아름다워 카누와 카약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죽간에는 카누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카약캠핑장이 개설 되어있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대항강 카약 투어를 즐긴다. 지금 대항강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 수술을 진행하는 중이다. 수변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개설과 함께 무려 180미터에 이르는 출렁다리도 개통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미 진행 중인 카누, 카약체험과 함께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대항강의 어원이 햇볕을 밝혀 고기를 잡는다는 데서 유래 했을 정도로 예전 대항강은 어전, 즉 고기밭이라 불릴

만큼, 물고기가 많았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참붕어, 잉어, 쏘가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들이 대항강을 찾는 강태공들에게 짜릿한 손맛을 안겨준다. 이렇듯 대항강은 수상레포츠, 캠핑, 낚시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작고 소담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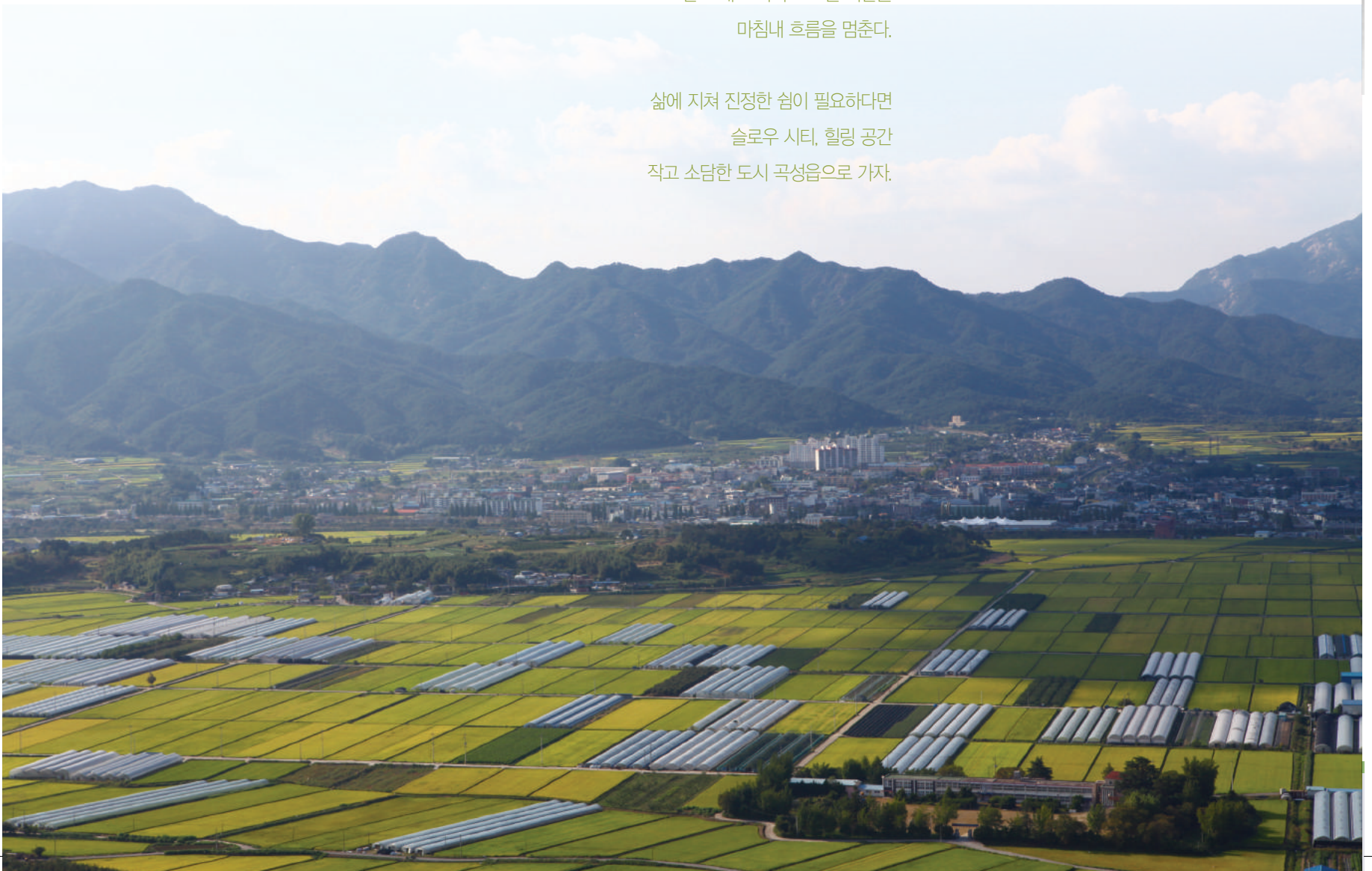
사람 사는 세상이 그림다면
번잡 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작고 소담한 도시 곡성읍으로 가자.

너른 평야를 품에 안고
동약산에 기대어 앉아
섬진강을 바라보는
작고 소담한 도시 곡성읍으로 가자.

오랜 세월이 흐른 흔적을 간직한
중앙로 거리 키 작은 건물들 사이를 건다가
읍내 긴 돌담길에 들어서면
안 그래도 더디 흐르던 시간은
마침내 흐름을 멈춘다.

삶에 지쳐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면
슬로우 시티, 힐링 공간
작고 소담한 도시 곡성읍으로 가자.

곡성읍





GOKSEONG
**TOUR
021**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곡성 시티투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 패턴이 보고 즐기는 위주에서 질량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는 것 같다.

물론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답고, 신기하고, 재미있고, 인기가 좋은 유명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것을 여행으로 여기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작은 도시의 거리, 긴 돌담길이 있는 외갓집 같은 느낌을 주는 시골마을,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작은 섬, 이런 아련한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혼자 사색을 즐기거나, 한두사람의 동행과 함께 추억 만들기에 나서는 여행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런 여행은 얼마간의 용기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입문을 위해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교통이 편리하고, 숙소를 비롯한 편의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방 소도시가 가장 적당하다.

곡성읍이 그런 곳이다. 서울에서 KTX에 몸을 실으면 불과 두 시간이면 곡성역에 도착한다. 곡성역을 빠져나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공기의 질감은 두 시간 거리에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게 와 닿는다. 곡성읍은 굳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토닥토닥 걸어서 2시간이면 어지간한 곳은 다 둘러 볼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작은 도시다. 깔끔하게 정비된 거리, 잘 단장된 주택과 건물들,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점은 어느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성읍이 주는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 우선 건물들의 키부터 작다. 3층 이상 건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거리를 지나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량도 많지 않아 여유자적하여 여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런 지방 소도시 특유의 더디게 흘러가는 세월의 흔적은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다. 곡성읍 변화기인 중앙로를 벗어나 골목 안으로 한 발짝만 들어가면 70년대 제과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간판을 달고 있는 구멍가게도 만날 수 있고, 길모퉁이를 지키고 서 있는 옛날 우체통도 눈에 뜨인다. 오래된 창고건물의 시멘트벽엔 새마을 운동 시절의 "자조 자립, 협동"이나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같은 옛 구호들의 바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옛 추억을 떠올릴 것이고,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살아있는 박물관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곡성읍을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만드는 것에는 먹 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곡성의 맛에는 지금보다 순수하게 살았던 시절의 오묘한 맛이 전라도 사투리처럼 배어있다. 눈에 보이는 식당 어디라도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곡성만의 맛이 넘쳐난다. 밥상위에선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출렁이고, 그리고 지리산이 버티고 앉아있으며 곡성의 포실한 들녘이 펼쳐져 어디부터 젓가락을 대어야 할지 망설이게 만든다.

그러니 곡성읍에 오려거든 굳이 세세한 여행계획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냥 곡성읍을 목적으로 하고 와서 돌아





다니다 보면 어지간한 곳은 저절로 만나게 된다. 만약 영화 곡성을 보고 왔다면 곡성경찰서, 읍내 파출소 곡성성당, 골목길과 중앙로 상점가 같은 영화에 등장하는 장소들과 우연히 조우하는 재미도 무척 쏠쏠하다. 그래도 먼저 다녀간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 할 곳을 몇 군데 소개한다.

시골 소읍 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장구경이다. 곡성읍엔 아직도 각 3일과 8일에 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5일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곡성역과 곡성읍을 연결하는 곡성천 뚝방길에서는 매 월말 주말에 뚝방마켓이 열린다. 일종의 베품시장이다. 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서 가면 볼거리도 많고, 장터에서 파는 순대국과 팔죽을 비롯한 입맛을 땡기는 먹거리도 지천이고, 토란이나 멜론등의 곡성 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상세한 곡성여행정보를 입수하고 싶다면 작은 책방 '1933 오후'를 꼭 들러보기 바란다. 이곳은 작은 책방이면서, 카페를 겸하는 쉼터이며, 곡성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상세한 여행정보도 제공한다. (전화번호 061-363-5650)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성지로 유명한 군청옆 곡성성당도 꼭 들어봐야 할 필수 코스이다.

좀 더 발품을 팔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곡성 현지분들이 애용하는 공원인 충의공원과 죽동 방죽도 가볼만 한 곳이다.

만약 곡성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면 곡성역앞 있는 멋진 야경을 선사하는 기차조형물인 러브트레인은 꼭 만나 봐야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여행지 노트

- 곡성읍 시키 투어 포인트

여행지캐빙 1933오후, 영화 곡성 촬영 거터(1) 낙동원로, 영화곡성촬영거터(2) 중앙로, 영화 곡성촬영지 곡성 읍내 파출소, 곡성성당, 죽동방죽,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뚝방마켓, 러브트레인

- 숙소

기차마을 펜션, 게스트하우스 거미, 기차마을 유스호스텔



GOKSEONG

TOUR 022

곡성의 가을 비경, 구절초 향기가 가득한 충의공원

음식이 비싸다고 무조건 맛있는 것이 아니듯,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곳이라 하여 무조건 아름다운 곳은 아니다. 거꾸로싼 값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득템이다. 전혀 알려진 곳이 아닌데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난다면 그것은 득템 중 득템이다.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카톡을 날리면 '와 거기 어디야?' 할 때 약간 으스스할 수 있으니깐.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에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다보니 어지간한 곳이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서, 그런 비경을 만나기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다.

"곡성에 가면 기차마을, 도림사, 동약산, 섬진강, 대황강 말고 또 볼꺼 뭐 있어요?" 곡성을 찾아온 지인들이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곤 했는데, 이번엔 눈을 깔고, 다소 거만하면서도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충의공원에 가보세요." 뜬금없다는 표정이었다. "충의 공원이 어딘데요?" 하고 묻길래 손을 들어 읊내 맞은 편에 우뚝 서 있는 산을 가르켰다. "저그요." 지인들은 눈 위에 손을 얹고 바라보더니 득달같이 그리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녀오고 난 다음 물었다. "어쩡디요?" 그들은 두 말할 필요 없다는 듯 엄지손가락을 척 세웠다. "대박"

충의공원은 곡성읍이나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10분 남짓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충의공원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곡성의 호국영령을 모신 공원으로 아름드리 소나무밭 사이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곡성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한다.

2013년부터 이곳 42,000㎡ 부지에 무려 62만본의 구절초를 심고 정성껏 가꿔왔는데 2015년부터 일제히 개화하여 기막힌 장관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충의공원 전체가 하얀 파도를 일렁이는 듯한 구절초의 군무를 연출하여, 입소문을 듣고, 곡성분들 뿐만 아니라, 인근 광주에서까지 꽤 많은 탐방객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절초 군락지 못지 않은 규모를 자랑하는데다가, 타지역에 비해 도로여건도 좋고, 기차마을과 연계해서 둘러볼 수 있어 곡성의 대표적인 가을 관광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여행지 노트

- 주소 : 경북남도 곡성군 곡성읍 모현리 76-7
- 산책로 총 거리 : 약 2 km
- 구절초 개화시기: 9월말 ~10월 중순



추억의 1번가 - 추억과정을 팝니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고려말 이곳에 곡성읍이 들어설 때부터 곡성장이 열렸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까지 무려 600년을 이어온, 대단한 전통을 가진 장인 셈이다.

애초에는 3일에 끝나는 날짜에 여는 10일 장이었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매3일과 8일에 장이 서는 오일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이후, 조선의 업전은 쓸모가 없어진 쇠붙이에 불과했는데, 이곳 곡성장에서는 1930년대까지 업전이 화폐로 통용되었다. 그만큼 곡성사람들의 민족의식이 뜨겁다는 것을 곡성장의 역사에서도 드러난다.

전라선 개통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거 빠져나가기 이전까지가 곡성장의 전성기였다. 곡성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남원, 구례 그리고 지리산 주변에 살던 사람과 상인들이 곡성장으로 모여들어 장날엔 그야말로 성시를 이루었다. 당시 곡성장의 모습은 장에 들른 모두가 장사꾼이었고 소비자였던 물물교환의

현장이었다. 장으로 올 때 깊은 산중에서 따온 능이버섯이 담겨있던 광주리에는 돌아갈땐 아이들의 고무신과 돼지고기 두어 근이 담겨 있고, 섬진강과 대황강에서 건져 올린 굵직한 잉어며 쓰가리를 들고 온 어부의 손에는 마누라 옷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70년대 이후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로 곡성장도 쇠퇴일로를 걸었다. 2009년 현재의 자리로 옮긴 곡성장은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으로 거듭나면서 곡성사람들은 물론 곡성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들려가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600년 전통으로 이어 내려온 곡성장의 정취와 인심은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지금도 곡성장에 가면 깊은 산중에서 나는 능이버섯, 송이버섯, 귀한 산나물과 약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곡성의 특산물인 멜론, 토란같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말만 잘하면 우수리도 듬뿍 올려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곡성장의 가장 큰 매력은 장음식이다. 곡성장의 음식 역시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그중 '피창'이라 불리는 곡성 특유의 순대국이 가장 유명하다. '피창' 대신 '똥국'이라는 다소 지저분한(?) 이름도 갖고 있는 이 국밥은 젊은 사람들도 한 그릇 훌쩍 비우고 '엄지척'을 할 정도로 맛있다. 그래서 기차마을전통시장안에 있는 한일순대국밥집은 원래 곡성장날에 맞추어 문을 열었는데,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자 장이 서지 않는 날도 문을 여는 상설식당으로 바뀌었다. 순대국외에도 전통방식의 팔죽도 곡성장의 명물이고, 옛날 추억의 맛을 간직한 참쌀 파배기, 뽕튀기 같은 주전부리도 여행자의 입맛을 유혹한다.

여행기 노트

- 주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6
- 곡성길날 : 30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GOKSEONG

TOUR 024

빚는 재미, 사는 재미, 파는 재미

곡성기차당뚝방마켓

연간 125만명의 관광객이 곡성섬진강기차마을을 찾아 오지만, 관광객이 곡성읍으로 들어오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가장 큰 이유는 차들이 뽕뽕 다니는 도로변을 따라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점이 관광객들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도로변 인도 말고도 곡성읍과 연결된 운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곡성역 그리고 러브트레인이 설치된 곡성 기차마을 후문과 곡성읍 사이에는 곡성천으로 연결되어 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곡성천 제방위로 예쁜 길이 나있다. 이길은 뚝방길이라 불리며 곡성사람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길을 알려 곡성섬진강기차마을과 곡성읍을 연결하자는 의미로 이곳에 플라마켓 즉 누구나 판매자가 되고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벼룩시장을 연 것이다. 2016년 5월에 곡성에서 열리는 세계 장미축제의 개최와 함께 최초로 문을 연 뚝방마켓! 반응이 별로일꺼라는 우려와 달리 호응이 대단했다. 덕분에 다음달도 또 그 다음

달도 뚝방마켓이 열릴 수 있었고 회를 거듭할수록 곡성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일부러 뚝방마켓을 구경하러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뚝방길을 알리는 효과를 넘어서 이제는 곡성을 대표하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애초 곡성군청의 주도로 진행된 뚝방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발전해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마켓이 열리는 동안 인디 밴드들의 버스킹과 함께 젊은 층들이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기발한 수공예품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팔 물건이 없어 일찌감치 완판하는 경우도 많다.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은 곡성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정과 즐거움을 파는 참여형 문화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행가 노트

3월~10월 :매일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개장
11월~2월 : 동결기 휴무
주소: 전남 곡성길 곡성읍 곡성로 856

여행가 노트

주소: 전남 곡성길 곡성읍 교촌리 34

GOKSEONG

TOUR 025

일상같은 여행지

죽동방죽

곡성읍처럼 유서 깊은 군청소재지 단위의 작은 도시들은 대부분 중심부에 공원이 있다. 그런 공원들은 고풍스런 군이나 현의 동헌건물이나, 향교나 활터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쉽게도 곡성읍에는 그런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공원은 없고, 대신 군청에서 바라보이는 동산에는 곡성의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충의공원이 있고, 곡성읍 서쪽 죽동마을 아래 있는 죽동제를 정비하여, 곡성군민들의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죽동마을의 저수지라는 의미의 죽동제는 공식명칭이고, 곡성사람들은 이곳을 죽동방죽이라 부른다.

곡성 주민들조차도 이곳을 단순한 산책로나 운동장소로 여기고 있어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거의 알려

져 있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등산 밑이 어렵다고, 여행자 입장에서 보는 죽동방죽은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곡성의 진산인 동악산이 수면위에 반영을 드리운 가운데, 봄엔 저수지 주변에 심겨진 벚꽃과 복숭아꽃, 이팝나무꽃이 다투어 피어나고, 5월 이후부터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연꽃들이 저수지 동쪽에 조성된 섬 그리고 정자와 함께 환상적인 경관을 자아낸다. 겨울에는 수면이 말끔하게 치워진 상태에서 설산으로 바뀐 동악산이 잔잔한 수면위에 반영을 드리운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다. 저수지 둘레는 약 1.2km 로서 사진을 찍으면서 천천히 돌아도 30분이면 충분하다. 주차장이 잘 갖추어져 있다.



GOKSEONG

TOUR
026

곡성의 진한 민족혼을 상징하는 곡성 단군전

전라도 지역에는 '삼성삼평'이라는 말이 있다. 곡성,장성, 보성 함평,남평,창평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드세고 거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중 곡성을 으뜸으로 쳤는데, 사실 이 말은 일본인들에게 쉽게 길들여지거나 복종하지 않는 곡성사람들의 근성을 폄하 하는 뜻으로 일제가 지어낸 말이다.

곡성 각지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선비문화 유적과 함께 곡성읍의 단군전도 드높은 곡성의 민족혼을 상징한다. 담양출신으로 곡성보통학교 교사였던 백당 신채운 선생은 1916년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애국동지를 규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리에 학정리 삼인동에 단군왕검의 영정을 모신 사당을 세운다. 곡성읍의 서쪽편 죽동에 일본의 신사를 세운 것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이었던 셈이다. 당시 초가집이었던 단군전이 기미 31만세 운동당시 거점 역할을 하면서, 곡성에서도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이에 일본 경찰은 주동자였던 백당 신채운 선생을 체포하여 대구 교도소에 수감하였다. 선생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1931년 단군전을 현 위치로 옮겨서, 곡

성 사람들에게 꾸준히 민족의식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실시한다. 신채운 선생은 해방이후 조선대학교에서 국사교수를 역임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해박했으며 불굴의 민족정신을 갖고 있었다. 현재 곡성을 단군사당에는 3.1·운동 기념비와 더불어 백당기념관이 있으며 매년 10월 3일 개천절과 3월 15일 어천절에 단군왕검의 제사를 모시면서 선생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곡성단군전은 등록문화재 228호다.



여행기 노트

주소: 경리남도 곡성군 곡성읍 영암1길 33



GOKSEONG

TOUR
027

곡성 인재의 산실이었던, 곡성 향교

조선시대 서당과 서원이 사립학교라면 향교는 국립고등 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향교는 군수나 현감 같은 지방관이 직접 관리하였고, 충분한 실력을 검증받은 정6품 벼슬에 해당하는 교수와 정9품 훈도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향교의 재원은 나라에서 마련해준 별도의 전답에서 나오는 소출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요즘 같으면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대호부나 목에 해당하는 소재지에서는 90명, 군은 60명, 현은 30명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향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과거를 치루고 관직으로 나아

갔기 때문에, 향교는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적 가치관을 유지해나가는 근간으로서의 역할과 관리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곡성향교는 1570년(선조 3년)에 세워졌다. 정유재란때 왜적의 침입으로 곡성일대가 초토화 된 이후, 상당기간 동안 곡성현이 기능을 상실하여 향교도 폐쇄되었다가, 인조때 곡성현의 복원과 함께 곡성향교도 다시 문을 열었다. 현에 해당하는 곡성향교에서는 3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이렇게 곡성향교가 약 300년동안 유지해 오면서 기라성 같은 곡성의 인물을 배출하는 산실역할을 해

여행기 노트

주소: 경리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0

왔다. 조선시대 이름난 곡성출신 관료나 선비들은 모두 이곳을 거쳐 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조선후기에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교육기관으로서 향교의 기능은 끝났지만, 이후 성현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평생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면서 곡성향교 역시 곡성의 지성과 정신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오늘날에도 그 도도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군단위에 향교가 두 개인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인데 곡성에는 곡성향교 말고도 옥과 향교가 있다. 그것은 조선시대까지 옥과가 별도의 독립된 현이었기 때문이다.





GOKSEONG

TOUR
028

저 높은 곳을 향한 거룩함이 서려 있는 옥터성지 곡성성당

여행기 노트

주소: 주소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11길 20

정조가 죽고 11살의 어린 순조가 조선의 제 23대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개혁군주 정조와 대척점에 서 있던, 정순대비의 수렴절정이 시작된다.

1794년 청국인 신부 주진모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유입된 천주교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을 비롯하여, 다산 정약용이나 이승훈 같은 개혁성향의 학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된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천주교 탄압을 주장하던, 노론 벽파에게는 반대진영인 남인세력과 천주교 세력을 일거에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정조의 죽음인 것이다. 1801년 천주교 탄압과 살육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약용, 정약전 형제를 비롯한 많은 개혁성향의 학자들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에 천주교 신자들은 탄압을 피해 자신이 살던 고장을 버리고 관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산속이나, 백정이나 옹기장이등 하층민들이 사는 마을로 숨어들어갔다. 그곳에 또 다시 탄압의 손길이 뻗어오면 도망가기를 거듭했다. 곡성 당고개에도 그렇게 도망 다니던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들어 상당한 규모의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옹기를 구어 내다 팔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최 하층민인 옹기장이로 속이고 곡성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런데로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새로운 가마를 만든 것을 기념하는 잔치마당에서 비롯되었다. 평소에 주사가 있던 사람이 이날도 술이 거나하게 들어가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주막집 아낙에게 손찌검을 하고, 주막집 주인과 주먹다짐이 벌어졌다.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가까스로 사태는 진정이 되었는데, 분을 참지 못한 주막집 주인이, 묵주와 성경책. 십자가 같은 천주교도임을 증명하는 증거물들을 싸들고 곡성현으로 달려가 곡성현감에게 당고개에 모여 사는 옹기쟁이들은 죄다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한다. 이에 놀란 곡성현감은 관군을 보내어 무려 240명의 천주교인들을 오랏줄로 묶어서 동헌으로 데려와 문초를 시작했다.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

고 풀어주는 것이 당시 제도라서 이때 잡혀온 많은 교인들 대부분도 혹독한 문초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를 선언하고 풀려난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이들은 전주 감영으로 압송했다. 이를 빌미로 전국적인 천주교도 색출과 검거 선봉이 일어나니, 바로 정해박해다. 이 과정에서 16명의 천주교인이 옥사하거나 사형을 당했는데, 애초 당고개에서 잡혀온 신도중 두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가톨릭 측에서는 정해박해의 시발점이면서 순교의 역사가 서려있는 이곳 곡성동헌 부지에 성당을 세우는 것을 추진하여, 1958년 곡성성당이 완공되었다. 당고개에서 잡아온 240명이나 되는 천주교도들을 가두기 위해 객사를 개조해 옥사로 바꾸었는데, 곡성현 객사터였던 이곳을 옥터 성지라 부르는 이유다. 그래서 이곳에는 성당 건물과 옥터성지 기념관과 객사자리에 옛 곡성현의 감옥이 복원되어 있다. 천주교 순례객들만 간간히 찾아오던 이곳이 영화 곡성에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의 발걸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목과

아름다운 설산에 둘러싸인 충절의 고장 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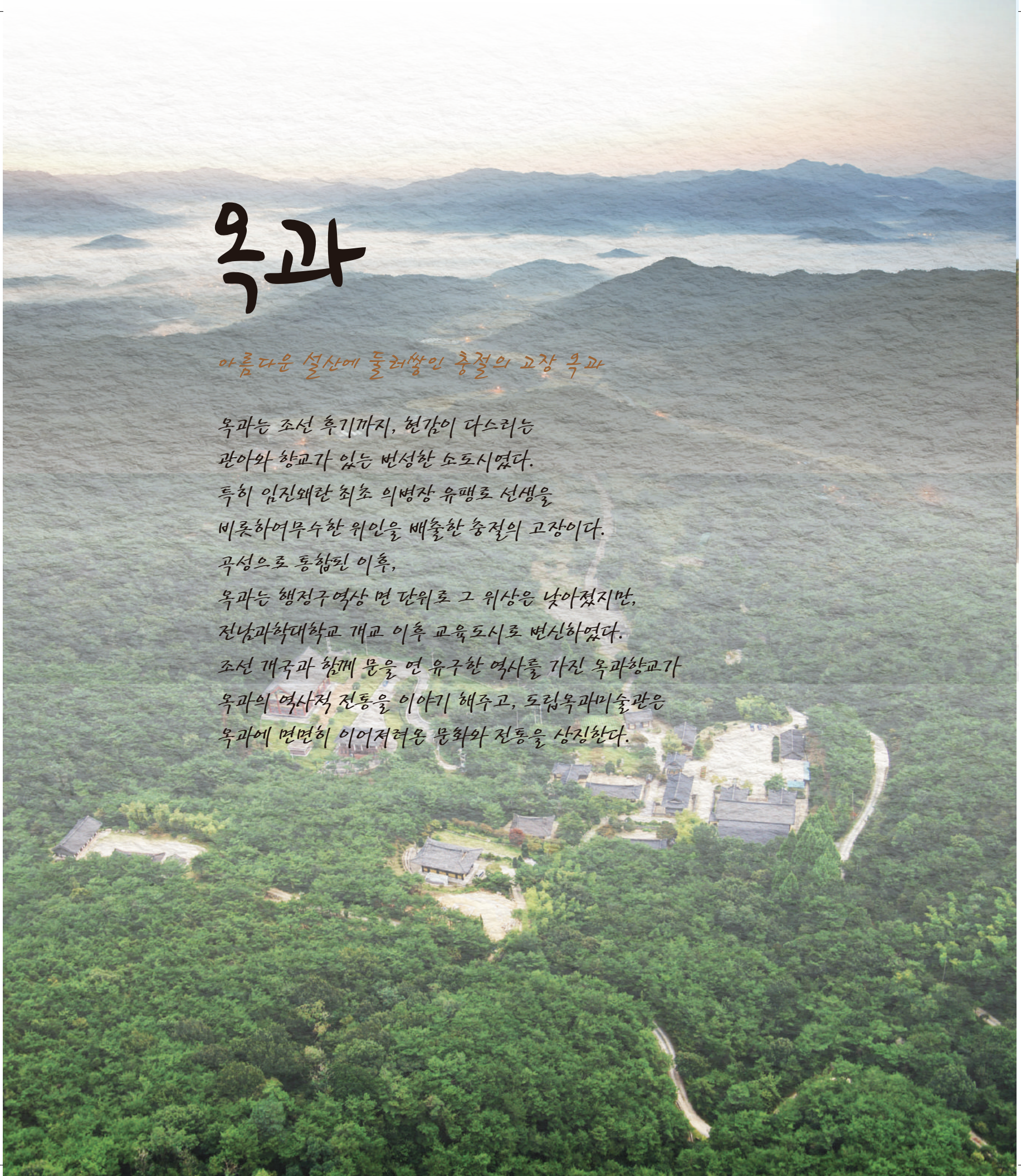
목과는 조선 후기까지, 현감이 다스리는
관아와 향교가 있는 번성한 소도시였다.

특히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 유평로 선생을
비롯하여 무수한 위인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다.

곡성으로 통합된 이후,

목과는 행정구역상 면 단위로 그 위상은 낮아졌지만,
전남과학대학교 개교 이후 교육도시로 변신하였다.

조선 개국과 함께 문물 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목과향교가
목과의 역사적 전통을 이야기 해주고, 도립목과미술관은
목과에 면면히 이어져려온 문화와 전통을 상징한다.



GOKSEONG
TOUR
029

실천적 예술가
아산 조방원의 예술혼이 서린

옥과 도립미술관

비교적 한적하던 곡성읍과 달리 옥과는 거리에 걸음은이
들 많고, 활기가 넘쳤다. 아무래도 이곳에 위치한 전남
과학대학교 영향이 큰 것 같다. 옥과미술관을 찍고 네
베게이션을 따라가니 옥과를 벗어나면서 부러는 인적
없는 산길로 들어선다.

있따라 나타나는 옥과미술관과 성률타를 가리키는 이정
표가 없었다면 길을 잘못 든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도
립미술관이 목포나 순천이 아닌 이런 외진 산골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그래도 미술관 가는 길의
분위기로는 우리나라 최고가 아닐까 싶다. 드디어 도착
했다. 옥과 미술관과 남도의 고승 청하스님이 머물렀다
가 입적하신 성률타와는 불과 담 하나 사이라서 일부러
거기에서 내려 미술관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미술관으로
가는 길은 다소 가파랐지만, 길 양옆으로 예향다운 품격
을 물씬 풍기는 조형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한 점
씩 감상하다보니 힘에 부치는 줄도 모르고 마당에 들어
섰다. 드디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미술관 건물은 단아
한 규모에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 형태를 하고 있어 얼핏
사찰로 오인할 수도 있겠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대표소가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무료입장이었다. 반가워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

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몇 천원이라도 입장료를 지불
해야 보는 이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미술관 1층에서는 젊은 동양화가 김현경의 대나무 작품
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곳에서는 약 4~5개월 간격
으로, 회화 또는 조형 미술가들의 작품이 순회 전시된다
고 한다. 평일이라 관람객이 나 혼자뿐이라서, 큐레이터
의 안내를 독차지하는 호사를 만끽하면서 2층으로 향했
다.

아산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박물관의 주인공인 아산
조방원 선생의 작품들이 내 뿜는 예술의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이 방에 들어와서야 왜 이 외진 산골에 도립미술관이 들어
섰는지에 대한 의문이 비로소 풀렸다. 소치, 의제, 남농 이
렇게 3 대에 걸친 우리나라 남종화의 독특한 화맥은 누구
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일찌감치 조방원 선생의 재주를
알아 본 남농으로부터 그 화맥을 이어 자기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국전 특선 4회 입상을 비
롯한 각종 전시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남농 이후의 최
고의 남종화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된다.

전통을 계승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혼신을 다해 대
중과 교감하기 위한 그의 예술혼이 붓끝에 고스란히 담

겨 있었다. 대단한 독서광이었던 그는 남도의 소리와 그
림이 서로 나뉘어 존재할 수 없다면서 남도의 국악을 지
원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풍수와 선불교의 세계에도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던
그를 사람들은 남도의 마지막 선비라 칭송했다. 그리고
선생은 돌연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가치의 자신의
역작과 소장품은 물론, 이곳 미술관 부지를 기꺼히 전라
남도에 기부하였다. 그것이 옥과에 도립미술관이 탄생하
게 된 배경이다.

선생의 작품에 취하고, 그의 정신에 감동하여 미술관 바
깁에 나와서도 한동안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풍수에 대해 아는 바는 없지만 어머니 품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지는 명당이었다. 그
명당을 청하스님의 법력이 서려 있는 성률타와 옥과미
술관이 사이좋게 나눠 갖고 있었는데, 성률타 10만여평
의 드넓은 부지 또한, 아산선생이 청하스님께 시주한 것
이라 한다. 이 각박한 시대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예술가
의 실천적 정신세계가 옥과의 깊은 골짜기에 고스란히
구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몇번이고 다시 와보고 싶은 옥
과 도립미술관이었다.



여행기 노트

- 주소 : 전남 곡성군 옥과면 미술길로
288(옥과리 411-3)
- 연락처 : 061-363-7278



GOKSEONG
TOUR
030

남도의 고승 청화 큰스님이 머문 절은 도량

성륜사

청화스님은 성철스님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시대의 고승이자, 20세기 한국 불교계에서 손 꼽히는 어른으로 칭송받는 분이다.

일본 메이지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 무안에서 교육 사업에 헌신하던 중, 삶의 근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출가하여 무려 40년간 장좌불와를 즉 눕지 않고 용맹정진 수행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대단한 선승이다. 알쏭달쏭한 화두에 집착하는 선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오늘날 미국에 선불교의 씨앗을 뿌린 근간에도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이 배어 있다.

그런 스님에게 감복한 조방원 선생이 10만평에 이르는 땅을 내놓고, 대상그룹이 거액을 시주하여 1990년 성륜사가 창건된다. 스님은 주석하시던 구산선문중 하나인

곡성 태안사에서 성륜사로 옮겨와, 선불교의 대중화에 원력을 기울이다가 2004년 입적하게 된다. 조용히 보내달라는 스님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2004년 열반에 드실 당시, 성륜사가 있는 이 골짜기는 물론이고, 옥과 시내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룬 광경에 대해 곡성 사람들은 지금도 어제일처럼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라성 같은 절집들은 수 없이 많지만 청화스님의 가르침과 존경심 덕분에 성륜사는 남도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선불교의 법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도량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찍이 보기 드문 명당임을 알고 이 토지를 마련하여 청화스님에게 시주한, 남도의 마지막 선비로 칭송받는 아산 조방원 선생과 청화스님과의 아름다운 인연 또한 이곳을 찾게 되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여행하기 노트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옥곡면 옥곡리 신1 (옥곡면)



GOKSEONG
TOUR
031

설산이 숨겨놓은 보석 같은 암자

수도암

규암으로 이루어진 바위가 멀리서 볼 때 마치 흰 눈이 내린 것처럼 보여서 설산이라 부른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한 여덟 개의 설산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상서롭지 않은 이 산이, 대단한 절집들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설산 바로 아래에 작고 아담한 암자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바로 수도암이다. 대단한 유서를 간직한 오래된 절집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수도암은 1920년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절이다. 물론 그곳에서 신라의 유명한 고승인 설두화상이 수도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근거는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자 순례를 즐기는 여행자라면, 절의 위치나, 이 절에서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 때문이라도 답사 목록에 올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수도암의 규모는 적지만 비구니가 수행하는 절답게 무척 청결한 것이 특징, 옥과미술관과 성륜사 탐방 그리고 설산산행과 수도암 순례를 하루코스로 묶으면 더할나위 없는 답사 코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도암을 수호신

처럼 지키고 있는 오래된 잣나무는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147호로 지정되었다.

여행하기 노트

전라남도 곡성군 옥곡면 옥곡리 신1 (옥곡면)





GOKSEONG
TOUR
032

총과 효의 흰거지
옥과향교



조선시대 행정구역은 부·목·군·현으로 구분되었다. 이중 가장 발달한 현에는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 토지와 인구 규모에 따라 종5품 현령이나 종6품 현감이 지방수령으로 파견되었다.

현의 소재지에는 관아가 있었고, 관아에는 지방관의 숙소인, 내아와, 집무실인 동헌이 있었다. 각 현에는 대부분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향교를 두고 있었는데, 지방관이 감독하고 종6품 교수와 정9품의 훈도가 파견되어 학생을 선발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현이 전국에 170개 정도가 있었는데, 곡성군에는 곡성현과 별도로 옥과현이 있었다. 당연히 옥과에도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옥과 향교는 조선이 개국한 1392년에 세워졌으니 선조때 세워진 곡성향교에 비해 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시대 향교는 백성들에게 국가 통치 이념의 근간인 성리학적 가치를 배우고 익히게 하는 동시에, 인재양성과 관리양성이라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갑오경장이후 부터는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사라지고, 현재는 유가의 성현들을 숭상하는 제례적 기능과 더불어 각 지역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옥과향교 건물은 정유재란당시 침입한 왜적에 의해 소실된 것을 영조때 중건한 것으로 대성전과 명륜당 그리고 동재와 서재 옥영재와 전사실 장판고 내삼문 외삼문등 전형적인 향교 양식이 잘 보존 유지되고 있다. 한때 관아와 더불어, 번성했던 옥과현의 유적으로는 현재는 옥과향교가 유일하다. 옥과향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09호로 지정되어 있다.

GOKSEONG
TOUR
033

애달픈 사랑의 상징, 옥과성황당
목조신상



우리나라 전통 민간신앙의 중심에 성황당이 있다. 근대 이후 미신으로 치부되어 대부분의 성황당이 철거되었고, 마을 단위의 당제도 거의 사라지고 말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당제에 지방관이 참여하기도 했다.

지역을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각 성황당은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신을 섬기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어 민속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곡성옥과성황당의 남녀 목조신상은 고려 신종당시 옥과현 출신으로 고려 7현으로 추앙받을 만큼 뛰어난 학식을 자랑하던 실존인물인 조통선생과 그를 연모했다고 알려진 고려의 공주를 상징한다. 전설에 의하면 유부님이었던 조통선생과 공주가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조통선생은 공주로부터 떨어져 있기 위해 일부러 전쟁에 참

전했다가 팔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가 숨을 거둔다. 그 사실을 모르는 공주는 조통선생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찾아나서게 되는데 결국 그의 고향이 있는 옥과현에 이르렀으나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픔에 빠져 그곳에 남아 무녀의 길을 걷는다. 두사람의 애달픈 사랑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성황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목조신상은 남신상이 84cm 입상이고, 여신상은 68cm 좌상인데 남신상은 장승형태이고 여신상은 뭔가 기도를 올리는 형태이다. 제작년대는 조선 초기부터 조선중기까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옥과면 옥과읍 전남과학대학 뒤편에 있는 만취정이라는 노인정 안에 자리잡은 성황당에 있는 목조신상은 전라남도 민속문화재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

곡성체험관광

기차마을과 증기기관차!

보고 즐기는 관광지로 떠오르는 곡성을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농촌체험마을을 찾아 1일 농부가 되거나
치즈학교에 입학하여 치즈를 직접 만들어보거나
유기농 쌀이 생산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골프와 승마 같은
고급 레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곡성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GOKSEONG

TOUR
034

개비야 놀자

섬진강 도깨비마을

1960~70년대 이전까지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실제로 도깨비가 있다고 믿었다. 장에서 술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새롭을 걸어오는 도깨비를 만났다는 얘기는 어느 마을에나 한두 개는 전해 내려 오고, 당시만 해도 들녁을 가로지르는 푸른빛의 도깨비 불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어서다.

새마을 운동과 함께 시작된 개발의 열풍이 휘몰아치면서 시골풍경과 인심이 바뀌기 이전까지 도깨비는 아이들한테 산타클로스보다 훨씬 더 친숙한 존재였다. 그래서 곡성에도 여느 고장처럼 무수한 도깨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그중 태종임금, 이방원의 심복이었던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살 전설이 가장 유명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기차마을 오솔랜드에서도 상영하고 있다. 돌로 바다나 강물을 막고 그곳에 나뭇가지를 촘촘히 박아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방식을 어살이라고 한다. 그런데 물살이 드센 강을 커다란 돌로 막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다. [효성이 지극한 마천목 장군이 어머니에게 고기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가, 푸른빛이 도는 돌을 주워온다. 그 돌이 도깨비 두목이었던 것이다. 도깨비들이 집으로 찾아와 두목을 돌려주면 무슨 소원이

든 들어주겠다고 하자, 마천목장군은 어살을 막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도깨비들이 하룻밤사이에 어살을 막아주었는데, 섬진강에는 아직도 그 자취가 남아있다.] 곡성에 도깨비 마을이 있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지레 마천목 장군의 이야기를 어설피게 복원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편견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도깨비 마을이 세무사이면서 동요작곡가이고, 동화작가이면서 도예가이고, 심지어 요들송 가수인 기인이면서 천재인 김성범 촌장이 일궈놓은 걸작이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호기심이 동했다. 마침 아내와 함께 여행할 기회가 있어, 우선 도깨비마을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다. 네비게이션은 우리를 커다란 도깨비석상이 서 있는 도깨비마을 입구로 데려다 주었다. 자동차를 타고 도깨비마을까지 들어갈 수도 있으나, 도깨비 마을을 제대로 체험하려면 마을 입구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안내 팸플릿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이정표를 따라 도로가 아닌 숲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부터는 무수한 도깨비들이 우리를 마중했다. 얼마나 익살스럽게 생겼는지 볼 때마다 웃음을 자아냈다. 도깨비들은 매 고비마다 수수께끼를 냈다. 그리고 그걸 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도깨비들의 장난과 소나무 길이

주는 상쾌함이 더해져 더할 나위없이 유쾌한 산책길이었다. 가끔 숲속에서 공처럼 오른 나뭇가지를 본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엉이 방귀라 부른다고 한다. 그거야 신통력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 길에서 만난 도깨비들이 알려주었다. 약 1km 남짓의 숲길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다 보니 어느덧 도깨비마을이다.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현대식 건물의 체험 센터는 도깨비마을 분위기와 다소 안 어울렸지만, 테라스에서 올라와 보니 골짜기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진짜 도깨비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다.

댕냥을 주면 반드시 열 냇을 돌려준다는 체험센터 문지기 도깨비 댕냥이와 얘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넨다. 처음 만났지만 그가 김성범 촌장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반백의 장발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해맑은 김성범 촌장으로부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풍겼다. 다짜고짜 물었다. "왜 하필이면 도깨비와 사시나요?" 그는 별거 다 묻는다는 표정을 하더니 활짝 웃었다. "재밌잖아요? 도깨비~." 기다렸다가 어린이 단체 손님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가 내어준 차를 한 잔 마시고 도깨비 마을을 둘러

봤다. 김성범 총장이 직접 빛고 가마에서 구웠다는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수백, 아니 수천의 도깨비 도예작품을 보면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익살스런 표정을 하고 있는 각각의 도깨비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서, 일일이 참견하느라 허투루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는데, 30~40명쯤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한 무리가 몰려오고 있어서 구경을 중단하고 우리도 체험센터로 내려갔다.

귀가 아플 정도로 약자지컬하던 아이들의 소음은 인형극 시작과 함께 바로 잦아들었다.

함께 관람하는 딱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인형극을 보면서 우리도 이내 동심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손자 뿔이나 다름없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웃거나 마구 환호성을 질러댔다. 인형극을 연출하는 배우들의 복화술은 정말 압권이었다. 인형극이 끝나고 이어지는 공연! 김성범 총장이 기타와 만도린을 직접 연주하며 요들송을 불러주는데, 그의 실력은 프로페셔널한 요들송가수 그 이상이었다. 우리도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처음에는 우리를 어색해 하던 꼬마 친구들과도 어느

새 친해져서 격의 없이 어울렸다. 아이들이 다음순서인 종이 접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김성범 총장은 우리를 2층으로 안내하였다. 그가 물었다. "좋았습니까?" 아내가 대답했다. "이렇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낸 것이 언제였는가 싶네요." 2층 전시장 분위기는 1층 공연장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곳에는 도깨비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전시품들이 어지간한 박물관 수준 이상으로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김성범 총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품들을 둘러보는 동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도깨비에 대한 상식과 전혀 다른 사실을 접하고 충격에 사로잡혔다. 우리나라 도깨비의 정체는 요괴나 귀신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도깨비의 역사는 고조선의 왕으로 알려진 치우천황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붉은 악마 캐릭터의 주인공 바로 그 치우천황이다. 그의 머리에는 두 개의 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를 상징한다. 고구려 장수의 투구에 나 있는 뿔도 마찬가지다. 역시 우리나라 도깨비들도 두 개의 뿔이 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우리민족의 상징이 도깨비로 형상화 된 것이라는 김성범 총장의 설명이었다. 우리의 도깨비는 짓궂고 어리석으면서도 해를 입히는 경우는 없고, 결국 누군가를 돕는 순수한 모습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민초를 상징하는 캐릭터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깨비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뿌리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도깨비 마을을 일구고 지키고 널리 알려가겠다는 것이 김성범 총장의 설명이었다.

도깨비 마을에서 두 시간 남짓 머무는 동안 최고조까지 올라가는 유쾌함을 맛보았고 도깨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웠으니, 더 이상 바랄나위 없을 만큼 귀중한 체험을 했다. 김성범 총장과 도깨비들의 배움을 받으며 올라왔던 숲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팬스레 기분이 좋았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아내가 도깨비마을 진입로 언덕에서 마천목장군의 도깨비살 전설을 간직한 섬진강을 바라보며 던진 말이었다.

여행기 노트

홈페이지 : <http://www.dokaebi.co.kr/>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고덕면 호곡도깨비길 119-97

연락처: 061-362-2954



GOKSEONG

TOUR
035

콘서트 관람 같은 농업체험 미실란
낭만부엌 “밥에 반하다.”

미실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둘러다보면 대부분의 형상으로는 농촌이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관광이 산업의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율은 계속 하락한다. 그러나 곡성은 아직 농업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농업기반의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선진농업, 친환경 유기농 농업, 새로운 특용작물 개발에 대한 곡성 농민들의 열의는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결과 토란을 비롯한 뿌리채소와 멜론은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곡성 농업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친환경 유기농 쌀 재배에 있어 단연 독보적이라는 점이다. 그것을 박사 농업인 이동현씨가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 미실란이 함께 한다. 미실란은 지역 농업인들과 뜻을 모아 친환경 유기농 쌀을 재배하고, 그것을 현미, 발아현미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유기농 미실란 쌀 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주요 소비자인 도시민과 활발한 소통을 시도 하는 것도 미실란의 주요 사업이다. 미실란은 곡성 섬진강변 고달 들녘 한 칸에 있는 옛 초등학교 부지에 체험 교실과, 친환경 농업 전시 공간 그리고 유기농 음식을 시음할 수 있는 낭만부엌을 갖추고, 실효성이 높은 소비자 대상 체험 프

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특히 "밥 카페 미실란 낭만 부엌"은 곡성군 농가 맛집 1호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을 유기농 식단을 제공하는 식당쯤으로 생각한다면 오해다. 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미실란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업 현장을 견학하고, 농사체험을 하고, 유기농 음식을 시식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 농업이 친환경 생산 구조로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된다. 따라서 미실란 프로그램을 체험 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차원을 넘어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미실란과 강한 연대감을 갖고 유기농 현미를 구입하고, 미실란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 다른 친환경 농업 공동체에서도 미실란을 성공적인 노동간 협력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들과 미실란이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은, 미실란은 유기농 농산물 공급을 문화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봄과 가을, 일년에 두 번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수준은 도시에서 열리는 어지



간한 콘서트 그 이상이다. 음악회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친환경 농업의 본산인 고달 들녘 산책하는 시간도 갖고, 유명 디자이너와 함께 하는 우리옷 만들기나 유기농 찹쌀떡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더불어서 미실란에서는 미술 전시회와 미실란의 제품 또는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바자회가 열리면서 잔치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른다.

그래서 매년 5월과 10월에 열리는 작은 음악회 일정에 맞추어 미실란을 찾으면 풍성한 문화와 함께 농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을 수 있다. 아울러 미실란에서는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계절 맞춤형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밥 카페에서 유기농 식사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미실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여행하기 노트

주소: 경리남도 곡성군 곡성읍 섬진강로 2584

전화: 061-363-5060

홈페이지: <http://www.imisillan.com/board>

GOKSEONG

TOUR 036

곡성가족 여행 필수 코스 섬진강치즈학교

요즘 여행 트렌드는 주어진 것만 보는 수동형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능동형으로 바뀌는 추세다. 그러한 요구에 따라 각종체험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특히 가족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곡성에서도 다양한 체험 관광을 즐길 수 있다. 그중 섬진강치즈학교의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가장 선호한다. 섬진강치즈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치즈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치즈와 피자를 점심식사 대용으로 시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치즈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더불어서 레일썰매타기, 전통놀이, 송아지 우유주기, 빵 튀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합심하여 치즈도 만들고,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서 재미있게 놀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진 자리를 따뜻한 가족애가 가득 채워준다.

아울러 곡성섬진강치즈체험학교에서는, 럭셔리한 캠핑을 체험 할 수 있는 글램핑 캠프도 함께 운영중이다. 예약은 필수.

여행기 노트

홈페이지: <http://www.cheesehagyo.co.kr/>

예약전화: 061-363-1551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오죽로 132



GOKSEONG

TOUR 037

생태수도 곡성의 생태를 한곳에 집약한 생태체험관

곡성의 한적한 도로를 달려 생태체험관을 찾아가는 길에서부터 대자연의 싱그러움이 물씬 풍긴다. 그리고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곡성 옥과 설산자락, 폐교된 옛 옥수초등학교 부지에 자리 잡은 곡성생태체험관에 들어서면 순간 마음이 느슨해진다. 이곳에 개울과 원두막, 징검다리, 야생화 화단이 갖춰져 있어 청정 그대로의 자연과 접할 수 있어서다. 그리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널찍한 잔디 운동장과 야외무대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옛날 초등학교 교실들은

각각 그릇을 직접 구어서 빚어볼 수 있는 도예체험관, 야생초나 야생화를 이용하여 옷감에 물을 들이는 천연염색체험관, 볏짚으로 각종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짚풀공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타임머신을 타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주는 곳이 곡성생태체험관이다. 가족단위 프로그램 참가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환경캠핑을 운영 하는데, 생태체험관 기본 프로그램외에도 창포머리감기나, 고구마 구워

먹기, 캠프파이어 등을 즐기며 자연과 보다 친한 교감을 맛보고 귀중한 추억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함께 있는 합강투어텔에서는 숙박과 식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여행기 노트

주소: 전남 곡성군 옥곡면 율피로 295

전화: 061-363-2999





여행기 노트
 연락처: 061-363-3941
 심청효문화센터: 경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254-4
 심청공원: 경남남도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425

심청의 자취를 찾아, 심청효문화센터와 심청공원 효체험관

GOKSEONG TOUR 038

곡성이 심청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것은 성덕산 관음사에서 목판본으로 전해져 내려온 관음사연기설화에 근거한다. 맹인 원량의 딸 흥장이 중국 뱃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진나라 해제의 황후가 되고, 고국과 아버지 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불상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내용인데, 스토리의 뼈대와 등장인물 그리고 지명이 심청전과 유사하여, 원량에 대한 이야기가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 고대소설 심청전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견해다.

따라서, 곡성에는 심청이 들어가는 명칭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심청효문화센터다. 심청효문화센터는 곡성스러운 청정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골마을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한꺼번에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세미나실과 잔디 운동장, 야외취사장, 음향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현장학습, 기업연수, 대학생 M/T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심청의 효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시실과 더불어 '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단위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진다.

따라서 곡성에서는 심청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으로 만행의 근본이라 일컬어지는 효(孝) 정신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매년 심청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효'는 이제 곡성을 상징하는 대표 키워드나 다름없다.

또한 인근에 조성된 심청공원도 꼭 들러볼만한 곳이다. 이곳엔 심청전의 배역인물을 묘사하는 장승 23기가 세워져 있다.

GOKSEONG TOUR 039

말 위에서 심진강 푸른 물을 굽어보는 기분은? 심진강승마밸리

'곡성심진강승마밸리'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경치 좋은 언덕 뺨기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가는 것, 여기에 머무는 것 만으로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데, 말까지 탈 수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곡성심진강승마밸리'는 완벽한 승마연습장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승마 강사로부터

승마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승마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 여행객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어, 누구나 찾아가서 심진강을 굽어보며 말을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안전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직접 말에 올라타는 순서로 진행된다. 비용은 초등생 2만원, 중고등학생 이상은 3만원이다.

여행기 노트
 홈페이지: <http://www.sch153.com/>
 주소: 경남 곡성군 고대면 두계길 40-43
 연락처: 061-363-1733



GOKSEONG

TOUR
040

전남 최초의 명문 골프장

광주컨트리클럽

광주컨트리클럽은 곡성군 옥과면 수리와 합강리, 입면 송전리 일원 36만평의 광활한 부지위에 27홀의 정규코스과 첨단 부대시설을 갖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골퍼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컨트리클럽은 1983년 전남에서 최초로 개장한 골프장으로 증설을 거듭하여 현재는 동악코스, 설산코스,

섬진코스, 총 27홀의 정규코스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에서 30분, 순천에서 40분, 남원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하여 남도 여행자와 가족단위 골퍼들이 주로 많이 찾는 곳이며 전국 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를 수차례 치른 명문 골프장으로 정평이 나있다.

여행기 노트

홈페이지: <https://www.kjcc.co.kr>

주소: 전남 곡성군 옥과면 입면로 455

연락처: 061-362-5533~5



GOKSEONG

TOUR
041

곡성여행자를 위한 부담 없는 대중 골프장

기안 컨트리클럽

기안 컨트리클럽은 2010년 8월에 개장한 최신 골프장이다.

곡성군 옥과면 소룡리 일원 24만㎡의 부지위에 9홀의 코스가 개설되어 있는 대중 골프장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곡성 여행 중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다. 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광주와 순천 등의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데 30분 내외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이 골프장의 장점이다.

여행기 노트

주소: 전남 곡성군 옥과면 입면로 197

연락처: 061-363-9700

옥과 C.C 조감도



곡성 산

포근하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곡성의 산

산 좋고 물 맑은 곡성!
설악산처럼 빼어나거나
지리산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세상사 지친 마음 편안히 쉬어갈 만큼 포근하고
고단한 몸 다시 추스를 수 있을 만큼 청정하고
세파에 찌든 얼굴 웃음 짓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곡성의 산!

비옥한 땅에 실한 뿌리를 내린 알토란같은
곡성의 산!



GOKSEONG
TOUR
042

풍악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기원 중은 산행
동악산

산꾼들이 가야내는 분위기는 고독하면서도 신비스럽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날렵하며 눈빛은 순수하다. 산삼이나 귀한 약초를 찾아서 골짜기를 헤매는 실마니나, 온 세상의 산들을 봐다 정복했노라 떠벌리고 다니는 자칭 산악인들하고도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다.

틈만 나면 전국 명산을 휘젓고 다닌지 20년째, 나를 산꾼으로 불러주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왜 그들이 고독한 산행을 즐기는지를 조금 알 것 같다. 그러다보니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보다는, 명산이면서도 인적이 드문 산들이 마음을 붙드는 것이다.

전라도 곡성의 진산 동악산도 그런 산이다. 인근 지리산이나 무등산 같은 명산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풍악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동악(動樂) 그 이름처럼 포근하면서도 청정하고 한편으로는 다이내믹한 명산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예로부터 산천을 주유하는 풍류산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산이다.

동악산(737m)은 곡성읍 시가지를 에워싸고 남북방향으

로 비스듬히 걸쳐있다. 북쪽 남원 고리봉과 마주한 협곡 사이로는 섬진강이 흐른다. 주요 봉우리로 삼인봉, 동악산, 형제봉, 초악산이 있다. 겉으로는 완만해 보이지만, 들어갈수록 산세가 험해지면서 큰 산의 느낌이 든다. 도림사에서 시작하여 신선대-동악산-배넘이재-형제봉-도림사로 원점회귀하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등산로다. 최북단 청계동을 들머리로, 동악산, 형제봉, 초악산을 거쳐 삼기중학교까지가 동악산 중주산행 코스로 알려져 있는데, 나는 이번에 차량 회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동악산 북동쪽, 곡성읍내 학정리를 출발하여, 삼인봉과 상수원봉 그리고 동악산과 형제봉을 거쳐 도림사로 내려가는 코스를 선택했다.

새벽 5시 30분, 곡성읍 학정리 체육공원을 출발했다. 헤드랜턴 불빛을 쫓아서, 예비군 훈련장 소나무숲 사이로 난 등산로를 따라 오르는 길은 비교적 유순했으나 삼인봉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가팔라졌다. 일출시간에 맞추느라 걸음을 재촉하다보니 출발한지 25분만에 삼인봉에 이르렀지만, 차분하게 걸어도 40분이면 충분할 것 같다. 삼인봉(469m) 정상에서는 남쪽 곡성읍방면, 동쪽 지리산 방

면, 북쪽 남원 방면으로 조망이 열려 있었는데, 소나무에 약간 가려지긴 했어도, 운해와 여명이 어우러지는 대자연의 장관을 감상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정상에 도착하니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천마산 넘어 반야봉과 노고단, 그리고 만복대에서 시작하는 지리산 서북능선의 실루엣이 선홍빛 하늘을 등지고 선명하게 서 있었다. 섬진강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곡성읍 시가지로 번지면서 가로등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일부는 뭉게구름을 이루며 산록을 타고 올라왔다. 이윽고 지리산 등성이에서 해가 불끈 솟아오르고, 발아래는 한 순간에 채워진 운해가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어, 남쪽의 곤방산과 통명산 줄기들과 섬진강 건너편 깃대봉과 형제봉이 마치 섬처럼 구름위에 떠 있었다. 기대 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풍경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돌려 동악산으로 향했다.

삼인봉에서 동악산까지 거리가 약 3km 라서 1시간 30분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상수원봉을 지나면서부터 간간히 보이는 산악회 리본이 등산로임을 짐작케 할 뿐, 희미한 산길을 따라 무수

한 봉우리들을 오르내리다 보니 힘에 부쳤다. 마침내 청계동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합류하는 사거리에 도착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코앞으로 다가온 동악산과 인사를 건넨다.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은 가파르게 곧추 세워져 있어, 설악산 금강굴 올라가는 것 마냥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막상 다가가니 싱거웠다. 동악산 정상은 명성에 비해서 정상에서 내려다 본 열은 안개를 휘감은 산록과 곡성의 마을 풍경들은 신비스러우면서도 포근했다. 전망 좋은 바위가 있어 인절미와 커피로 아침식사를 하는데, 7부능선쯤에 편편한 바위가 보였는데 동악산 최고의 명승으로 알려진 신선대일 것으로 짐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계단에서 내려와 형제봉으로 향했다.

동악산 안부에서 배냇이재까지 이어지는 오솔길은 완만하고 평화로웠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마력이 깃든 것 같은 길이었다. 초행길의 긴장감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산책길을 걷는 듯한 기분좋은 산행이었다. 배냇이재 안부에서 이번 산행중 처음으로 등산객들과 조우했다. 이렇게 산에서 만나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도 고독한 산행이 주는 매력이다. 잠시 쉬면서 그 분들과 간식과 음료수를 나누고 동악산 산행정보를 교환했다. 그들은 동악산 방향으로 가는 형제봉으로 향했다. 동악산에서 시작 된 아름다운 오솔길은 형제봉 가는 길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동악산에 여러가지 자랑꺼리가 있겠지만, 베스트오브 베스

트는 동악산과 형제봉을 이어주는 이 평화로운 산길이 아닐까 싶다. 형제봉이 가까워지면서 드디어 동악산이 성깔을 드러낸다. 숨을 헐떡거리고 땀을 한바가지 흘리면서 올라간 곳은 형제봉 두 봉우리 중 동쪽에 위치한 대장봉이었다. 울망졸망한 산군들이 남서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쪽은, 동악산 줄기 또하나의 등산코스인 초악산이다. 헬기장으로 내려와 다시 오른 곳이 오늘의 최종 목적지 형제봉 서봉이다. 산행을 시작한지 5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형제봉 서봉은 해발 755미터로 동악산 최고봉이다. 원효대사가 도를 닦았다는 전설과 관련하여 성출봉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 형제봉 남쪽 사면은 깎아 지른 암릉의 연속이었지만 테크가 설치되어 있어 초보자라도 오르내리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몇 굽이의 바위산을 타고 넘으면서 눈여겨 봐 두었던, 동악산 공룡능선 입구에 이르렀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물러났다. 길상암터를 지나면서부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졸졸거리며 흐르던 계류의 수량은 점점 늘어나고 크고 작은 폭포와 소를 이루면서, 나그네의 발걸음을 붙들었다. 신선계곡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도림사 계곡의 아름다움은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무수한 도인들이 드나들어 도림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담한 산사인 도림사를 구경하고 주차장까지 내려와 택시를 불러 차를 세워둔 학정리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동악산 산행을 마쳤다. 산행 거리 11km에 휴식시간 포함해서 7시간이 소요되었던 기분 좋은 산행이었다.



산행노트

추천코스 1. (초보자 코스)
 도립시에서 동악산까지 약 2.8km, 1시간 20분 소요
 동악산에서 배냇이재까지 약 2km, 1시간 소요
 배냇이재에서 도립시까지 약 2.5km, 1시간 20분 소요

총 7.3km, 5시간 10분 (휴식시간 포함)

추천코스 2. (중급자 코스)
 도립시에서 동악산까지 약 2.8km, 1시간 20분 소요
 동악산에서 배냇이재까지 약 2km, 1시간 소요
 배냇이재에서 형제봉까지 약 1.4km, 40분 소요
 형제봉에서 도립시까지 약 3.0km, 1시간 40분 소요

총 9.2 km, 6시간 30분 (점심 및 휴식시간 포함)

추천코스 3. (전문가 코스)
 동악산 종주코스 (북단 청계동계곡 시작, 삼기중학교 하산)

총 14km, 8시간 (휴식 시간 포함)

GOKSEONG

TOUR
043

조망이 끝내주는 야생화 천국

삼산



장수 백운산에서 출발한 호남정맥이 내장산과 무등산을 거쳐 구절양장처럼 구불거리며 흘러오다가 보성 제암산에서 힘을 모아 광양 백운산을 향해서 다시 북상한다.

송광사를 품은 조계산을 지나면서부터는 그 기세가 살짝 수그러들고 순천과 곡성의 경계를 가르며 동쪽으로 달음질 한다. 바로 그곳 호남정맥에 도열해있는 산군이 형제산, 아미산, 유치산, 희아산이다. 그중 희아산에서 갈라진 등성이가 보성강을 향해 흘러가며 목사동 기맥을 형성한다. 삼산은 이 기맥의 주산이다.

그런데 봉우리가 하나뿐인 산 이름이 삼산(三山)이라니 뭔가 범상치가 않다. 추측컨대 도가의 상징인 삼산산(봉래.양장.영주산)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 이 오지의 산이 왜 도가의 성산인 삼산으로 불리는 것일까. 우선 삼산을 품고 있는 목사동면의 지명을 파자해보자. 목(木), 절 사(寺), 즉 18개(木=十+八)의 절을 품고 있어 예로부터 신령스런 성산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삼산의 정상에 올라보면 그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무등산을 비롯한 무수한 남도의 산들이 현란한 산 너울을 펼치는 광경을 만날 수 있다. 삼산은 이런 대단한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산등성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원시의 기운이 가득한 숲속에서는 계절에 따라 온갖 야생화들이 다투어 피어난다. 가을이면 단풍 또한 장관이다. 그리고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삼산을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 하니, 곡성사람들이 삼산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산행은 정상까지 불과 30~40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최단 코스를 비롯하여, 호남정맥 형제봉이나 희아산에서 시작하여 비래봉까지 15km에 육박하는 종주 코스까지 매우 다양

하다. 수곡리 임도 종착지에서 시작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정상을 거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5km의 환 종주 구간이 가장 쉬운 코스로 쉬엄쉬엄 걷더라도 4시간이면 충분하다. 수곡리 임도가 끝나는 지점의 들머리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거기서부터 정상까지는 약 2.5 km 거리다. 삼산의 해발고도가 772m이며, 들머리가 450미터이니, 등산이라기보다, 트레킹에 가깝다. 경사가 완만한 기분 좋은 숲길과 더불어 약 500미터 가량의 울창한 편백나무숲길도 통과하게 되는데 피톤치드 샤워장이나 다름없다.

정상에서는 동쪽과 서쪽으로 조망이 활짝 열려있다. 그래서 시정이 좋은 날 삼산 정상에 오르면 전남 동부지역의 산하를 모두 조망할 수 있고, 일출과 일몰풍경이 장관이라서 풍경을 담은 사진가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진다. 만약 비박을 하게 된다면 일몰, 별밤, 일출 이 세 가지를 귀한 풍경을 동시에 만날 수 있겠다.

산행노드

삼산 들머리 주소 : 경리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수곡리 584-1





GOKSEONG

TOUR 044

곡성의 히말라야 옥과 설산

설산(1522.6m)은 산경표상으로 볼 때는 호남정맥에 위치해 있어 곡성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족보권을 자랑하며, 곡성 옥과 설옥 마을을 품고 동서방향으로 뻗어 있다.

설산의 북쪽은 전북 순창과 맞닿아 있다. 산등성이는 육산이지만 정상은 암릉으로 바위에 규암이 많아 멀리서 보면 산 정상에 잔설이 쌓여있는 것처럼 희끗희끗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설산이라 부르는 것이다.

정상부의 험악한 모습과 달리 설산과 궤일산은 등산로가 비교적 완만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산행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더욱이 조망이 사통팔달로 열려있어, 동쪽으로는 동악산을 비롯한 곡성의 산들이 부채살 처럼 펼쳐져 보이고, 멀리 지리산도 눈에 들어온다. 서쪽으로는 무등산 순창 강천산 그리고 아스라이 먼 발취에서 마이산도 고개를 내민다. 예부터 설산낙조라 하여, 곡성팔경에 속하며, 설산이나 궤일산 정상에서는 낙조뿐만 아니라 일출풍경도 장관을 이룬다. 산행이 편안하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답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인근 광주나 전주는 물론 경상도와 서울지역의 등산객들도 설산을 찾아오고 있다. 또한 동쪽 고틀머리에 청화스님의 유지가 담긴 성륜사, 옥과도립미술관, 수도암등이 자리 잡고 있어, 산행과 동시에 산사를 탐방하고, 문화 산책까지 즐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설산과 궤일산은 멋진 일출과 일몰 장면을 담을 수 있는 사진명소로도 각광을 받는 곳이다.



산행노드

빈니길 코스

승용차를 타고 있을 경우, 수도암에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하는데 경성까지는 약 900미터에 불과하며, 오르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 보통 설산에서 2.2km 떨어진 궤일산까지 산행을 하는데, 궤일산에서 다시 설산으로 유령을 하거나, 설옥리 미올회관으로 하산하여, 수도암까지 퀘랙스로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히곡코스

설산 동쪽 고틀머리 성륜사 주차장을 들머리로 삼을 경우 설산 경성까지는 거리는 약 3km 남짓이다. 등산로는 무척 일관되고 편하다. 다시 설산에서 궤일산을 거쳐, 설옥리 미올회관까지 내려오는데, 총 산행거리는 8km, 휴식시간 포함하여 약 5시간이 소요된다. 설옥리 미올회관에서 성륜사까지는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대부분 퀘랙스를 이용한다.

성륜사주차장 : 전남 곡성군 옥곡면 미솔길 287

설옥리 미올 회관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곡면 설옥리 688-2

GOKSEONG

TOUR 045

곡성 최고봉 통명산



동악산이 곡성을 대표하는 주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곡성에서 가장 높은 산은 통명산(764m)이다. 따라서 통명산 정상에서는 동악산, 봉두산, 천마산을 굽어 볼 수 있고 곡성평의 지세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

곡성이 배출한 걸출한 위인이며 시대의 명장인 신승겸(申崇兼)장군과 마천목(馬天牧)장군은 각각 고려와 조선을 탄생시킨 개국공신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 장군의 탄생지가 모두 통명산이 품고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통명산에는 두 장군에 얽힌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신승겸장군의 덕양서원과 마천목 장군의 무덤과 사당 또한 통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풍수자들은 통명산이 봉황을 상징하며 무수한 명당을 품고 있는 길지라는 주장을 펼친다.

통명산은 곡성의 최고봉답게 다양한 등산코스가 개설되어 있고,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반 등산객들보다는 호젓한 산행을 좋아하는 오지 등산가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 삼기면 유평관광농원을 출발하여, 영화 '곡성' 촬영장으로 유명한 진둔치 고개를 지나 봉정리로 내려가는 코스를 가장 선호한다.

추천코스

삼기면 유평관광농원-통명산-길드차-죽부사-성주-봉-봉정리 (약 11km 6시간 소요)

GOKSEONG

TOUR 046

구산선문 태안사를 품은 봉황의 날개를 걷다. 봉두산

태안사 일주문에 동리산이라 씌어 있는 것을 보면 봉두산(736m)의 옛 이름은 동리산이었던 것 같다. 동리산과 봉두산 모두 봉황을 상징하고 있어, 봉황이 자주 등장하는 곡성의 풍수지리적인 특성에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북쪽으로는 대항강, 동쪽으로는 섬진강을 품고 있는 봉두산은 인근에 올망졸망 펼쳐진 산군들 사이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봉두산이라 하는지 모른다.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조태일 시문학관에서 태안사 능파각까지 약 1.5km 거리는 꼭 걸어서 이동할 것을 권한다. 봉두산의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태안사 계곡과 나란히 따라가는 진정한 산사가는 길. 이 길을 걷는 것부터가 봉두산 힐링산행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봉두산 산행은 태안사 능파각을 지나 오른쪽으로나 있

는 등산로를 따라서 반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이다. 정상은 잡목 숲에 가려 전망이 좋지 않지만 남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순천 지역과 지리산 남서쪽 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바위가 있다.

코스기이도

래인사 능파각 - 외사리재 1km (20분)
외사리재 - 봉두산 정상 2.1km (1시간)
봉두산 정상 - 길재 1km (30분)
길재 - 래인사 능파각 1.5km (40분)

산행거리 4.6km 소요시간 3시간 30분
(휴식시간 포함)

* 조태일문학관에서 능파각 시이도 계위



GOKSEONG

TOUR 047

조선시대엔 천하의 명당, 현재는 천하의 전망, 심청이야기마을의 곤방산

곤방산은 아름다운 드라이브길 17번 국도, 섬진강 돌레길 3구간, 심청이야기마을 등을 품고 섬진강을 굽어보며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다.

심청이야기마을과 오곡면 오지리 덕양서원 사이에 정식으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다. 특히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쯤은 찾아보고 싶어 하는 명당이 있는 산으로도 유명하다. 웅방산(熊方山)으로 불렸던 곤방산에는 장군대좌(將軍臺座) 명당이 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 무렵, 이 산에 8명의 재상과 장군, 3명의 왕후가 태어날 길지가 있다는 풍문이 돌면서, 팔도의 풍

수가들이 몰려와 다투어 묘를 썼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곤방산 정상에는 수많은 묘소들이 한데 모여있어 이채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그동안은 곤방산을 찾는 일반 등산객들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곤방산자락에 자리 잡은 심청이야기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정상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그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곤방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참으로 일품이다. 건너편 깃대봉 능선너머 손에 잡힐 것 같은 지리산 능선들을 비롯한 무수한 산 너울들이 섬진강을 따라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다.

신경도트

심청이야기마을과 함께하는 곤방산 미션
심청이야기마을- 곤방산 경성 일명회귀 약 1시간
30분에서 ~ 2시간이 소요

GOKSEONG

TOUR 048

섬진강 트레일을 향한 시작점 천마산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임을 상징하듯 곡성에는 유달리 명당이 많다.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곤방산 못지않게 고달면에 소재한 천마산도 그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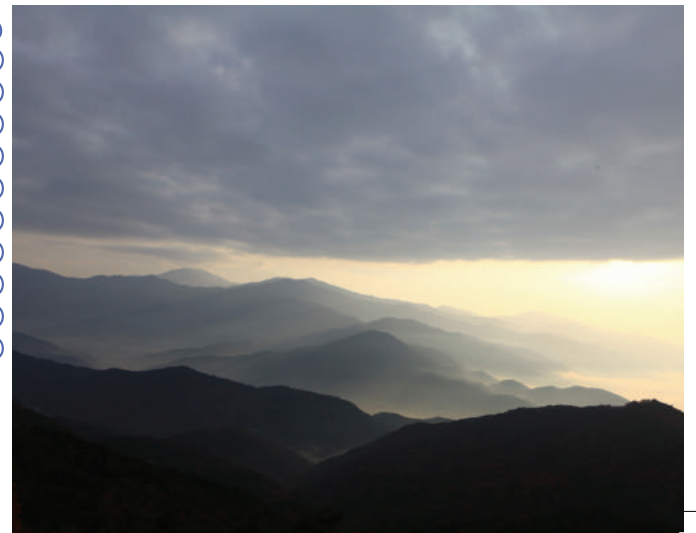
천마가 바람을 일으키며 달리는 형국인 천마시풍(天馬嘶風)의 명당이 있다는 데서 산 이름이 유래했다. 천마산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곡성에서는 유일한 지리산의 지맥이라는 점이다. 지리산 만복대에서 서쪽을 향해 갈라진 지맥이 남원과 구례의 경계를 이루는 견두산에서 시작하여 남서진하여 곡성땅으로 건너와 천마산으로 치달고, 섬진강을 끼고 깃대봉과 형제봉으로 흘러간다. 등산객들에게 있어 천마봉의 가장 큰 매력은 파노라처럼 펼쳐진 지리산의 장엄한 마루금을 지척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편 천마산은 깃대봉과 형제봉을 거쳐 섬진강 천문대까지 무려 15km에 이르는 섬진강 트레일의 시작점이다.



신경도트

경기관 디너오키
고산리널 입구 - 천마산 경성 700m
20분 소요
기리산 일출, 곡성 님주 김성 기념

고산리널 입구 들머리
전리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시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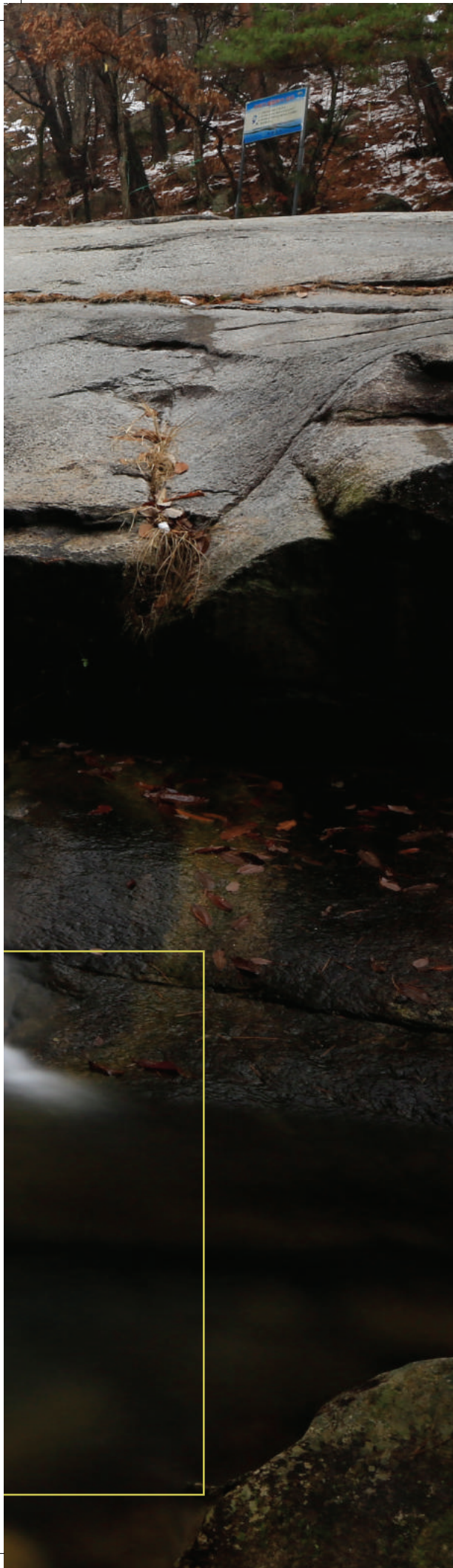


계곡

몇 발자국 들어가면 거기는 신선의 땅

상서로운 산
울창한 숲의 정기가
시냇물에 실려
널찍한 암반 위를
목구슬처럼 흘러가니
그곳은 바로 신선의 땅
거기에 머물면 누구나 신선이 된다.

연하일기에서 연암 박지원 선생은
곡성의 산하를 신선의 땅이라 칭송하였다.
그곳이 어디든
곡성의 산에선 한 걸음 내딛으면
거기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이 있기 때문이다.



GOKSEONG
TOUR
049

유교의 이상향 청류구곡
도림사계곡

도림사 계곡은 동악산과 형제봉으로부터 발원한 시냇물이 한데 모여 무수한 폭포와 소와 감을 이루며 흘러 내리는 동악산에서 가장 길고 큰 계곡이다. 특히 도림사에서 오트캠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편평한 암반으로 이루어진 반석계곡은 도림사 계곡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다.

옛 선비들은 풍류를 즐기는 계곡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품격을 따졌다.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하면서 바위가 편평하고 주변 수목들과 잘 어울리는 곳을 최고로 쳤다. 게다가 접근성까지 편하다면 금상첨화다. 도림사 계곡은 그런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람과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버킷 리스트에는 반드시 도림사 계곡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절로 풍악이 울리는 산이라는 동악산 이름과 도림사라는 절 이름도 도림사 계곡을 찾는 선비들과 풍류객들의 발걸음이 그만큼 잦았다는 데서 유래하지 않았나 싶다. 당연히 그들은 이곳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 자취와 흔적들이 지금까지 도림사 계곡암반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무엇보다, 선비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던 또 다른 의미는, 이 계곡에 성리학이 이상향으로 삼는 청류구곡의 형상이 구현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곡의 와폭(臥瀑)과 담(潭), 소(沼), 대(臺) 등의 암반을 아홉 구간 즉 구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골짜기에 맞는 경구를 새겨놓고, 도림사 계곡에 머무는 그 자체를, 성리학적 이념을 되새기는 행위로 여겼다. 따라서 도림사 계곡은 성리학을 포함한 유불선의 정신이 살아있는 경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도림사 계곡이 갖는 이러한 의미는 한일 합방 이후 독립운동가들에 의하여 항일운동의 이념적 거점으로 삼으려는 시도와도 연결된다.

지금 도림사 계곡은 여름이면 무수한 피서객들이 몰려들어 발 밑을 틈 없이 북적거리지만 도림사 계곡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시사철 언제라도 이곳을 찾았다면, 은은한 묵향에 취할 수 있다.

여행하기 노트

캠핑코스
이주말-도림사-등산로-갈매기리-폭포
(약 1.2km)

주소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일봉로 295-1



GOKSEONG

TOUR 050

소나무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류

청계동계곡

동악산의 남쪽에는 도림사 계곡과 원효굴 계곡이 있다. 동악산 북쪽에 있는 여러 골짜기에서 모인 시냇물들은 청계동 계곡으로 흐른다. 도림사 계곡이 선비의 풍모라면, 청계동 계곡은 무인의 기백이 멋있으면서 훨씬 더 나이나릿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악산 깊숙한 곳,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원시림 지대까지 이어진 청계동 계곡에는 팔팔 거리며 흘러내리는 폭포와 설악산에서나 볼 수 있는 옥색 물빛의 깊은 소와 담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금산전투에 참가하여 장렬하게 전사한 최초의 의병장 청계 양대박 장군이, 왜군에게 동래성이 함락 당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즉시 낙향하여 의병을 모아 이 계곡에 진을 치고 군사를 조련했다고 하여 그의 호를 따서 청계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청계동 계곡에서 만나는 풍경마다엔 양대박 장군의 호연 지기가 서려있는 듯하다.

청계동 계곡은 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이 쉽고, 수량이 풍부하여 물놀이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여름이면 계곡 피서지로서 절정의 인기를 누린다. 삼진강과 연결되는 계곡 하류 쪽에 넓은 자연풀장이 형성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피서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청계동 입구에서부터 소나무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무수한 계곡 쉼터를 발견할 수 있고 약 2km 거리에 청계폭포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청계폭포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골짜기 속에는 보석같은 폭포와 소와 담이 숨겨져 있다. 단, 거친 산길을 헤쳐 가야하는 약간의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여행기 노트

주소: 강원남도 곡성길 곡성읍 신7리
1177-1

GOKSEONG

TOUR 051

무수한 시인 묵객들이 다녀간
원계구곡

원효골계곡

동악산 서남쪽에 위치한 원효골 계곡은, 도림사 계곡이나 청계동 계곡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그곳 못지않은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두 형제봉, 즉 서봉과 동봉사이 헬기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는 계곡은 하류로부터 1km 되는 지점부터, 폭포와 소를 번갈아서 이어가며, 우람차게 흘러 내려온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높이가 무려 10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폭포가 모습을 드러내며 대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상류에 오염원이 전혀 없어, 흐르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이 원효골 계곡의 가장 큰 자랑이다.

원효골 계곡 역시 도림사계곡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으로 이곳에도 상류에 위치한 활연대를 비롯한 구곡의 이름을 붙인 흔적과 더불어 바위에 많은 시문들이 새겨져 있다. 따라서 도림사 계곡을 청류구곡이라 부르듯, 이곳은 원계 구곡으로 불리웠다.

반계 유형원 선생과 다산 정약용선생 같은 걸출한 학자들도 이곳을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대마도에서 단식 끝에 숨을 거둔, 면암 최익현 선생도 의병을 모집할 무렵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록도 전한다.

여행기 노트

원효골 계곡

경기도 고양시 광성읍 구원리 신39-3



태안사계곡

구산선운 태안사를 감싸안은 봉두산 골짜기에서 흘러 내린 시냇물들이 한데 모여 청정환 태안사 계곡으로 쏟아져 내려온다.

동악산 계곡이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물놀이 장소라면, 태안사 계곡은 태안사로 향하는 '산사 가는 길'을 걸으면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음미하거나 하얀 포말을 드러낸 크고 작은 폭포들을 감상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연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태안사 계곡에서는 야영이나 취사는 꿈도 꿀 수가 없는 분위기다.

태안사 매표소를 지나면 태안사 입구 능파각 바로 아래 주차장까지 곧장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 태안사 경내를 구경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편이 가장 좋겠지만, 태안사 계곡이 선사하는 최고의 힐링 기회는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매표소 부근 또는 조태일 시문학관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올라가야 태안사 계곡의 분위기를 오롯하게 즐길 수가 있다.

태안사 가는 길 걷기, 태안사 순례 그리고 봉두산 산행을 한꺼번에 즐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산행은 못 하더라도, 아직도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산사 가는 길'을 걸어서 태안사 계곡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태안사로 향하는 도로는 절 이름 만큼이나 널찍하고 순하다. 요즘은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작은 암자까지 가는 길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 길은 아직 비포장 도로라서 정겹다. 그리고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함께 있어 산소로 가득찬 터널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에는 수 천개의 내로라하는 산책로가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길은 흔치 않다. 태안사 계곡에 가로놓여진 반야교, 해탈교, 몇 개의 다리를 건너면서 그냥 걷

기만 해도 속세의 번뇌 망상은 계곡물에 말끔하게 씻겨 내려간다.

태안사 계곡의 백미는 다리와 정자를 겸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의 건축물인 능파각 부근 풍경이다. 폭포와 누각이 어우러지면서 한폭의 동양화를 보여준다. 능파각(凌波閣)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여인의 우아하고 가벼운 걸음걸이를 뜻한다고 한다. 능파각은 서기 850년 혜철선사가 태안사를 창건할때부터 지어졌던 목조 건물로서 몇 번의 복원과 보수끝에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계곡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냥 다리만 놔도 될 것인데 그 위에 누각을 함께 올려놓고 산사답지 않은 능파각(凌波閣)이라는 멋스런 이름의 지어준 창건주 혜철선사의 심오한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전국 방방곡곡 유명한 사진명소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는 사진 애호가들을 흔하게 볼 수 있을만큼
사진여행은 보편화되고 있다.

대밭과 어우러진 대항강 설경이 자아내는 겨울왕국
물안개와 상고대로 장식하고 환상의 나라로 바뀌는 섬진강 습지...
곡성의 산하에 펼쳐진 구름바다의 장관

섬진강과 대항강에 서식하는 물새와 야생동물
1004 종류의形形色색 장미가 만발한 장미정원
활짝 핀 철쭉, 그 꽃길을 달리는 증기기관차

이렇듯 곡성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풍경들이
사진여행자의 카메라를 기다리고 있다.

**자연의 원형과
고향의 원형이 살아있는**



곡성 사진명소



GOKSEONG

TOUR 053

섬진강과 대항강, 물안개, 상고대
그리고 설경이 어우러진 한 폭의 풍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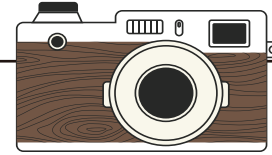
강변풍경

섬진강과 대항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강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사진 찍기 좋은 풍경도 널려 있다.

봄, 가을 (3월~5월, 9월~11월) 일교차가 심한 간절기 무렵에 일출을 전후로 강변으로 나가면, 새하얗게 피어오르는 신비스런 물안개를 만날 수 있다. 물안개는 습지와 갈대숲, 인근 마을과 어우러져 살아있는 수목화를 만들어낸다.

곡성은 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반면에 좀처럼 강이 얼지 않는다. 따라서 하얀 눈이 쌓인 강변과 검푸른 강물의 독특한 대비가 만들어지면 어디든 카메라만 들이대면 작품이 된다.

수목과 갈대 그리고 강물과 작은 하천들이 어우러진, 습지의 설경도 아름답고, 눈 쌓인 대항강변 대나무밭과 바위를 배경으로 흐르는 강물을 카메라에 담으면 산수화다. 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가면 피어오른 물안개가 곧장 얼어붙어 환상적인 상고대로 피어나는 진귀한 풍경도 섬진강 일원에서 가끔 펼쳐진다.



사진노트

물안개

기간: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일출 30분 전)

섬진강 - 침실습지, 김선습지, 대항강 - 복소, 빈그늘습지

상고대

기간: 1월, 2월 영하 8~10도 이하의 기온 (일출 30분 전)

섬진강 - 침실습지, 계월습지, 김선습지, 840 빈기방도, 청계동굴

설경

기간: 1월, 2월

섬진강 - 침실습지, 김선습지, 대항강 - 대항강변 18번 국도일일



GOKSEONG
TOUR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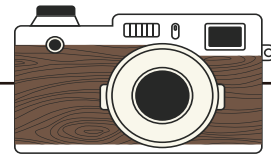
곡성에서도 바다를 볼 수 있다

운해 雲海

운해 즉 구름바다는 사진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다.

운해는 높은 산에 올라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산에 올라가 비박을 하거나, 꼭두새벽부터 산행을 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사실 그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대부분 사진가들에게 운해를 촬영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고, 등산가들이 찍어온 사진을 부러운 눈으로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곡성에서는 운해를 만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섬진강과 대황강을 품고 있는 곡성은 1년 중 반 이상 아침 안개가 낀다. 이런 안개는 통상적으로 해발 300~400미터 고도 아래쪽에 깔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점에 오르면 안개는 운해로 바뀐다. 그래서 아침 일찍 곡성에 위치한 해발 400m 이상의 고지대에 오르면 최소한 이틀에 한번 꼴로 운해를 볼 수 있다. 골짜기나라라는 별칭을 가진 곡성의 특성상, 산골과 산골을 이어주는 도로가 잘 개설이 되어 있어, 차를 타고 운해를 볼 수 있는 전망지점까지 갈 수도 있고, 높은 산 정상까지도 차에서 내려 한 시간 이내만 산행을 하게 되면 곡성 산하에 펼쳐진 광활한 구름바다를 만날 수 있다.



시간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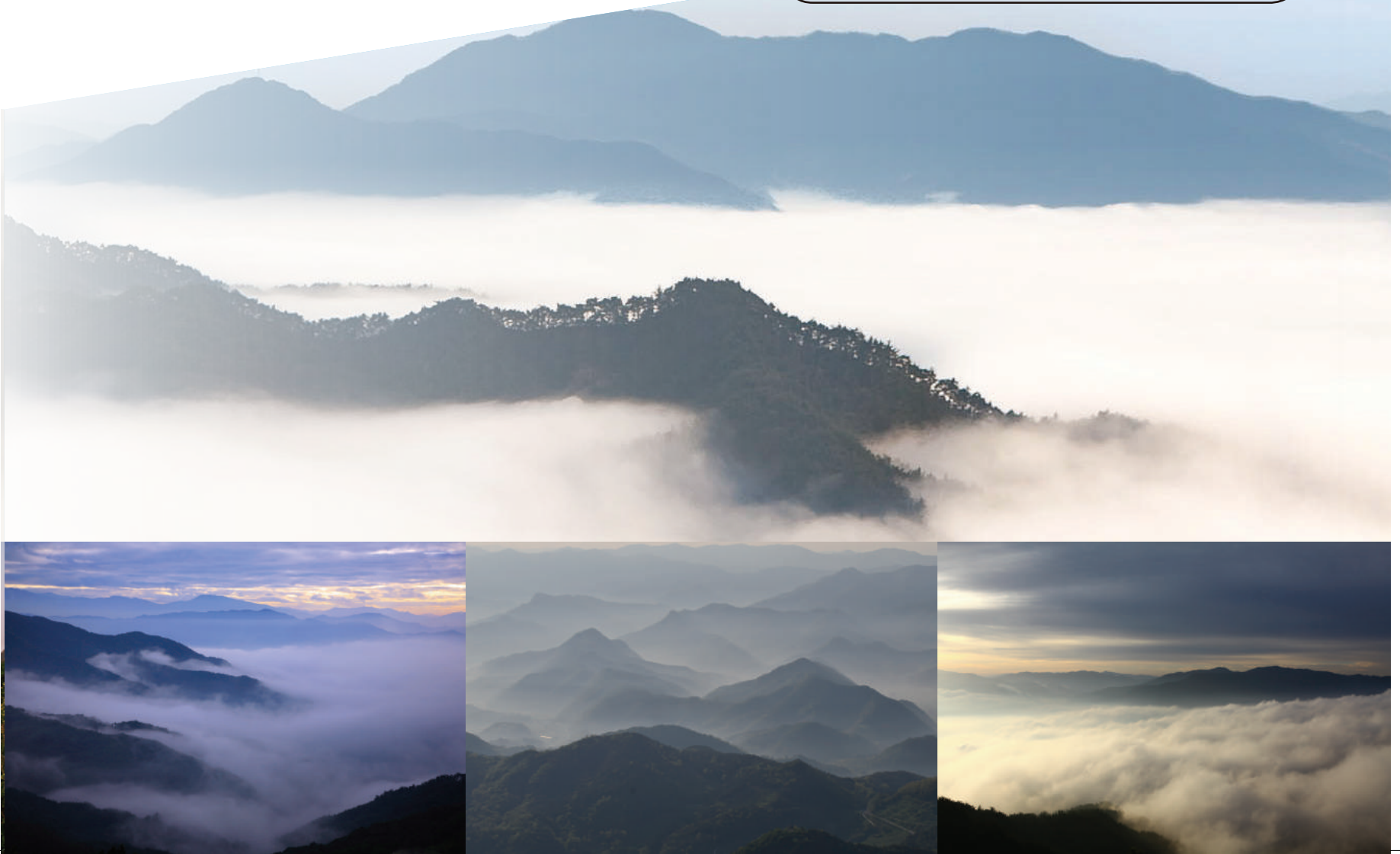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운해 전망지점

- 경리산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518-1 (고달에서 산동기능 도로변)
- 곡성계
- 미산리 임도
- 오곡면 오봉대

1시간 이내 산행이 필요한 운해 전망지점

- 곡성읍 하경리 상인봉 (계곡공원주차 - 45분 소요)
- 통명산 (길다리 전망대 주차 - 40분 소요)
- 설산 (숙도임 주차 - 30분 소요)
- 삼산 (용산 임도 주차 - 40분 소요)

** 날씨 바뀔 미끄러짐 주의



GOK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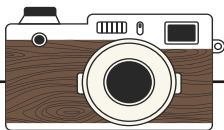
TOUR 055

구름 바다 운평선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앙상을

일출명소

열은 안개가 골짜기를 채우면서 부드러운 음영을 드러내며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오는 산 너울과 날이 밝아올수록 시나브로 채도를 더해가는 신비스럽고, 신성한 느낌이 드는 산상의 일출! 곡성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동해안에서는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지만, 곡성에서는 구름바다 운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수 있다. 곡성 일출명소를 찾아가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산 너울과 운해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지리산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맞이할 수 있다.



시각노트

곡성 일출명소

철마산 - 지리산에서 가장 가까운 일출명소

설산 - 지리산과 더불어 곡성 전체가 한눈에 들어옴

관방산 - 지리산과 넘겨짐

설산 - 산 너울과 지리산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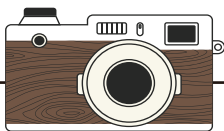
GOKSEONG

TOUR 056

서쪽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낙조명소

뜨는 해가 가슴을 뛰게 한다면, 지는 해의 오묘하고 부드러운 빛은 마음을 편안하고 포근하게 만든다. 곡성 팔경 설산낙조로 유명한 설산뿐만 아니라, 섬진강과 대항강 들녘을 비롯한 작은 마을의 동산에서도 그런 낙조를 만날 수 있다.



시각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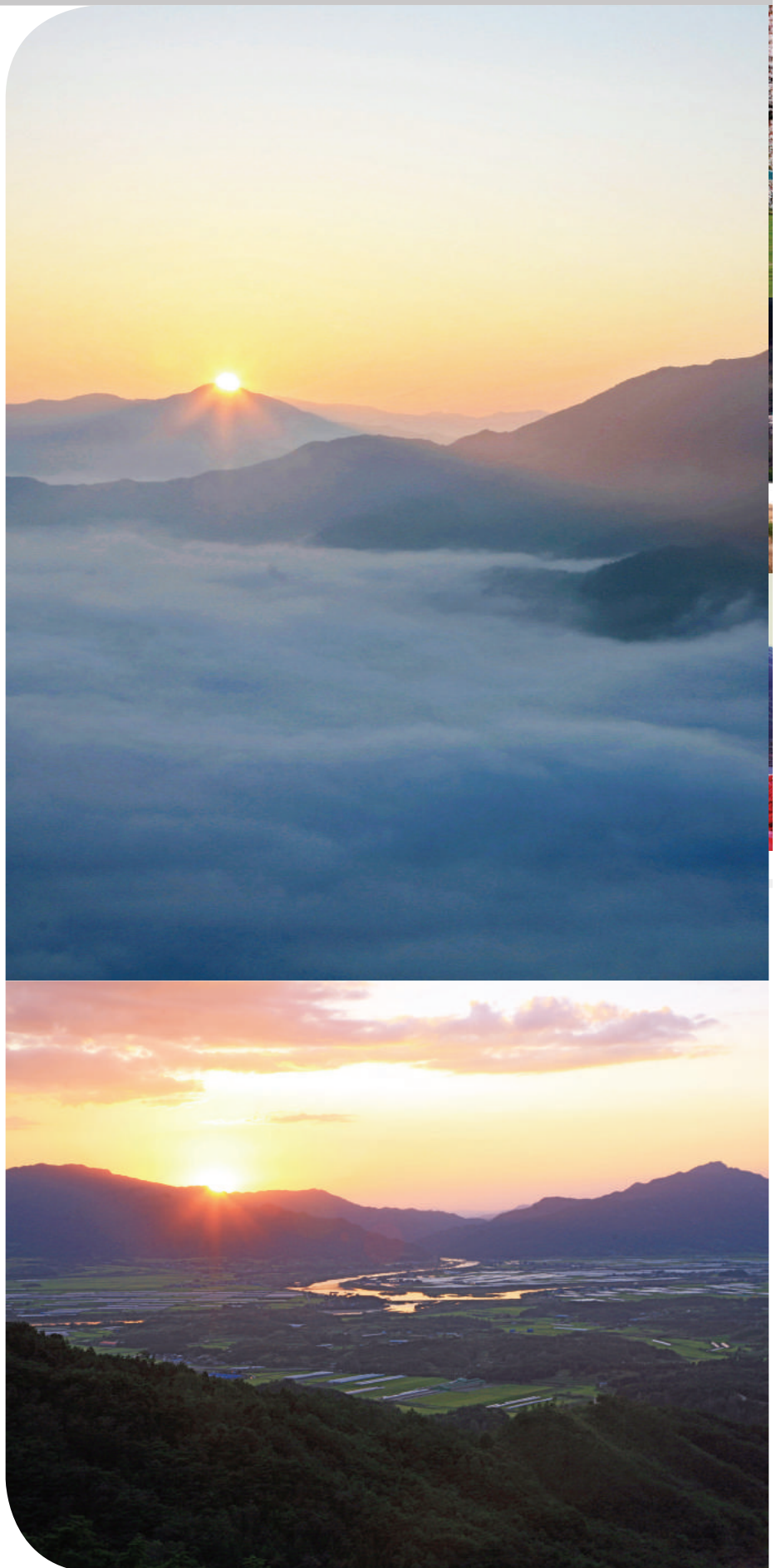
곡성 낙조명소

설산과 깨일산 - 광활한 남도 평야의 낙조 감상

호이산 패러글라이더 활강길 - 침실습기를 굽어보고 있는 작은 집으로 낙조

촬영명소

섬진강! 고달면 계방 - 낙조의 흥에 걸개되는 침실습기의 다양한 분위기를 촬영할 수 있음.





GOKSEONG
TOUR
057

물길, 꽃길, 차길, 자전거길 그리고 기차길
기차와 꽃길

봄이 무르익는 4월에서 5월 무렵이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인 섬진강 17번 국도와 대항강 18번 국도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 그 무렵 이 길을 벚꽃과 철쭉으로 그리고 연두색 신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다. 그래서 따로 정해진 촬영 포인트가 없고 저마다의 취향에 따라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한 가지 팁은 압록 철교 위로 달리는 기차나, 증기기관차 그리고 섬진강 레일바이크 타는 사람을 함께 담으면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기차는 KTX 포함해서 15분에 한 대씩 지나가지만, 증기기관차나 레일바이크는 지나가는 시간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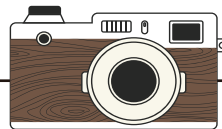
사진노트

압록주변의 전망포인트 - 철교위를 달리는 기차와 섬진강길을 담을 수 있음.
기대영역 부근 전망대 - 철쭉이 만발한 꽃길과 증기기관차를 함께 담을 수 있음.
대항강 18번 도로 건너편 압도 - 대항강과 벚꽃길을 담을 수 있음.

GOKSEONG
TOUR
058

생태사진촬영의 보고 곡성의 습지들
생태 탐사

섬진강 곡성구간에는 제월습지, 장선습지 그리고 이번에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침실습지가 있고, 대항강에는 반구정 습지가 있어, 곡성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습지의 고장이다. 습지는 각종 조류와 동물들이 서식하는 동물의 왕국이다. 조류만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오리, 두루미, 왜가리 등은 흔하게 발견된다. 그런가 하면 사냥을 위해 눈을 번뜩이는 각종 수리를 비롯한 맹금류들의 움직임도 무척 활발하다. 이른 아침 숨을 죽이고 습지 주변을 살펴보면 먹이를 찾아 나선, 수달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인기척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풀을 뜯는 노루와 마주칠 수도 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면, 섬진강 수면위에서 펼쳐지는 피라미들과 쏘가리의 요란한 추격전을 노려볼만도 하다.



사진노트

생태사진 촬영포인트
침실습지, 장선습지, 반구정 습지



GOKSEONG

TOUR 059

빛을 알리는 야생화의 천국, 삼산과 천마산 야생화

기나긴 겨울이 끝날 무렵, 동토를 뚫고 올라와 꽃문을 여는 야생화는 사진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재다. 그래서 야생화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다투어 찾아 나선다. 하지만 남도의 산은 건조한 편이라서, 지리산 같은 고산지역을 제외하고는 중북부에 비해서는 야생화가 무척 귀하다. 곡성에서 가장 높은 동악산과 통명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야생화는 거의 만날 수가 없고 여름과 가을에도 특정개체가 군락을 이루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곡성에도 중부지방 연인산이나 화악산 못지않은 야생화 군락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호남 정맥의 끝자락인 희야산에서 삼산을 거쳐 배래봉에 이르는 기맥은 인적이 드물고 산이 울창하다. 그래서 이른 봄부터 바람꽃을 시작으로 얼레지가 피어나고, 습기가 많은 숲속은 노란색으로 가득 채워진 피나무 군락지다.

지리산 만복대에서 갈라져 나와 견두산에서부터 섬진강변 형제봉까지 달리는 견두지역 곡성 구간에서도 귀하긴 하지만 이른 봄 눈밭에서 피어나는 봄의 전령산 복수초, 바람꽃, 노루귀를 만날 수 있다.

GOKSEONG

TOUR 060

그밖에 곡성의 사진명소

사진애호가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곡성의 사진 명소는 1004종이 식재되어 5월에 일제히 꽃문을 여는 기차마을 내에 있는 1004 장미정원이다.

곡성을 대표하는 풍경 사진의 첫 번째 촬영장소로는 곡성읍으로 진입하는 메타쉐콰이어 길을 꼽을 수 있다. 이곳에서 몇 백미터 거리에 있는 섬진강로 초입 S자 형태로 구부러진 길에 심어진 메타쉐콰이어길은 더욱 흥미로운 사진 소재를 제공한다. 연두빛 이파리가 돋기 시작하는 초봄, 아름다운 갈색으로 물드는 11월, 그리고 설경이 아름답다.

곡성읍에서 가까운 죽곡 저수지와 고달 저수지 풍경도 계절에 따라 다양한 사진 소재를 제공한다. 특히 5월에는 연꽃이 아름답고, 11월 경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담을 수 있다.





곡성은 가장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속하지만 타지역에 비해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인재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곡성이 천하의 길지라는 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풍수기들이 몰려와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묘를 쓰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곡성이 이렇게 인재의 고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당의 기운 때문이 아니라 기름진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불선이 조화를 이룬 효행과 충절의 고장 곡성

역사유적

다른 고장에는 한 개도 없는 향교가 둘씩이나 있고 덕양서원과 영류재를 비롯한 훌륭한 교육기관들이 있었다. 마천목, 신송검, 유팽로 같은 충신과 지사를 섬기는 사당도 도처에서 만날 수 있다. 불교 사상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구산선문 태안사와 천년고찰 도림사가 끼친 역할도 크다.

그런 까닭에 곡성은 근본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곡성 역사유적을 둘러보면 인재가 보인다.



GOKSEONG

TOUR 061

산은 노래를 하고 도림이
구름처럼 물러들었다

도림사

도림사 가는 길, 화무십일홍이런가. 세차게 내리는 비에 화사했던 빛꽃이 떨어져 빛물에 떠내려간다.

절 입구에 있는 동약식당을 찾았다. 일행들은 미리 예약한 곡성특산 능이버섯 백숙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말끔하게 비웠다. 식당 액자에 곡성팔경이 적혀 있어 한 구절씩 따져보았다. 동약산 해돋이(動樂朝日), 도림사 새벽종소리(道林曉鐘), 섬진강의 아름다운 경치(鶴江淸風), 압록으로 들어오는 뚝배(鴨綠歸帆), 태안사의 두견새 울음소리(泰安杜鵑), 대항강에서 햇불을 켜고 고기를 잡는 모습(大荒漁火), 통명산에 이슬비가 내리는 풍경(通明宿雨), 설산에서 바라보는 낙조(雪山落照)! 조선시대 무렵의 풍경이 이랬을 것이다. 세상이 많이 바뀐 요즘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로부터 곡성이 동양화에 등장하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이상향의 모습을 담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중 동약산에서 바라보는 해돋이는 지금도 곡성에서 가장 손꼽히는 경치라 할 수 있는데, 정작 욕심이 나는 것은 도림사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 종소리다. 식당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요즘

도림사에서 새벽에 종을 치는가요?" 별거 다 묻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절인데 당연히 종을 치지 않겠어요?" 기회가 되면, 스님들이 깨어나 새벽 예불을 드리는 시간 이전에, 동약산 신선대에 올라 도림사의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저 멀리 지리산 반야봉 위에서 시작되는 여명과 일출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빗줄기가 약해진 대신, 공기가 상쾌해져 도림사를 향해서 걸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풍성해진 계곡이 세찬 소리를 내며 흐른다. 덕분에 마음도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다. 일행이 말했다. "동약산 하면 왠지 나나노 가락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긴 도림사 계곡의 널찍한 반석을 보면, 술판을 벌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동약산과 도림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 그 이름 속에는 유불선(儒佛仙) 사상이 모두 함축되어 있고, 도림사 계곡은 무릉도원을 상징한다.

우리나라 오래된 사찰의 창건주는 대부분 원효대사 아



니면 의상대사인 경우가 많다. 불교가 꽃을 피우던 통일신라 무렵, 최고로 추앙을 받은 스타급 스님들이니, 어디 가서 얼굴만 비추어도 이름이 팔렸을 것으로 추정을 해본다. 하지만 동악산과 도림사에 전해지는 원효대사의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했을 것 같다. 기록을 보면 원효는 심산유곡보다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인간세계에서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다. 심산유곡 같으면서도, 사람 사는 세상과 맞닿아 있는 동악산이라면 원효대사의 취향과 딱 맞아 떨어진다. 전설에 의하면 동악산을 찾은 원효가 종턱에 있는 길상암터에서 수행을 하는데, 동악산의 기암괴석이 아라한으로 바뀌고, 산이 풍악소리를 내었다는 것이다. 용맹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들이 느끼는 환희심에 대한 매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생각된다.

절 이름에서도 원효대사가 실제로 머물면서 창건했다는 증거가 엿보인다. 당대 최고의 스타가 거기에 있었으니, 그를 친견하기 위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음은 당연했을 것이다. 원효가 이곳에 숲한 화제를 남겨놓고 떠난

이후에는 성지로 여겨지면서, 또 무수한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인이 숲을 이루다'는 절 이름 도림사의 뜻이 해석된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도림사계곡이, 성리학에서 꿈꾸는 이상향인 구곡을 닮았다하여, 유가의 선비들까지 이곳을 찾아 마음을 수양했다고 하니 과연 도인들의 절, 도인들의 숲이라 이름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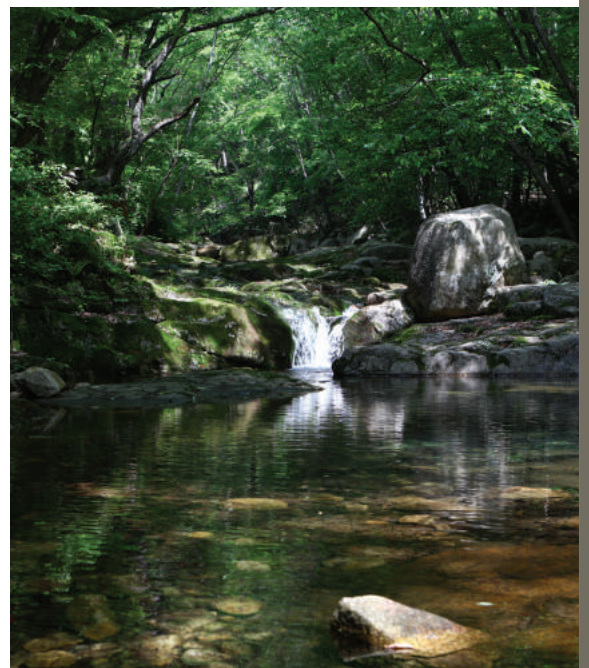
도림사 입구에 들어섰다, 대숲을 지나 높은 성곽을 연상케 하는 돌담이 인상 깊다. 숲한 전쟁의 참화로 인해 파괴와 복구를 거듭하면서 천년 이상의 법통을 이어 내려온 도림사를 보면 어떤 경외감이 느껴진다. 계단 위에서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산문의 모습은 소박하면서도 위엄이 있다. 남종화의 대가 의제 허백련선생도 이런 풍경을 보고, 멋스런 필체로 쓰여진 도림사 현판을 시주했을 것이다.

목조 건축물인 사찰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갈수록 절집에서 고풍스러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도림사도 20년 전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나마 천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끼 낀 주춧돌들에서 위안을 찾는다. 도림사 절마당에는 깃대를 세우기 위한 돌 기둥인 당주가 있다. 도림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물 1341호로 지정된 괘불을 세우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곡성의 또 다른 큰절 태안사는 봉두산이 고이 감싸고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 안정 되 보이는 반면, 도림사가 있는 위치는 협소하다. 풍수적으로 명당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대가람들도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천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꾸준히 그 도맥을 이어오는 비결은 도림사의 개방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림사는 불교 신도 뿐만 아니라 유학자와 일반 백성들에게도 열려 있었다. 그래서 누구나 고단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아와, 마음의 위안을 얻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중생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도림사의 유장한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비가 내리는 날인데도 도림사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여행지노트

주소: 경기도 남양주 곡성리 곡성읍 도림로 175
 걸임길: 주차가능
 입장료: 2000원 성인 기준





GOKSEONG

TOUR
062

황황의 품, 구산선운

태안사

누구든지 길 하나는 마음에 품고 산다. 내 안에는 어쨌
적 추억이 배어있는 고향 오솔길과, 스무살 무렵 우연
히 만나서 질풍노도처럼 날뛰던 마음을 달래준 인연으
로, 지금까지 찾아오고 있는 태안사가는 길이 있다.

아마 곡성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 역시 섬진강, 대
황강과 더불어 이 길에서 풍기는 은은한 묵향 같은 분위기
때문일 게다. 그래서 곡성에 들르게 되면 혼자서, 혹은
동행과 함께 꼭 이 길을 걷는다.

마음을 추스르고 걸음을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절집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같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마
음공부가 된다. 절 입구 매표소에서 태안사까지는 약
2.5km, 만만치 않은 거리라서 통상적으로는 절 입구까
지 차를 타고 들어간다. 하지만 태안사의 깊고 그윽한느
낌을 오롯하게 맛보려면 매표소나 조태일 시문학관 주
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다녀와야 제격이다. 길을 걷
다 보면 자유교, 정심교, 반야교, 해탈교 같은 이름의 다
리를 건너 산은 더욱 깊어지는 대신 마음속엔 어느덧 청
정함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동안 수없이 들락거렸는데도 공교롭게도 태안사의 가

을 풍경은 아직 만나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발
할 때부터 아예 목적지를 태안사로 정했다. 휴일을 피해
평일을 선택한 것도 가을 절길이 주는 호젓함을 만끽하
고 싶었던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조태일 시문학관에
서부터 오감을 열고 천천히 걸었다. 태안사 계곡의 단풍
은 나그네의 한눈을 팔게 할 만큼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빈약하지도, 어수선 하지도 않은 풍경으로, 시선을 붙들
었다. 게다가 가을로 들어선 계곡의 물소리는 얼마나 투
명한가.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낙엽 냄새는 이런 한갓
진 길이 아니라면 어디서 맡아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태
안사 계곡과 깊은 교감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바쁜 도회
의 일상으로 쌓인 독기가 몸과 마음에서 말끔하게 빠져
나가는 것 같았다. 천리가 멀다 하지않고 태안사를 찾아
오는 이유다.

능파각에 이르렀다. 태안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곳이다. 명주실타래를 풀어놓은 듯 하얗게 쏘
아지는 작은 폭포와 그 위에 걸쳐진 다리와 정각을 겸한
능파각은 인공물과 자연경관의 완벽한 하모니를 연출한
다. 능파(凌波)의 원뜻이 가볍고 우아한 여인의 걸음걸
이라니, 봉쇄 수도원같은 서릿발처럼 엄격한 규율로 유



지되는 구산선문 태안사로 건너가는 다리 이름치고는 대단한 반전이다. 이 다리를 건널 때 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한 신라 시대 최고의 선객이면서 동리산문 창건주 혜철 스님의 심미안에 거듭 탄복한다.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안사의 일주문은 참으로 고풍스럽다. 두 개의 기둥역시 자연스럽게 자란 아름드리나무 생김 그대로라서 참선도량 특유의 까탈스러움보다는 친근감을 자아낸다. 현판에는 아직 오동나무 줄기를 뜻하는 동리산(桐裏山)이라는 옛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봉황은 오동나무 열매만 먹는다고 하니 현재의 이름 봉두산(鳳頭山)하고도 서로 일맥상통한다. 중앙 대웅전을 중심으로 전각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잡은 태안사 경내에 들어서면 안정감이 느껴지고, 참선도량답게 무척 정갈하다. 사실 태안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절집들에 비해서 그리 유명하지도 않고, 그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천년 넘게 흘러내려 온 범통만큼은 우리나라의 어느 큰 절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불국토를 이룬다는 신앙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했고, 통일신라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달마를 교조로 하는 선종이, 당시 유학생이었던 승려와 지식인들에 의해서 신라에 전해졌지만, "문자를 내세우지 않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깨우친다"(不立文字 直指人心)는 선종 사상은, 기존 불교 세력에 의해서 이단시 되었고 불온한 사상으로 배척된다. 당시 신라의 지배층은 타락하고, 국가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지방호족들의 세력이 점점 막강해졌는데, 이때 개혁성향의 선승과, 육두품 계열의 지식인들이 이들 호족세력과 결탁하면서 탄생한 조직중 하나가 구산선문이

다. 그리고 속해 있는 각 사찰과 지역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장해간다. 동리산문을 연 혜철스님도 애초 당나라로 유학했던 엘리트 출신이었다. 태안사를 중심으로 동리산문을 열자, 고려를 건국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도선을 비롯한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인근 고장의 농민과 섬진강 일대에서 수운에 종사하는 상인, 심지어는 도적떼의 무리들까지 혜철스님께 가르침을 구했다. 혜철스님은 아마 선불교의 깨우침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 같다. 현재는 구산선문 아홉 개의 절중에서 다섯 개만 남아 있다. 따라서 태안사의 존재는 우리나라 선불교 역사에 있어서 금자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태안사가 참선도량으로 다시 그 이름을 다시 떨치게 된 것은, 40년간 늪지 않는 참선수행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청화스님 때문이다. 청화스님은 2003년에 자신이 새롭게 창건한 성륜사에서 열반에 들었지만, 그가 주로 머물고 주석한 곳은 바로 여기 태안사이며, 아직도 태안사 곳곳에 그의 자취가 남아있다.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천년 고찰의 가을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데, 절 마당에 들어서자 십 여분이 지나도록 오가는 인적하나 없이 고요하기 그지없다. 요사채 뗏돌에 가지런히 놓여 진 흰 고무신들이 스님들이 깊은 수행을 짐작케 할 따름이었다.

마침 만난 노 보살님으로부터 차 한 잔을 공양 받아 대웅전 건너편 마루에 걸터앉아서 지난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무수한 선승들이 자취를 남겼을 절 마당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들이 목숨을 바쳐 추구하던 깨달음의 경지란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봉두산 산등성이 위로 푸르스름한 낫달이 떠오른다. 절을 등지고 산문을 내려오는데, 그 달은 능파각까지 따라나와 배웅을 해주었다.

여행기노트

- 주소: 경남 곡성군 죽곡면 레인포 622-215
- 함께 볼만한 곳: 조계시 사막하(기림굴), 설간강 말화사



천년 백제의 미소가 살아 있는

관음사

GOKSEONG

TOUR
063

우연한 기회에 '천년 백제의 미소'라는 소개 글과 함께 소조관음불 사진을 접하고 관음사를 꼭 찾아가야겠다고 맘먹었다.

옥과 IC에서 화순방면으로 들어가는 지방도를 따라가다 보니, 심청공원을 비롯한 심청 상징물들이 자주 등장했다. 곡성에서는 호녀 심청을 대표 캐릭터로 삼고 있는데, 관음사 사적지에 기술된 장님 원랑과 딸 원홍장의 이야기가 심청전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다. 장님 원랑이, 실수로 스님께 거액의 시주약속을 했다가 결국 딸 홍장을 내어주었는데, 중국으로 팔려간 홍장은 황후가 되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관음상을 시주한다. 우여곡절 끝에 그 관음상이 이곳 관음사에 모셔지게 되었다는 얘기이다. 이를 근거로 심청전이 고대소설이 아닌 실화라는 주장도 꽤 신빙성 있게 제기된다.

관음사는 입구 선세마을에서 계곡을 따라 무려 5km나 들어간 곳에 있는 주차장에서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시냇물소리와 함께 울창한 숲 사이로 난 오솔길로 들어가니 비단물결이 출렁거린다는 이름의 다리를 겸한 금랑각(錦浪閣)이 나타났다. 관음 사찰은 주로 바다를

끼고 있는데, 내륙의 관음사는 이곳 관음사가 유일하다. 그래서 산문에 바닷가 정각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사천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니 절 마당이 유난히 넓다. 창건 당시인 백제 무렵에는 남부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 가람이었는데, 무려 80여개에 달했다는 옛 정각들은 사라지고 터만 남아 그리 보인 것이다. 창건 당시에 지어진 원통전은 해방이후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홍장이 시주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금동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었다. 각각 보물 273호와 214호로 지정될 만큼 대단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였다. 6.25 동란이 끝나고, 인민군 잔당과 빨치산이 산중으로 숨어들 무렵, 빨치산 전남도당이 자리 잡은 백야산과 접하고 있는 성덕산에는 공비들의 출몰이 잦았다. 그래서 그들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토벌대는 전각을 태워버렸다. 그때 천년의 유적 원통전과 금동관세음보살상도 함께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정유재란의 참화가 곡성일대의 불교유적지를 잿더미로 만들었을 때도 살아 남았던 관음사였는데, 우리 손으로 파괴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홍장의 설화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관음사와 하등 관련이 없는 부산의 한 보살이 꿈에 이끌려, 광

주 고물상에 텅골고 있는 타다 남은 관음상 불두를 찾아와 다시 관음사에 모셨다는 것이다.

드디어 복원된 원통전에 모셔진 그 소조관음상을 친견할 수 있었다. 국립박물관에서 반가사유상을 봤을 때 보다 더 강렬한 전율이 느껴졌다. 불교 신자가 아님에도 아직도 백제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 처연한 모습의 관음상을 보니 저절로 허리를 깊이 숙여 합장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1700년이라는 성상 그 거칠고 지난한 세월의 강을 건너왔는데도 흐트러짐 없는 저 오묘한 미소 속에 서려있는 백제의 혼을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절 마당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감상하기를 세 번이나 거듭했다. 원통전 바깥에 모셔진 커다란 물고기를 허리에 끼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어람 관음상의 모습도 무척 흥미롭다.

여행지노트

- 경리남도 곡성군 오산면 성덕관음길 347
- 함께 볼 여행지: 상경호문화센터

GOKSEONG

TOUR
064

충절의아이콘 의병장 유팽로

유팽로장군 유적

1592년 4월 14일,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선발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동래성 함락을 시작으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으니 곧 임진왜란의 발발이다.

이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7품 홍문관 박사로 벼슬살이를 시작했지만 세도가들의 비리를 거침없이 비판하다가 종9품 학유로 좌천된 유팽로장군은 4월 16일 왜적의 침입 소식을 접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고향인 곡성 옥과로 내려 온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전쟁 소식에 민심은 흥흥해지고, 무리배들이 날뛰면서 약탈을 하거나 관아를 습격하는 등 반란을 일으킬 조짐까지 보였다. 유팽로는 무려 500명에 이르는 무리배들을 설득하여 왜적과 싸우기로 마음을 모아 깃발을 치켜들었으니, 임진왜란 최초 의병부대가 탄생한 것이다. 장군은 옥과에서 군사를 조련하고,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군량미를 조달하면서 어엿한 군대의 위용을 갖춰가는 한편, 전라도 지역의 선비들을 찾아다니며 의병 동참을 호소하여 불과 한 달 만에 수천명의 병력을 갖춘 전라도 연합의병을 결성했다. 금산으로 진군할 무렵에는 임진왜란중 결기한 의병부대중 최대규모인 무려 6000명에 이르는 대부대가 편성되었다.

유팽로가 주도하는 전라도 연합의병은 당시 원로이며 명망이 높은 전 동래부사 고경명을 맹주로 추대하고, 유팽로는 좌부장, 양대박은 우부장을 맡아 병력을 이끌었다. 임금을 보호하는 근왕부대를 표방하고 전주와 여산을 거쳐 북진을 계속하여 진산에 이르렀다. 적이 금산성에 운집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그 부근에 주둔하며 적군과 대치했다. 이때 유팽로는 시간을 끌어 적의 병력을 분산시켜서 방심한 틈을 노려서 공격하자는 전략을 내놓았지만, 강토를 유린한 왜군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며 의기충천한 고경명을 비롯한 의병장들은 정공법을 고집했다. 호시탐탐 틈을 노리던 왜군이 먼저 성문을 열고 나와 기습 공격을 펼치자, 전투경험이 전무한 의병부대는 속수무책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60세 고령의 고경명 장군을 비롯한 의병들은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고, 고경명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유팽로 장군도 적진으로 달려가 함께 싸웠다. 무려 열흘간의 전투를 치르면서 사력을 다했지만, 중과부적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부대는 그렇게 괴멸되었다. 비록 패한 전투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왜군이 전주 방면으로 내려와 호남을 침공하는 것을 차단하였고, 도처에서 더욱 활발한 의병활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전쟁이후 조정에서는 그의 높은 충절을 기리기 위해 사간원 사간에 추증, 승정원 좌승지에 가증하였고, 1626년(인조3년)에는 그의 고향인 곡성 옥과에 정렬각을 세워 그의 높은 충절을 기렸다. 월파 유팽로 장군 정렬각은 현재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 25호로 지정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금산성에서 전사한 뒤, 유팽로장군의 애마가 장군의 머리를 물고 생가인 합강리까지 300리를 달려와, 장군의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마굿간에 들어가서 9일동안 여물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너비 6m, 높이 3m의 유팽로 장군의 말무덤으로 추정되는 의미총도 함께 둘러보자.

여행지도

- 월파 유팽로장군 정렬각: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길 13-10
- 의미총: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송결리 807-4





GOKSEONG
TOUR
065

고려 개국 일등공신 충절의 인물 신승겸 장군의 뜻을 기리는
덕양서원

곡성은 고려 개국에 있어 두 사람의 주역들과 관련이 깊은 고장이다. 한 사람은 해철스님의 문하에서 태안사를 근거지로 활동했던 고려의 정신적 지주인 도선국사이며, 또 한사람은 왕건의 최 측근으로서 후백제 견훤과 맞붙은 대구 공산 전투에서 패배한 왕건을 대신하여, 그와 갑옷을 바꿔 입고, 대신 죽음을 맞이한 신승겸 장군이다. 그가 최후를 맞이한 대구에 사당이 있고, 머리없는 시신을 수습하여, 황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봉분 세 개를 만들었다는 신승겸 장군의 무덤은 춘천에 있다. 이 때문에 신승겸장군이 춘천에서 출생

했다는 설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곡성 출신임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실제 곡성 목사동면 구룡리가 신승겸 장군의 출생지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룡리에는 그의 탄생지임을 알리는 용산재가 있고, 1589년(선조 22) 곡성 유림이 중심이 되어 신승겸 장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덕양서원을 세웠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이후 1665년에 훨씬 더 큰 규모로 건물을 중수하고, 신승겸 장군을 비롯한 선현을 모시고, 지방 교육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서원의 역할을 시작했다. 1695년(숙종 21)

‘德陽(덕양)’이라는 이름을 사액 받기에 이르고,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폐쇄되었다가 1934년 곡성 유림에 의하여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덕양서원의 건물로는 사우, 연서재, 신덕재, 내삼문, 강당, 전사청, 비강, 외삼문, 고직사 등이 있다.

여행지도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옥곡면 덕양서원길 38'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 물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명한 걸작 절로가다. 호남에는 학식이 높은 선비들이 즐비했다. 그중 영남에 퇴계 이황이 있다면, 호남에는 하서 김인후가 있다 할 정도로, 학문의 최고봉에 이른 김인후 선생이 당대 이후, 호남 선비들에게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일찌감치 출사하여 출중한 재능으로 중중에 이어 인종의 총애를 받았던 김인후 선생은 조정이 어수선해지자, 부모 봉양을 핑계로 옥과현감으로 부임하면서 곡성과 인연을 맺게 된다. 김인후선생 같은 대학자를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된, 호남 선비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었을 것이고, 그에게 배움을 청하거나, 혹은 교류를 위해서 무수한 선비들이 옥과를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중중에 이어 인종마저 승하하자 실의에 빠진 김인후 선생이 고향인 장성으로 돌아갈 때 까지 곡성지역의 학풍에 일대 르네상스를 맞이할 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에 1694년

호남 최고의 선비 하서 김인후의
영귀서원

GOKSEONG
TOUR
066

(숙종 20)에 김인후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존경하는 이 지역 유림들의 공의로 옥과면 죽림리 현재의 위치에 영귀서원을 창건하게 된 것이다. 1729년(영조 5)에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인 유팡로 장군과 선비 신이강 선생을 추가 배향하고, 이후 문신 허계 선생과 곡성의 선비 허소 선생도 배향하였다. 따라서 영귀서원은 곡성의 선비정신을 드높이는 금자탑같은 곳으로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었다가 1960년 현재의 위치에 다시 복원되어, 곡성의 선비정신을 후대에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여행지도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현정길 49-23 (겸면)

가곡리의 옛 이름은 개동이다. 산세가 깎개(介)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 개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 절이 있던 자리가 대단한 명당이었는데 절에 불이 나서 모조리 타버린 이후, 고령신씨 가문에서 그곳에 선대 묘를 모신 다음 신숙주, 신말주, 신용개 이렇게 삼정승이 나왔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신빙성은 없는 야사 수준이다. 하여간 그곳에 절은 사라지고 탑만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궁금증을 더해준다. 보물 제1322호로 지정된 가곡리 5층석탑은 이곳에 있었던 절의 정체는 물론, 탑이 세워진 시기를 비롯하여 역사적 내용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고려 중기 무렵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가곡리 5층석탑을 찾아가는 길, 마을 어귀에서 있는 특이한 돌장승이 눈길을 끈다. 왼쪽이 여성, 오른쪽은 남성 장승이다. 높이 2m 정도 되는 자연석을 거칠게 쪼아서 해학적인 이목구비를 만들었다. 마을의 풍수적인 비보를 위해서 세운 것으로 추정한다.

여행지노트

주소: 권리남도 곡성군 오성면 가곡길 341-34

황가사의 가곡리 오층석탑과 돌장승

가곡리 5층석탑

GOKSEONG
TOUR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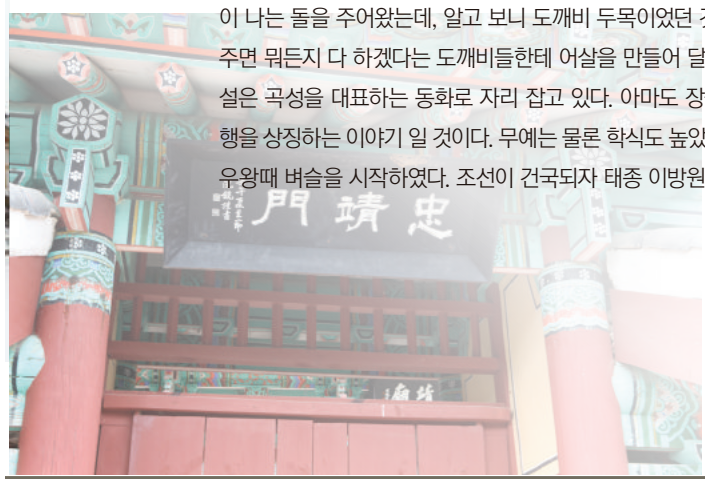
GOKSEONG
TOUR 068

도깨비 동화속 주인공 충신 마천목장군의 묘소와 충렬사

마천목 사당

마천목 장군은 원래 장흥출신으로 부모님을 따라 어린시절에 곡성으로 옮겨왔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섬진강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푸른빛이 나는 돌을 주어왔는데, 알고 보니 도깨비 두목이었던 것, 두목을 보내 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도깨비들한테 어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전설은 곡성을 대표하는 동화로 자리 잡고 있다. 아마도 장군의 지극한 효행을 상징하는 이야기 일 것이다. 무예는 물론 학식도 높았던 장군은 고려 우왕때 벼슬을 시작하였다. 조선이 건국되자 태종 이방원의 편에 가담하

여, 1차, 2차 왕자의 난을 성공으로 이끌어 이방원이 태종으로 등극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다. 태종 12년 고향인 호남으로 내려와 나주목사에 임명되고, 태종 17년에는 호남지역의 군권을 총괄하는 전라도 병마도절 제사가 되었다. 이 때 광주에 있던 전라병영을 왜구를 막기 위해 강진으로 옮긴다. 세종 13년 74의 나이로 생을 마친 다음, 곡성에 안장되고 그곳에 사당 충렬사가 세워진다.



여행지노트

주소: 곡성군 석곡면 빙주길 135-2



GOKSEONG

TOUR 069

고려의 충신 신승겸 장군의 탄생지

용산재

[님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정성은 하늘 끝까지 미치심이며, 그대의 넋은 이미 가셨지만, 일찍이 지나셨던 벼슬은 여전히 하고 싶으심이며, 오오! 돌아보건대 두 공신의 끈고 끈은 업적은 오래오래 빛나리소이다.] 고려의 제 16대왕 예종이 신승겸 장군을 찬양하며 팔관회에서 지은 이두형식의 향가다. 고려의 역사에 있어서 신승겸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군 왕건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친 충신중의 충신 신승겸 장군의 출생지가 춘천이나 곡성이나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곡성 출생설이 정설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신승겸 장군의 탄생지에 지어진 용산재에는 장군의 태를 묻었다는 단소와 더불어 구룡문, 유희비와 비각과 더불어 동상이 세워져 있어 매년 신승겸 장군을 기리는 제가 열린다. 그리고 곡성 여러 곳에는 장군의 비호같은 말타기 전설이 서려 있는 신유봉, 장군의 갑옷을 숨겨두었다는 화장산의 철갑바위, 무예를 연마하다가 물을 마신 장군천 그리고 대항강의 용소, 용탄, 용암, 용마 등의 바위마다 신승겸 장군의 전설이 서려있다.



여행기노트

주소: 경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180

GOKSEONG

TOUR 070

조선 후기 건축의 걸작

영류재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167호로 지정된 영류재는 비교적 근대인 1917년에 지어졌지만, 조선 후기의 전통건축기술이 집대성 되어 있는 대단히 훌륭한 건축물이다. 함안 조씨 문중의 재실로 문중의 모임장소와 제사를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개화기에 '개량서당(改良書堂)'이라는 이름을 붙여 청소년들에게 유학과 신학문을 가르치던, 학숙으로 이용되어 영류재가 위치한 봉정마을 인근에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영류재는 마을의 지세를 고려하여 남남동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단으로 된 높은 기단 위에 세워졌다. 정면 4칸, 측면 2칸에 전후퇴를 두었으며, 원형의 다듬돌 주춧돌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대청에는 장귀틀과 동귀틀로 짜여진 우물마루를 깔았다.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처마는 겹처마이며, 활주와 기둥에는 각종 주련이 걸려 있다.

이렇듯 전형적인 재실 건축이지만, 목재의 가공과 결구 기법이 우수하며, 관리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조선 후기 건축의 걸작이라 말할 수 있다. 넓은 마당에는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연못과 괴석 등으로 도가적 이상향을 구현하였다.



여행기노트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봉정길 74-4

시심(詩心)이 가득 담긴,
곡성군수의 신문 기고문에
문 나라가 감동하는 것을 보고
모히려 곡성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우리는 이 정도가 기본이여'

곡성에는 웃음이 흔하다.
기뻐도 웃고

슬퍼도 웃고
고흥스러워도 우선은 웃고 본다.
곡성 사람들
서로가 서로 웃음을 나누기 때문이다.

곡성의 풍성한 문화적 토양은
이런 낙천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시(詩), 서(書), 예(藝), 악(樂)의 고장 곡성

문화유산

GOKSEONG

TOUR
071

조태일 시인을 닮은 향평의 시 같은

조태일 시문학관

나의 시는 내가 태어난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찰리 등
리산 풀안에 안겨 있는 태안사에서 출발한다. 그곳에
서 겪었던 체험들은 원초적 생명력을 형성하여 내 시
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조태일-

그는 대처승이었던 태안사 주지스님의 아들로 태어난
다. 그의 아버지는 여순 반란사건의 과정에서 절에서 쫓
겨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나
죽고 30년 있다가 고향을 찾아가거라.' 그렇게 고향 태안
사를 떠난 이후부터, 조태일의 삶은 그 자체가 시였다.
두고 온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유신 독재정권, 민
주주의가 사망한 불의한 시대에 대한 서릿발 같은 저항
의식이 그의 삶의 뼈대를 이루었고, 시로 뿜어져 나와,
동시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런가 하면
월간 문학지 '시인'을 창간하여 김지하, 양성일, 김준태
같은 기라성 같은 저항 시인들을 세상에 내 놓는 역할도
하였다. 아버지 유언에 따라 30년 만에 그리운 고향 태
안사를 찾아오지만, 이미 그의 이름조차도 금기어가 되

었던 서슬 퍼런 시절, 자유를 갈망했지만 한순간도 자
유롭지 못해, 오직 자유를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
다. 5.18항쟁과 함께 그는 또 잡혀가 온갖 고초를 당하
고, 무려 3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세상이 그에게 조금 느슨한 활동공간을 제공한 것은, 그
가 온몸을 던져 싸워서 얻은 작은 선물인지도 모른다.
이때부터 학교에서 후진양성에 매진하다가, 1999년 안
타깝게 생을 마감한다. 그는 떠났지만 그를 사랑하는 이
들은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구산선문 태안사 선승들의
마지막으로 몸을 사르고 가는 불구덩이 다비장터로 그
의 주옥같은 시들을 데려와 조태일시문학관으로 부활
시켰다.

여기에는 조태일시문학기념관과 시집전시관이 있고, 전
시실의 세미나실과 창작실을 운영중이다. 조태일시문학
기념관에는 시인의 유품을 비롯한 2,000여점의 작품을
소장 전시중이다. 시집전시관에는 그가 수집한 우리나
라 최초의 근대시집인 최남선의 '백팔번뇌'를 비롯한 다

수의 희귀본과 최근에 출간된 시집 등 3,000여점이 전
시되어 있다. 그리고 예비 문학도들의 창작 공간 역할도
겸하고 있다.

건물은 다른이들을 위해서 5.18 희생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시인의 성품처럼,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로 낮게
엮드리고 있어, 부담 없이 찾아와 기웃거리다 보면, 어느
새 전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
게 소박미가 넘치는 건물은 시인 이윤하(건축사사무소
노뚝돌 대표)의 설계로 지어져, 제1회 대한민국 목조건
축 대전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어쩌면, 조태일 시문학관
그 자체가 조태일을 표현하는 한편의 시다.

여행기노트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레인로 622-38

함께 볼만한 곳: 레인시, 삼강기독교문화교(김
중권독도시집전시관)

연락처: 061-362-5868, 010-8602-0360





GOKSEONG
TOUR
072

선비의 칼을 만드는 낙죽장 한상봉 선생의
낙죽장도 烙竹粧刀

요즘 젊은 세대들 영웅의 롤모델은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이겠지만, 70~80년대에 청소년기를 겪은 이른바 386세대에게 영웅이란 절절 단신 한 자루의 검에 의지한 채 포포히 강호를 떠돌며 약당을 울리치는 절객이다.

그래서 그 세대에게 있어서 검은 상상만 해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로망이었다. 우연히 곡성섬진강기차마을 낙죽장도 체험관에 들렀다가 검을 보았다. 잊고 지냈던 첫 사랑과 우연히 마주친다면 그런 기분이 들까? 대나무 뿌리를 손잡이로 하는 특이한 형태의 검을 본 순간 가슴이 쿵광거렸다. 날이 한쪽만 있는 것을 도(刀), 양쪽에 있으면 검(劍)이다. 본디 우리나라는 검의 나라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술이란 베기가 아닌 찌르기였다. 임진왜란때 왜도(倭刀)의 위력을 경험한 이후, 칼의 주류도 검(劍)에서 도(刀)로 바뀐다. 왜관의 일본 사무라이들보다 검술이 뛰어나 검신(劍神)이라 일컬어졌던 김치검과 검객 백동

수는 당대에는 아이돌 스타 이상의 히로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와 달리, 전쟁 때 말고 요즘 총격전을 보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칼싸움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조선의 개인 무기의 주류는 활과 창이었고, 칼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였다. 무인과 문인을 막론하고 틈만 나면 사대에 나가 활쏘기를 즐겼지만, 검술을 익힌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았다. 따라서 칼은 무기보다는 상징물에 가까웠다. 왕이나 무장들에게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했고, 선비에게는 불순한 마음을 삼가는 수양의 도구였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정절의 수호신이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손잡이 칼집에 다양한 문양을 넣는 장도(粧刀)류의 제작이 유난히 발달했다. 특히 중요 무형문화재 60호 한상봉 선생의 낙죽장도는 무인의 칼이 아닌 문인의 칼로서 한국 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대나무에 인두로 글씨를 새기는 것을 낙죽이라 한다. 따

라서 낙죽장도란 대나무로 만든 손잡이나 칼집에 글씨가 새겨진 칼을 말한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선비라야 낙죽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오늘날의 낙죽장 한상봉 선생의 가문 역시 곡성의 선비집안이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 가게 되면 곡성의 얼, 나아가 우리나라 선비의 기개와 얼이 서려있는 낙죽장도 체험관은 꼭 둘러봐야 한다.

여행기노트

낙죽장도 견수관: 전남 곡성군 목시동면 공북리 597 전화 :061)362-3900

낙죽장도 체험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연락처 :010-5326-0096





GOKSEONG
TOUR
073

곡성에 독도 사진박물관이? 사진작가 김종권의
섬진강 문화학교

김종권 작가는 사진가들이 도저히 접근하기 힘든 독도와 백두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수강산 이곳저곳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의 진수를 찾아내어, 세상에 알려진 비경 사진작가로 유명하다. 잠시 곡성에 내려와 작품 활동을 하다가, 곡성의 인심과 고향의 이미지를 간직한 풍광에 이끌려 아예 눌러앉게 되면서 태안사 가는 길목 폐교에 캠핑을 비롯한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섬진강 문화학교와 사진박물관을 개설하였다.

섬진강문화학교에서는 캠핑장을 제공하고, 각종 어린이 체험교실을 진행한다. 교실을 개조한 각각의 전시공간에는, 곡성의 아름다움을 담은 풍경사진, 남도의 각종 풍경과 생태사진, 희귀한 독도사진, 백두산 사진, 우리나라의 숨은 비경을 담은 사진 등 출잡아 천여 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을 둘러보는 것으로 곡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독도와 백두산 그리고 설악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곳곳의 비경들을 한군데서 만나볼 수 있다.

여행지도노트

주소: 강원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793

연락처: 061-361-0313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 조재일 문화관, 태안사

GOKSEONG
TOUR
074

곡성에는 타임머신이 있다. 시사박물관
김갑진 갤러리



월급의 70%를 신문 구독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매일 80부 이상을 구독하여 100만종이 넘게 수집된 신문과 시사물을 자신의 집은 물론이고, 세까지 얻어 보 관해야 했다. 이런 내용이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가 수집한 이 방대한 자료와 유명캐릭터 모형 피규어 6000여종을 상설 전시하는 전시관이 곡성에 있다. 신문 수집광인 주인공 김명곤 관장과 그의 형 김갑진 미술작가가 운영하는 시사박물관을 겸한 김갑진 갤러리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의 한 폐교(구 기룡초)에 자리잡은 이 시사교육박물관 1층에는 영화자료·스크랩 체험실이, 2층에는 분야별 신문과 피규어,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2층 2전시실에는 문화·스포츠 분야 중심의 전시물도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서 김갑진 작가의 유화 갤러리도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김대중 전 대통령 평양 방문, 최진실 자살 사건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담은 신문을 읽다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여행지도노트

주소: 강원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당사길 1

연락처: 061-362-9004

GOKSEONG
TOUR
075

국가 무형문화재 32호 곡성삼베
돌실나이

삼베는 목화가 전해지기 이전까지는,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의복의 주류를 이루었고, 삼베를 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발달하여 중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되었을 정도였다. 삼베는 '베'라고도 불리며, 한자어로는 '마' '마포' '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곡성 삼베' 하면 예로부터 우수한 품질로 정평이 나 있었고 '돌실나이'라고 불렸다.

'돌실나이'에서 '돌실'은 석곡(石谷)의 옛 이름이다. 또 '나'는 베를 짠다는 뜻의 '베를 나다'에서 비롯되었다. 그

래서 석곡에서 생산된 삼베 세포(細布)가 '돌실나이'로 명사화된 것이다. 곡성 삼베의 특징은 가늘고 간격이 고른 세포이다. 따라서 걸이 모시처럼 곱고 깔끔하다. 대신에 다른 삼베를 짜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이 투입된다. 포의 폭은 35cm이며 한 필의 길이는 40자다.

이렇듯 전국 최고의 곡성 삼베의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32호로 지정되어 현재는 4명의

길쌈 기능 보유자와 더불어 작업과정에서 부르는 길쌈 노래가 구전 전승되고 있다.

여행지도

곡성돌실나이 견수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GOKSEONG
TOUR
076

호남 좌도농악의 명맥을 잇는
죽동호남좌도농악

주로 진안, 장수, 남원, 곡성, 구례, 화순, 담양 등 호남 동부지방에 전승되는 농악을 호남 좌도 농악이라 한다. 호남우도농악이나 남해안지역의 농악과는 달리 기교가 어렵고 섬세하며 가락과 동작이 빠르다. 곡성 죽동농악은 전통에 가장 충실하다는 평가로 현재는 호남좌도농악을 대표한다. 상식 박대업(朴大業)선생이 기창수(奇昌守, 1895~1987)선생과 강순동(姜順童, 1908~1983)선생의 대를 이어 2002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5호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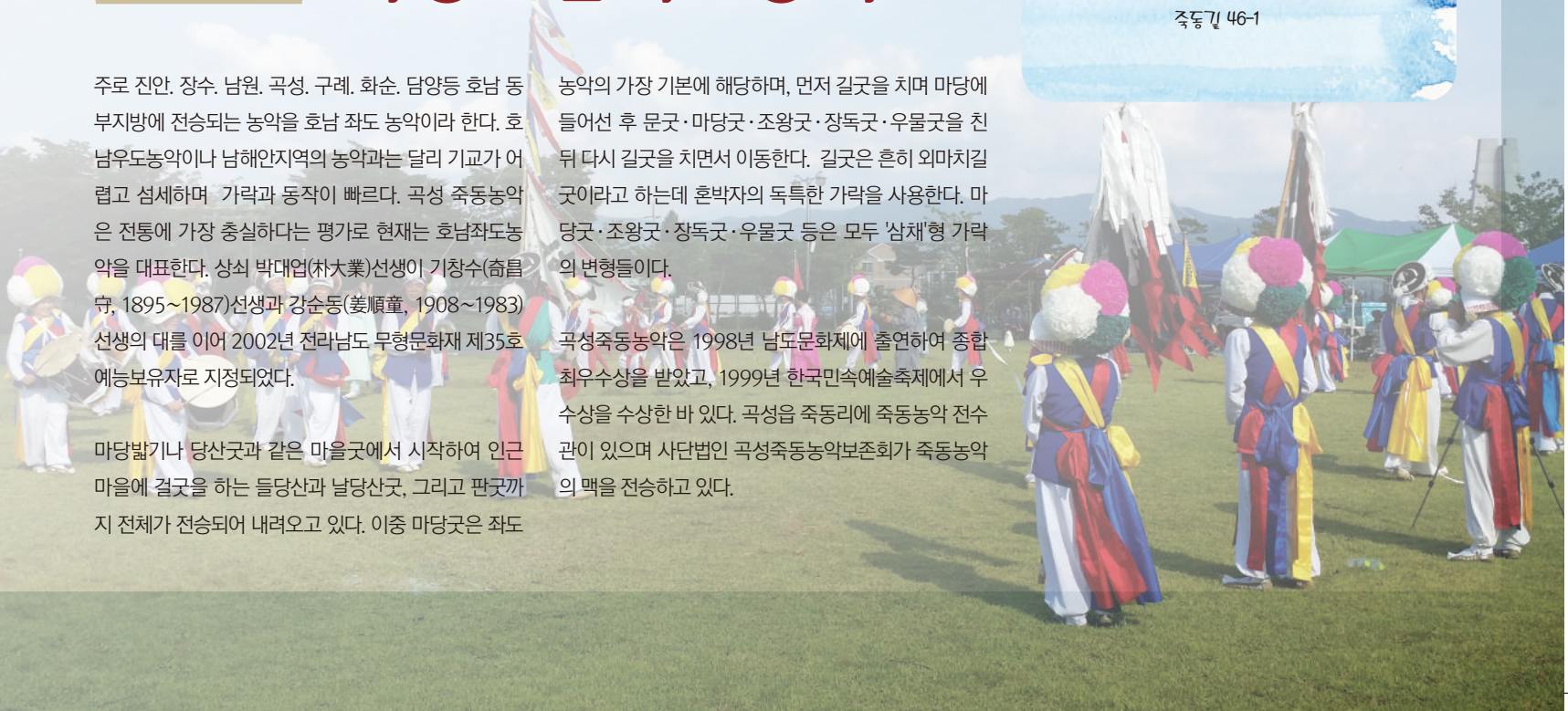
마당뿔기나 당산굿과 같은 마을굿에서 시작하여 인근 마을에 걸굿을 하는 들당산과 날당산, 그리고 판굿까지 전체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중 마당굿은 좌도

농악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며, 먼저 길굿을 치며 마당에 들어선 후 문굿·마당굿·조왕굿·장독굿·우물굿을 친 뒤 다시 길굿을 치면서 이동한다. 길굿은 흔히 외마치길굿이라고 하는데 혼박자의 독특한 가락을 사용한다. 마당굿·조왕굿·장독굿·우물굿 등은 모두 '삼채'형 가락의 변형들이다.

곡성죽동농악은 1998년 남도문화제에 출연하여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고, 1999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곡성읍 죽동리에 죽동농악 전수관이 있으며 사단법인 곡성죽동농악보존회가 죽동농악의 맥을 전승하고 있다.

여행지도

죽동농악전수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죽동길 46-1



GOKSEONG

TOUR
077

17번 국도의 징주

갤러리 푸른낙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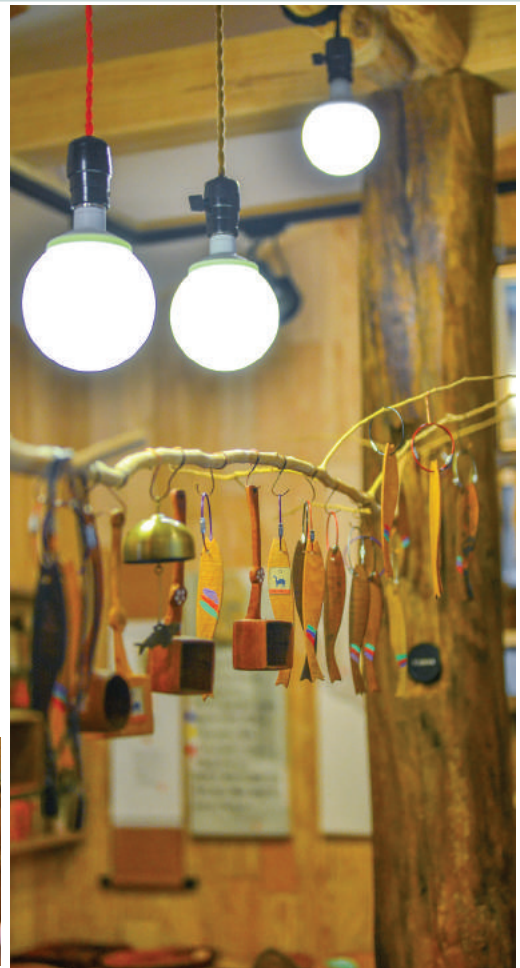
섬진강을 끼고 달리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17번 국도와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가 달리는 철도변 사이에 '기차길옆 오막살이' 아기가기 잘도 잔다. 칙칙 칙칙뚝뚝 하는 동요가락을 절로 떠올리게 하는 납작하게 엮드린 작은 오막살이 한 채가 눈에 띈다. 증기기관차를 타거나 레일바이크를 타본 사람은, 평범하면서도 왠지 고혹한 느낌을 주는 이집에 한 번쯤은 눈길을 주었을 것이다. 역시나 이집은 꿈꾸는 마을이라는 뜻의 작은 미술관 갤러리 몽리다.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어색할 정도로 작지

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곳이 주는 소박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느낌만큼은 서울의 빠가 번쩍한 유명갤러리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 창원에서 활동하다가 고향 곡성으로 돌아온 목각작가 야암 안태중 작가의 앙증맞으면서도 독특한 목각작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곳에서는 목각작품 뿐만 아니라 철, 돌, 놋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커피를 파는 분위기 좋은 카페를 겸하고 있으며, 안태중 작가의 소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다.

여행지노트

갤러리몽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삼길거리
1529-1 번지

연락처: 010-3917-1588



GOKSEONG

TOUR
078

곡성 짚풀염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55호 임채지 선생의

짚풀공예관

곡성 기차마을 한쪽에 마련된 아담한 한옥거리에는 낙죽장도 체험관과 더불어 짚풀 공예관이 마련되어 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전시공간이 아니라 초고장인(짚풀공예 장인)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55호 임채지 선생님이 계시는 작업장이다. TV 인간극장에 출연하여 사모님께는 구박덩어리 '못말리는 짚풀염감'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채지 선생님은 개그맨 뺨치는 걸쭉한 입담으로 특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받고 있는 섬진강기차마을 스타로 통한다.

임채지 선생님의 짚풀공예를 단지 시골 할아버지의 소일거리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어린시절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임채지 선생님은 생애의 반 이상 순전히 짚

풀공예품을 만들면서 살아왔을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열정과 대단한 예술적 감각을 갖고 있다. 그러한 재능과 노력을 인정받아 7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55호(초고장)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전국에서 전시회 초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곡성이 자랑하는 전통공예가이다. 참고로 초고장(草藁匠)은 짚과 풀로 전통 생활용구와 농업 도구, 민속신앙 도구 등을 만드는 기술이다.

여행지노트

짚풀공예관: 곡성삼길거리기차마을



봄이면 산과 들에 나가 나물을 캐고
 여름이면 마을 앞 개울에서 멍을 감고
 가을이면 뒷산 모퉁길을 거닐며 밤을 즐기고
 겨울이면 숯불에 밤이며 고구마를 구워서 먹었던
 아련한 추억들을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으랴.

시냇물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산모퉁이 돌아가면 포근한 모습으로
 기다려주는 외갓집 같은 마을들이
 곡성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비록 최선식 호텔은 아니라도
 세련된 이벤트는 없더라도
 산 좋고 물 맑고 들 넓은 마을에 머물다 보면
 번잡한 일상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사라진 자리에서
 된장 내음 물씬 풍기는 추억이 돌아난다.



곡성의 산골마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손주를 기다리는 외할머니처럼...

곡성 농촌체험마을

GOKSEONG

TOUR
079

그림책 같은 고향 풍경 가정마을

가정 농촌체험마을

자연환경

지리산에서 뻗어 내린 천마산 형제봉 아래 울창한 숲이 에워싼 산자락에 자리 잡은 가정마을은 동네 바깥으로 조금만 나가면, 섬진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그래서 마치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고향 마을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농촌마을에서 하루쯤 쉬어가고 싶어 하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정마을 지역에는 곡성섬진강청소년야영장과 곡성섬진강천문대, 증기기관차 종착지 가정역이 있다.

체험프로그램

섬진강 자전거 길을 달리는 자전거 하이킹이 가장 인기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다. 가정마을 숲길을 비롯한 섬진강변 5km를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다. 두부 만들기 와 다슬기잡기도 가정마을이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 여행객들에게 민박도 제공한다.

여행지도

주소 : 전남 곡성군 고덕면 기령 마을길 72

문의 : 061-363-1637

<http://www.gjinill.co.kr>



GOKSEONG

TOUR
080

외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두계외갓집체험마을

두계 농촌체험마을

자연환경

지리산출기 천마산 자락에 오순도순 기대어 자리 잡은 두계마을은, 동네 입구 수문장 돌무덤을 통과하는 순간 부터 마치 외갓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이 몸과 마음을 감싼다. 그래서 이름도 두계외갓집 체험마을이라고 부른다. 마을 안 고갯 정겨운 돌담길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은 한없이 더디 흐르고 마음은 외할머니 품에 안긴듯 편안해진다. 마을 민박과 더불어, 단체 숙박이 가능한 체험관과 한옥펜션이 있다.

체험프로그램

- 걷기, 대나무밭, 두계천 눈두렁걷기
- 농사체험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 밤 줍기, 추수하기
-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시골음식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우마차타기
- 도깨비살 탐사, 나룻배타기, 자전거하이킹



여행지도

주소 : 전남 곡성군 고덕면 두계길 126

문의 : 070-7724-5587

<http://www.dugye.co.kr>

곡성의 전통이 살아있는 봉정마을

봉정 농촌체험마을

GOKSEONG
TOUR
081

자연환경

봉정마을은 곡성에서 가장 높은 통명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후기 건축미의 진수를 보여주는 영류제를 비롯한 단산정사, 봉산제, 영사제 등의 고택과 제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마을안으로 들어와 돌담길을 걷다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고, 영암에 구림마을이 있다면, 곡성에는 봉정마을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효와 충절, 그리고 학문의 고장 곡성의 전통을 상징하는 마을이다.



체험프로그램

- 봄: 고로쇠와 산나물(고사리, 두릅, 취나물 등) 채취
- 여름: 마을앞 봉정천 물놀이, 뗏목타기, 물총만들기, 물고기잡기
- 가을: 토란캐기, 고구마캐기, 밤줍기, 감따기 등 경운기 타기 등 농기구체험
- 겨울: 쌀엿 만들기, 고구마 구워먹기, 메주만들기, 된장 담그기



여행지노트

주소 : 전남 곡성군 죽곡면 봉정길 43-137
 문의 : 010-4682-2648
 홈페이지 : <http://baksagol.kr/>

신승겸 장군의 호연지기가 서려 있는 용바위마을

용바위 농촌체험마을

GOKSEONG
TOUR
082

자연환경

고려 태조 왕건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친 충절의 화신으로 유명한 신승겸 장군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는 용암마을은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바위와 계곡 그리고 산등성이마다에 신승겸 장군의 전설이 서려있고, 신승겸 장군을 모신 사당, 용사재와 무덤이 있다. 그런 역사와 품격이 있고 인심이 좋은 용사 마을에는 멋진 한옥체험관이 있어, 아름다운 산골마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며 진한 힐링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

- 봄: 등산, 피톤치드맛보기, 농사체험, 산나물채취
- 여름: 매실따기, 감자캐기, 야생화그리기, 화전부치기, 활쏘기, 물고기잡기
- 가을: 농사체험, 야생화그리기
- 겨울: 소여물주기, 인절미 만들기 화전부치기 등



여행지노트

주소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용암길 8
 문의 : 061-362-1828
 홈페이지 : <http://www.용바위.kr/>

GOKSEONG

TOUR 083

여유와 풍류가 넘치는 칠봉목화마을 칠봉 농촌체험마을

자연환경

일곱 개의 상서로운 봉우리가 감싸고 있는 칠봉마을은, 기름진 논과 밭이 펼쳐진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다. 마을에 위치한 두 개의 정자 즉 대환정과 천연정을 보더라도 얼마나 여유로움과 풍류가 넘쳤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칠봉마을은 목화의 주산지로서 지금도 이곳을 목화마을이라 부른다.

체험프로그램

칠봉목화마을에는 목화 체험 전시관이 개설되어 있어 목화와 관련된 각종 도구와 자료를 전시하는 한편 목화 고치를 물레에 넣고 돌려 실을 뽑는 체험과 더불어 각종 전통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유기농 식사를 제공하고, 한과 만들기 체험도 경험해볼 수 있다.



여행지노트

주소 : 전남 곡성군 겸면 칠봉길 78

문의 : 010 - 4131 - 1049 /

010 - 3627 - 6533

홈페이지: http://cotton-vill.co.kr/skin_default/

GOKSEONG

TOUR 084

황등들 너른 들녘이 펼쳐진 무창마을 무창 농촌체험마을

자연환경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대부분의 곡성 농촌체험마을과 달리 무창 마을 앞으로는 널찍한 황등 들녘이 펼쳐져 있다. 황등들녘은 친환경 황등쌀 재배단지로 유명하고, 구릉지에는 사과 과수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농촌의 생활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가족형 농촌체험 마을이다. 인근에 심청문화센터, 옥과 미술관, 성륜사, 설산, 섬진강자연학습원이 있다.

체험프로그램

- 봄 : 논농사, 밭농사체험, 사과나무 분양, 나물 캐기, 논두렁 걷기
- 여름 : 섬진강자연생태체험, 메뚜기잡기, 동부콩 따기, 잠자리잡기
- 가을 : 황등쌀 축제, 벼 수확체험, 포도 따기, 사과수확하기
- 겨울 : 체험, 김장하기, 전통놀이 및 벚짚공예 체험

여행지노트

주소 : 전남 곡성군 옥리면 금의길 59

문의 : 010-3611-5832 (황철규)

홈페이지 : <http://www.mcfarm.co.kr>



전국 숲 체험하기 10선에 선정된 봉조마을 봉조 농촌체험마을

GOKSEONG
TOUR
085

자연환경

천덕산(672m)과 곤방산(714.8m)의 품속에 자리 잡은 봉조마을은 찾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평화롭고 아늑한 산골마을이다. 그리고 마을 지척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 운치를 더한다. 농촌 체험 학교로 다시 태어난 폐교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팜 스테이 형태의 민박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어 일반 여행자들이 이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다. 마을에서 직접 채취한 산나물을 식재료로 하는 식사도 제공하는 봉조마을은 산림청에서 선정하는 전국 숲 체험하기 좋은 마을 10선에 선정되었다.

체험프로그램

- 전통체험 : 풍구질, 훌테질, 가마니짜기, 절구질, 물래질 등
- 농사체험 : 모심기, 감자캐기, 고구마캐기, 콩털기 등
- 만들기체험 : 솟대, 나무모빌, 천연비누 등
- 기타 : 숲 체험, 고기잡기, 매실따기, 모닥불 피우기, 알밤음악회 등



여행지노트

주소 : 전남 곡성군 오곡면 봉조리

문의 : 061-362-5268

홈페이지 : <http://www.bongjori.com>

하늘나리 무릉도원, 상한마을

상한 농촌체험마을

GOKSEONG
TOUR
086

여행지노트

주소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상한리

문의 : 061-363-8546



자연환경

구불구불 좁은 산길을 따라가면, 활짝 열린 아늑한 골짜기가 펼쳐지면서 마치 무릉도원을 연상케 하는 산등성이에 상한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산기슭에 만발한 매화꽃과 함께 봄이 찾아오면, 상한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의 발걸음도 무척 잦아진다. 상한마을 고로쇠물은 전국에서도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별도로 민박을 제공하고 있어 휴양을 겸해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많다. 특히 민박에서 제공하는 상한마을 산채정식은 미식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체험프로그램

- 만들기체험 : 밀랍초 만들기, 벌통 만들기, 짚풀공예
- 농사체험 : 꿀 내리기, 농사체험 등
- 생태체험 : 밀원식물, 벌의 생태, 친환경농법 알아보기

GOKSEONG

TOUR 087

국화골 단사마을 산촌체험

단사 산촌체험마을

자연환경

검장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자락 한 가운데 들어앉아 있는 단사마을은 산골마을이면서도 고도가 낮은 평지라서 아늑하고 평화롭다. 마을에서 남쪽으로는 옥과천이 섬진강을 향해 흘러가고 그 주변에는 국화 군락지가 있다. 오동나무가 많아 봉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단사마을 인근에는 가곡리 5층석탑을 비롯하여 관음사, 박원모 효자문, 개사지, 무후사 등의 문화재가 있다. 청정 곡성에서도 가장 공기가 맑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은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여행기노트

주소 : 경북남도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
숙박 : 061-362-0025



GOKSEONG

TOUR 088

천혜의 트레킹 코스

원달 산촌체험마을

자연환경

원달마을은 해발 200 ~ 250m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전형적인 산촌이다. 취나물이나 고사리 같은 산채나 밤, 감, 두릅, 고로쇠, 더덕 등, 깊은 산중 특유의 임산물이 이 마을의 특산품이다. 주변에 천년 고찰인 태안사가 있고,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산중턱을 휘감고 돌아가는 임도에서는 트레킹과 산악자전거 하이킹이 가능하다.



여행기노트

주소 : 경북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문의 : 061-362-4695



뽕향이 새끼를 품은 비룡포란형 명당
유봉 산촌체험마을

GOKSEONG
**TOUR
 089**



자연환경

대항강 하류 지역에 자리 잡은 유봉마을의 지형은 전형적인 비룡포란형 명당으로 일컬어지는 뽕향이 새끼를 품고 있는 형국이다. 옛날 신승겸 장군이 물을 마셨다고 전해지는 장군천과, 액운을 쫓아내기 위하여 동구밖에 세운 돌탑이 이 마을의 명물이다. 특산물은 매실과 토란이며, 농한기철에는 쌀엿을 생산한다.

여행기노트

주소 : 권리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문의 : 061-362-4951

대나무가 많은
죽산 농촌체험마을

GOKSEONG
**TOUR
 090**

여행기노트

주소 : 전남 곡성군 검면 죽산리
 문의 : 061-363-2098

자연환경

곡성군 검면 운교리 죽산마을 일대로 마을 뒤편에 검정산(해발437m)이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마을 동산에 대밭이 무성하여 죽산이라 하였다. 주변에는 천년고찰 관음사가 있고 사과가 이 마을의 특산물이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사과따기 체험을 진행한다.

체험프로그램

- 농사체험 : 사과따기, 고구마캐기
- 인절미 만들기 체험



GOKSEONG

TOUR
091

대신주말농장마을의 딸기 따기 체험

대신 정보화마을

자연환경

섬진강변에 자리 잡은 대신주말농장마을은 넓은 들녘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300여 농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곳은 각 네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평리와 신리의 첫 자를 따서 대신주말농장마을이라고 한다. 주민 70% 이상이 시설하우스에서 지역의 특산물인 딸기, 멜론, 화훼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이 인정되어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을 정도다. 봄철에 진행되는 딸기 따기 체험 프로그램은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프로그램

딸기따기체험(2월초~5월초)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딸기를 따서 시식하는 체험(500g까지 가져갈 수 있음)

시골 나물밥상과 증기기관차 체험 제공

여행기노트

주소 : 강원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25-1

문의 : 운영의무감 : 010-9155-2750 (박형식)

프로그램문의 : 010-4423-1030(김소경)

홈페이지 : <http://daesin.invil.org/>



모닥불 피워놓고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고 싶다면

한가롭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고 싶으세요?
가족이나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밤새도록
드란드란 얘기꽃을 피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곡성으로 오세요.
텐트가 없으면 묵만 와도 괜찮아요.
럭셔리한 글램핑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기와집 뒷마루에 비스듬히 누워서 산너를 넘어 지리산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름다운 유럽풍 마을에서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강물을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곡성으로 오세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당신의 마음만 갖고 오세요.

곡성이 넉넉한 품으로 기다릴게요.

캠핑과 리조트

GOKSEONG

TOUR
092

심청한옥마을에 가면 심청을 만날 수 있다

심청 한옥마을

고대부터 곡성은 철 생산지였다. 곡성의 철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다. 강한 칼과 창을 갖고 싶어 했던 당시, 곡성의 철을 얻기 위해 일본과 중국의 무역선들이 압록포구를 드나들었다.

일본의 상징으로 알려진 철지도를 곡성 철로 만들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곡성은 예로부터 삼진강 수로를 통해 일본, 중국 등과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곡성의 처녀가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중국 보타현에는 곡성 처녀가 그곳 최고 거상과 결혼하여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전해져 내려온다. 그래서 곡성에서는 관음사에서 발견된 연기 설화와 더불어 이것을 근거로, 심청은 실존인물이며 곡성이 심청전의 발원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곡성에는 쇠쟁이마을이라는 고대 철생산지 흔적과 더불어 조선 후기까지 의병들이

숨어서 병장기를 만들었다는 석하살 야철장터가 있다. 곤방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도화천은 심청전에 등장하는 지명과 유사하다. 그래서 심청이야기마을은 고대 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단순한 테마마을이 아닌, 그런 역사성이 서려 있는 송정마을터에 조성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심청이야기마을은 기와집 10동과 초가집 12동이 들어서 있는 전통 마을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실제로 심청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마을의 이름을 '심청이야기마을'이라 정한 이유도 그것이다. 심청이야기마을은 삼진강을 끼고 달리는 17번 국도에서 들어간다. 도로 만들어진 이정표를 보고 증기기관차가 다니는 철길을 건너 산으로 향하는 길을 쭉 따라가면, 심청전을 상징하는 조형물들과 더불어 심청이야기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심청이야기마을은 억지로 산을 깎아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송정마을의 집터와 가옥의 원형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마을은 14동의 한옥펜션과 더불어 관리동, 체험동, 전시동, 송정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청한옥펜션 내부는 곱모습과 달리 욕실과 주방, 수세식 화장실을 비롯한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있다. 펜션은 2인실부터, 4-8인실, 12인실 그리고 침대와 온돌방등으로 다양하게 구비

되어 있다.

심청이야기마을을 대표하는 건물인 '송정가'라는 이름의 'ㄷ' 자형 2층짜리 대형 한옥에는 찻집과 명상센터가 있고, 세미나와 M/T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옥펜션의 재 방문율은 무척 높은 편이다. 심청한옥펜션이 갖고 있는 특유의 정감과 아름답고 청정한 주변 환경 때문일 것이다. 뒷마루로 나오면 삼진강 건너편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너울과 더불어 일출을 감상할 수도 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곤방산 자락 울창한 숲속으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최고로 친다. 그 길을 따라가면 곤방산 정상까지도 1시간 이내면 올라갈 수 있고, 여름밤엔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디불어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굳이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부담없이 찾아와 마을을 둘러보며 초가집 돌담길을 배경으로 멋진 인증샷을 찍거나 곤방산 숲길을 산책할 수 있다.

여행기노트

주소 : 경북남도 곡성군 옥곡면 상정로 178

문의전화 : 061-363-9910

홈페이지 : <http://sc-story.co.kr>



숙박과 휴양이 가능한 유럽형 펜션 리조트

강빛마을

GOKSEONG

TOUR
093

대항강을 따라 죽곡을 지나 목사동면 방면으로 가다보면, 마치 유럽 마을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주황색 기와 지붕의 상당한 규모의 마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강빛마을이다. 대항산을 굽어보는 화장산 기슭에 자리 잡은 강빛마을은 무려 109세대나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은퇴자 마을이다. 곡성이 청정수도라 일컬어지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소 농도와 더불어서 음이온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강빛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곡성에

서도 가장 청정도가 높은 곳에 속한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곳에 은퇴자 마을이 들어선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오지 같지만, 호남 고속도로,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지척에 있고, KTX를 타면 서울에서 곡성역까지 불과 두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아, 교통여건도 괜찮은 편이다. 쾌적한 생활을 위한 마을 공동체가 잘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굴지의 병원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은퇴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은퇴자주택은 대부분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1층에서는 은퇴자가 거주하고, 2층은 여행자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 형태로 운영된다.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들 시설은 최고급 호텔 수준으로, 일일 숙박과 더불어 장기 휴양도 가능하다. 단체 손님을 위한 넓은 세미나실과 식당도 갖추고 있다.



여행기노트

주소 : 경남 곡성군 죽곡면 강빛마을길 8-21
문의전화 : 061-362-3800
홈페이지 : <http://www.valleyhome.co.kr/>

숲속 동화나라, 글램핑천국

좋은세상 리조트

GOK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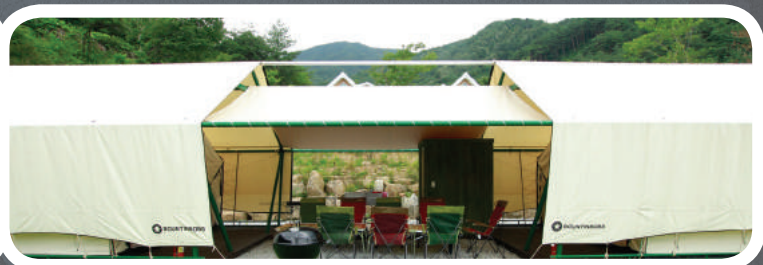
TOUR
094

압록에서 죽곡 방면으로 대항강변을 따라 2 km 남짓 들어가서 좋은세상리조트 이정표를 보고 리조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치 동화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다. 대중적인 리조트와 달리, 아기자기한 공간에 다양한 모양의 펜션과, 대형 텐트들이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다. 가족단위 여행자들을 위한 패밀리 펜션, 대가족이 묵을 수 있는 언덕위의 통나무집 고양이 하우스 그리고 특별

한 손님들을 위한 노블레스 펜션이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싶어 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좀더 특별한 여행을 꿈꾼다면 럭셔리한 캠핑을 뜻하는 글램핑을 경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초대형 텐트안에 침대, 쇼파는 물론이고 텔레비전과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있어, 어지간한 호텔을 능가하는 안락함과 더불어 모닥불을 피우고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캠핑의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기노트

주소 : 경남 곡성군 죽곡면 대항길 1397-45
문의 : 061-362-5555
홈페이지 : <http://joeunsesang.co.kr/joeun>



GOKSEONG

TOUR 095

여행의 즐거움이 100배, 캐러반, 캐빈, 캠핑을 선택할 수 있는

도림사 오토캠핑장

호텔이나 펜션보다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차에 텐트를 싣고 가서 캠핑을 하거나, 캠핑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작은 오두막집 형태의 캐빈이나, 자동차 공무니에 달고 다니는 캐러반에서의 하룻밤이라면 여행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이다. 도림사 오토캠핑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동악산 자락 드넓은 부지에 캐러반이 10대, 캐빈이 14동, 그리고 40동의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핑장이 조성되어있고, 부대시설도 잘 갖춰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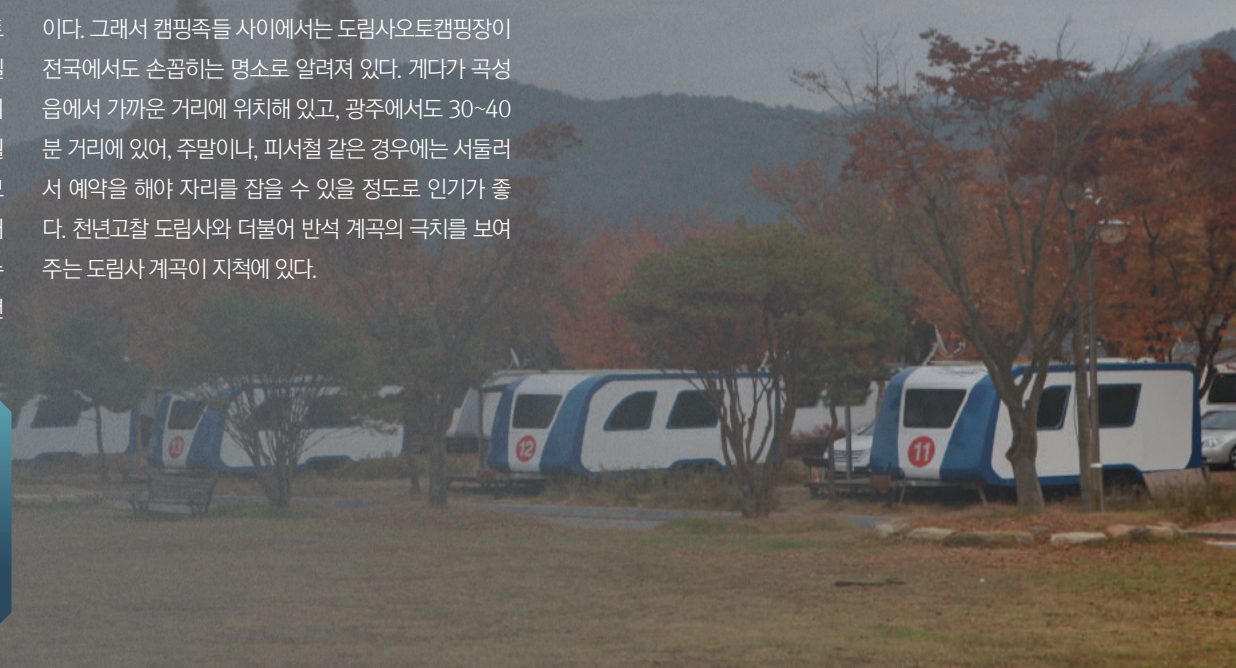
이다. 그래서 캠핑족들 사이에서는 도림사오토캠핑장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곡성읍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광주에서도 30~40분 거리에 있어, 주말이나,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예약을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천년고찰 도림사와 더불어 반석 계곡의 극치를 보여주는 도림사 계곡이 지척에 있다.

여행지노트

주소 : 경리남도 곡성길 곡성읍 도림로 74

문의 : 061-363-6224

홈페이지 : <http://www.dorimsacamping.co.kr>



GOKSEONG

TOUR 096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 야영장

증기기관차 종착역인 가정역에 도착하면, 승객들은 오래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건너가는데 그곳 섬진강변에 청소년 야영장이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 야영장 설립 목적은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수련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익성 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리조트 시설이다. 따라서 숙소와 식당, 강당 그리고 각종 체험 시설을 갖추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위주로 운영 된다.

그러나 가족을 비롯한 일반인에게도 야영장 시설을 제공한다. 우선 텐트 50동을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을 비롯하여 별도의 글램핑장이 마련되어 있고, 신청을 하면 가족단위 숙소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섬진강 레프팅, 섬진강 자전거 하이킹등 다양한 레저 활동도 지원한다. 참고로 청소년 야영장 옆에는 주야간에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섬진강천문대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지노트

주소 : 경남 곡성길 고달면 기림마을길 51

연락처 : 061-362-4186

홈페이지 : <http://www.gokseongcamp.com>





곡성기차마을

GOKSEONG

TOUR
097

로즈 유스호스텔

곡성기차마을 로즈 유스호스텔은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단체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소로서, 식당과 더불어 컨벤션홀을 갖춘 복합 리조트다. 아울러서 곡성역에서 15분 거리에 곡성기차마을 정문에 위치하고 있어 '내 일로를 통해서 곡성을 찾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곡성섬진강기차마을과 증기기관차탐승 그리고 섬진강레일바이크를 찾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층이 점

점 늘고 있는 것도 이에 힘을 입은 바가 크다. 또한 2인에서 4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실은 곡성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대시설로 연회장과 한식당, 공동세탁실과 공동취사장을 갖추고 있다. 투숙객에 한하여 기차마을 입장료 50%,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탑승요금의 20% 할인혜택을 준다.

여행지도

주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문의 : 061-362-1314

홈페이지 : <http://www.roseyh.co.kr/>

기차에서 하룻밤, 낭만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레일펜션

GOKSEONG

TOUR
098

기차 펜션

럭셔리한 기차호텔에서의 하룻밤은 곡성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곡성의 명물이 된 기차펜션은 기차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만 일류호텔 수준으로 개조한 것으로 각각 곡성섬진강기차마을과, 가정역에서 하룻밤 긴 여정을 떠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섬진강 레일펜션은 곡성섬진강기차마을 후문에 위치해 있으며 새마을호 기차 12량을 리모델링하여 26개의 펜션으로 개조하였다. 섬진강기차마을 펜션은 증기기관차 종착역인 가정역에 위치해 있으며 통나무집 형태 펜션 9동과 통일호를 개조해서 만든 열차펜션 7 개가 있다.

곡성섬진강기차마을과 곡성읍내권 관광에 중점을 둔다면 곡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레일펜

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섬진강 자전거 하이킹, 섬진강 레프팅, 섬진강 천문대 천체 관측 같은 섬진강과 함께 하는 체험 관광을 위주로 할 경우, 가정역 기차마을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어간다면 무척 특별한 추억을 덩어로 얻게 될 것이다.

여행지도

섬진강기차마을레일펜션

문의 : 061-362-9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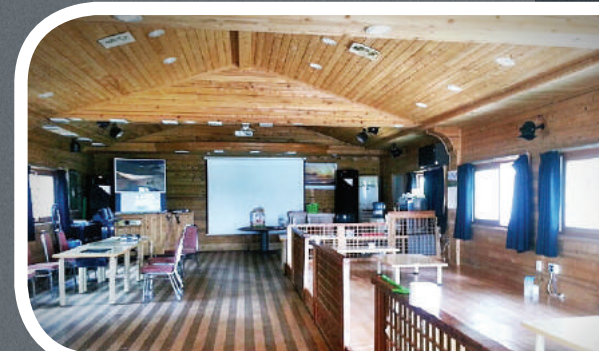
주소 :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52-16

섬진강기차마을 펜션

주소:전남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465

문의 : 061-362-5600, 010-6620-3430

홈페이지 : <http://www.gspension.co.kr/>



꿈과사랑을 품은 강미축제



행복을 만들어가는 심청축제

곡성심진강기차마을에서는 봄과가을이면 장미꽃이 피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 축제가 열린다.
봄기운이 절정에 이르고 진한 장미향이 피어오를 때
꿈과사랑을 품은 세계장미축제가 열리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상수리 가로수가 노란빛을 띠기 시작하고
맑은 바람에 물든 가을장미가 선명한 색상을 자랑할 무렵에는
행복을 주제로 하는 심청축제가 열린다.

축제가 열릴 무렵에는 곡성 전체 인구보다
몇 배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 함께 어울려 축제를 즐기면서
꿈과사랑을 품고 행복을 만들어나간다.



GOKSEONG

TOUR
099

1004종의 장미가 일제히 개화하는 시기에 맞추어 열리는

곡성 장미축제

장미는 세상이 신록으로 물들고, 부드러운 햇살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5월의 상징이다. 그래서 5월이면 전국방방곡곡에서 장미축제가 열리고, 사람들은 다투어 축제가 열리는 공원을 찾아 나선다. 장미꽃에는 봄에 흠뻑 취하게 만드는 마력이 숨어 있어서다.

곡성의 5월도 장미의 계절이다. 읍내 돌담길에는 진홍빛 줄장미가 인사를 건네고, 기차마을에 다가가면 얼마나 많은 장미꽃이 피었기에 진한 장미향에 코가 간지러울 지경이다. 국내 장미공원들은 보통 수심에서 규모가 큰 곳은 500여종에 가까운 품종의 장미를 선보인다. 그런데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에 심어진 장미는 1004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장미들은 5월 말에서 6월초 사이에 일제히 개화 하면서 장미정원을 형형색색으로 장식한다. 평소에 장미를 보기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성격이 무딘 사람도, 이 무렵에 장미공원을 찾았다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감탄사를 마구 쏟아 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맛있게 보낸다면 장미공원에 가득한 형형색색 수천만송이 장미꽃에 대한 모독인 것이다. 그래서 곡성에서는 5월 말에서 6월 초 장미공원의 개화시기에 맞추어 축제를 연다. 곡성군민들이 함께 만드는 화려한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사흘에 걸쳐서 열린데, 뭐니 뭐니 해도 이날 축제의 주인공은 장미공원을 가득채운 형형색색의 어여쁜 장미꽃이다.

아침부터 야간개장을 하는 늦은 밤까지, 장미공원을 찾아 밝은 표정으로 꽃을 감상하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도 장미꽃만큼 아름답다. 세계장미축제의 슬로건인 꿈과 사랑을 주제로 하는 풍성한 행사가 드넓은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데, 특히 유명가수들과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공연이 날마다 펼쳐지면서 축제장의 흥을 한껏 돋운다. 금강산도 식후경, 먹거리도 세계장미축제에 빠질 수 없는 주인공중 하나다. 일부러 찾아가야 먹을 수 있는 참깨매운탕과 돼지 불고기 등, 곡성 특산 음식들이 한데 모여서 선을 보이고, 곡성의 특산물인 토란과 메론을 이용한 요리 시식행사도 잇따라 열린다. 그리고 외지 손님들과 곡성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면서, 축제현장인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축제의 계절인 5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열리는 수백 개의 축제 중에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단연 돋보이면서, 축제가 열리는 사흘 동안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손님들이 곡성으로 몰려온다. 오는 손님들이 교통, 주차, 식사, 숙박 등 모든 면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곡성사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매년 성황리에 잘 치루고 있는 것도 곡성세계장미축제의 큰 자랑거리다.



GOKSEONG
TOUR
100

심청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만나고, 누구나 청춘이 되는 낭만이 가득한

심청축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고대소설 심청전과 춘향전은 무수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천년 이상의 세월동안 각색되고 다듬어지면서, 현재의 완벽한 문학작품으로 탄생했다. 이런 구비문학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탄생시킨 근원을 만나게 된다. 바로 근원설화다. 공고롭게 두 이야기 모두 남원에서 만들어졌다. 곡성과 남원은 섬진강을 사이로 하는 이웃이다. 심청전의 근원설화가 곡성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단서까지 발견되었다. 곡성 성덕산 기슭에 위치한 관음사에서 1729년에 제작된 목판본인 『육과현성덕산관음사사적』에 등장하는 맹인 원랑과 그의 딸 원홍장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한 스님이 맹인 원랑에게 부처님의 계시라며 시주를 간청한다. 재산이라고는 땅 한 필기 없던 가난한 원랑은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딸 홍장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홍장은 시주대신 자신이 스님을 따라가겠다고 자청하여, 원랑의 통곡을 뒤로하고 집을 나선다. 때마침 포구에서 배를 기다리던 홍장은 황후간택을 위해 파견된 진나라 사신의 눈에 띄게 되어, 그들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 진나라 황제의 황후가 된다. 홍장은 두고 온 부친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관음상을 만들어 고국으로 보냈는데, 배가 표류를 하다가 해안에 좌초하자, 그 배에서 관음상을 발견한 성덕처녀가 업고 와서 관음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곡성에서는 고대부터 품질이 좋은 철이 생산되어 중국의 무역선들이 섬진강을 따라 드나들었고, 백제때 곡성의 원희라는 처녀가 중국 절강성 보타현으로 들어가 거부의 아내가 되어 선행을 베풀고 고국의 절에 시주를 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온다.

이를 근거로 곡성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효의 상징으로 각인된 심청을 메인 캐릭터로 삼고 있다.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심청이야기마을을 만들었고, 심청의 '효' 정신

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심청효문화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공원과 문화행사에서도 심청 이름이 다수 등장하고, 무엇보다 곡성과 심청을 일체화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곡성심청축제다. 무수한 인파들이 몰려와 들썩거리는 5월에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와 달리, 심청축제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서도 기차마을 장미공원에 핀 가을장미의 향기와 함께 낭만적인 분위기가 진하게 풍긴다. 이 축제에서는 심청의 '효' 정신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족의 '행복'으로 승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축제에 맞추어 열리는 심청 뮤지컬이나, 심청전 마당놀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흥겹게 진행되고, 유독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를 많이 편성한다.

심청축제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가을장미와 함께 하는 '낭만'이다. 낭만의 분위기를 달구기 위해서 축제가 열리는 4일간 유명 가수 또는 실력파 뮤지션들이 관객과 가까이 호흡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꾸며지고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끊이지 않고 연주된다. 이때를 즈음하여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곡성충의공원에 조성된 소나무 숲에서는 하얀 구절초가 일제히 개화를 하면서 장관을 이룬다.



2016 곡성 모범음식점

(2016년 지정 기준)

연번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주메뉴
1	궁전 회관	곡성읍 중앙로 54	이미숙	362-1539	한정식
2	우리 회관	곡성읍 중앙로 118	조현훈	363-8321	생고기, 구이
3	함박 가든	곡성읍 곡성로 85	장종섭	363-8484	회, 해물탕
4	백화 회관	곡성읍 학정3길 1	김순덕	363-2176	아구탕, 찜
5	지리산순한 한우명품관	곡성읍 곡성로 856	박왕규	362-3392	육류, 갈비탕
6	여울목횃집	오곡면 대항강로 1554	최옥남	362-8392	매운탕
7	약대추농장	오곡면 미산리 331	김화심	363-2625	능이닭곰탕
8	별천지가든	오곡면 섬진강로1266	이영이	362-8746	매운탕
9	사계절횃집	오곡면 대항강로 1589	이창진	362-1933	매운탕
10	돌실 회관	석곡면 석곡로 52-1	김종석	363-1457	흑돼지불고기
11	새수궁가든	죽곡면 섬진강로 1015-2	강봉진	363-4633	매운탕
12	통나무 집	죽곡면 대항강로 1598-19	유명자	362-3090	매운탕
13	용궁 산장	죽곡면 대항강로 1598-17	김봉심	362-8346	매운탕
14	청수 산장	죽곡면 섬진강로 1015-1	문경란	362-7447	매운탕
15	모 심 정	죽곡면 섬진강로 1005	조경훈	362-8382	장어, 매운탕
16	섬진강민물장어	옥과면 리문6길 32	박양열	363-9155	장어구이
17	옥과백련찜탕	옥과면 미술관로 72	민숙현	363-6213	볼테기탕, 찜
18	통큰통갈비	옥과면 리문4길 10	임정순	362-2030	갈비, 삼겹살
19	삼화관광농원	겸면 입면로 208	김석자	362-8586	오리로소, 전골
20	송 원	옥과면 리문4길5	김명숙	362-7070	한우숯불구이
21	안국산업(주)곡성휴게소	겸면 호남고속도로50	김성수	362-8300	개똥썩 강된장찌개
22	곡성(순천방향)휴게소	겸면 호남고속도로49	이명수	363-2767	흑돼지 김치찌개
23	그린회관	곡성읍 읍내리 243-8	양남례	363-3025	오리로소, 탕
24	미실란밥cafe반하다	곡성읍 섬진강로 2584	이동현	363-6060	퓨전건강밥상
25	오뚜기회센터	옥과면 옥과2길 3	허정남	363-8245	회, 해물칼국수



곡성읍
숙박업소

곡성 숙박

안목권
숙박업소

업소명	주소	연락처
도림사오토캠핑장리조트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74	061-363-6224
황토한옥민박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2-5	061-363-2046
도림게스트민박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64-9	010-5405-9813
초코릿모텔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21	061-363-8214
도림사계곡민박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64-10	010-3646-8780
그랑프리 모텔	곡성군 곡성읍 읍내 10길 8	061-363-4563
필모텔	곡성군 곡성읍 섬진강로 2612	061-362-2345
알프스 모텔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225	061-363-8025
정촌(靜村)	곡성군 곡성읍 교촌죽안길 45-21	061-363-0235

업소명	주소	연락처
섬진강기차마을레일펜션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1	061-362-9712
섬진강기차마을펜션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455	061-362-5600
코레일빌리지	곡성군 오곡면 침곡길 58	061-363-2778
소풍	곡성군 오곡면 침곡길 139	061-363-0363
화이트빌리지	곡성군 죽곡면 대항강로 1598-96	061-363-7531
심청한옥마을	곡성군 오곡면 심청로 178	061-363-9910
강가애민박	곡성군 고달면 두계길 40-22	010-3161-5269
곡성청소년야영장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51	061-362-4186
압록강 노을여행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055	061-362-7723
하늘채펜션	곡성군 오곡면 대항강로 1571	061-363-6900
모심정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로 1005	061-362-7447
또랑가농원민박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144	061-362-7703
두가헌	곡성군 고달면 두계길 35	061-362-5600
섬진강향기농장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39-68	061-362-0764
호수민박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로 851	061-362-7786
하늘나리마을	곡성군 죽곡면 상한길 240	061-363-8546
나눔터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1085	061-363-3344
나룻터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45	061-363-7940
매실농원 민박	곡성군 오곡면 침곡길 25-2	010-5306-3753
한가을펜션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39-56	061-363-2467
언덕위에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길 13-20	016-513-7755
강변스케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39-76	010-7266-3364
좋은세상리조트	곡성군 죽곡면 대항강로 1397-45	061-362-5555
모텔 에이스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080-1	061-363-9966
섬진강 승마벨리 관광농원	곡성군 고달면 두계길 40-43	061-363-1733

옥과면
숙박업소

업소명	주소	연락처
합강투어텔	곡성군 옥과면 월파로 295	061-363-2582
샘골향토민박	곡성군 입면 청계동로 951-9	061-363-4808
초록마을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715-37	061-362-7578
심청골민박	곡성군 입면 청계동로 908-6	061-362-3100
세종장	곡성군 옥과면 리문6길 2	061-362-5016
그린가족호텔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856	061-363-1125
e편한호텔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862	061-363-0300
은하수무인텔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819-21	061-363-5254
포세이돈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819-17	
스마일모텔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834-6	
코리아모텔	곡성군 검면 곡순로 2126	061-362-1599

석곡면
숙박업소

업소명	주소	연락처
휴	곡성군 석곡면 석곡로 41	061-362-3069
대원장	곡성군 석곡면 석곡8길 8-7	061-363-7978

은어요리

섬진강은 은어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예전에 하동, 구례, 곡성등 섬진강 유역에서는 작대기로 내리쳐서 잡을 정도로 은어가 흔했다는데 지금은 무척 귀한 어종이다. 1급수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은어는 이끼만 먹고 살 정도로 깨끗하기 때문에 민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회로도 먹을 수 있는데 은은한 수박냄새가 풍기고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자랑한다. 그밖에 은어 구이와 은어 튀김도 유명하다. 은어구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꺼번에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이다.



곡성 멜론

곡성에서는 1986년부터 본격적인 멜론 재배가 시작되었다. 농업과 품질을 향상시켜 2000년 경 부터는 조건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늘날 곡성 멜론이 명품 과일로 자리 잡은 요인은, 일교차가 심하고 강우량이 적은 천혜의 기후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민들과 농업기술센터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 노력과 재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곡성멜론의 우수성을 지킨 측면이 더 크다. 곡성 멜론은 향이 진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참계 요리

섬진강 참계도 은어처럼 민물과 바다를 드나들면서 서식한다. 섬진강 참계 잡이는 9월~11월 사이, 그리고 3월 무렵 산란기에 주로 이루어진다. 음력 2월에 잡힌 참계의 맛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참계 요리로는 참계 매운탕, 참계 수재비, 참계장이 있는데 특히 참계 수재비는 곡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명품 요리다.

곡성 토란

열대작물인 토란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를 하는데 특히 곡성은 골이 깊고 토질이 기름지며 일조량이 많아서 토란재배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곡성군 죽곡면이 토란의 주산지인데 여기서 토란을 논에 재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곡성 토란은 타 지역에 비해 출하가 빠르고 알맹이가 크다. 그래서 곡성은 재배면적에 있어 전국 생산량의 50%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토란 생산지다.



능이버섯

1능이, 2 송이로 일컬어지는 능이버섯은 양식이 불가능하고, 청정한 깊은 산중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채취가 어렵다.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곡성은 송이버섯과 더불어 능이버섯 주산지에 속한다. 그래서 곡성에서 먹는 능이버섯은 같은 가격이라도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능이버섯을 야생에서 자란 토종닭에 넣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곡성능이버섯에는 능이버섯 특유의 향과 맛을 제대로 살아 있다





함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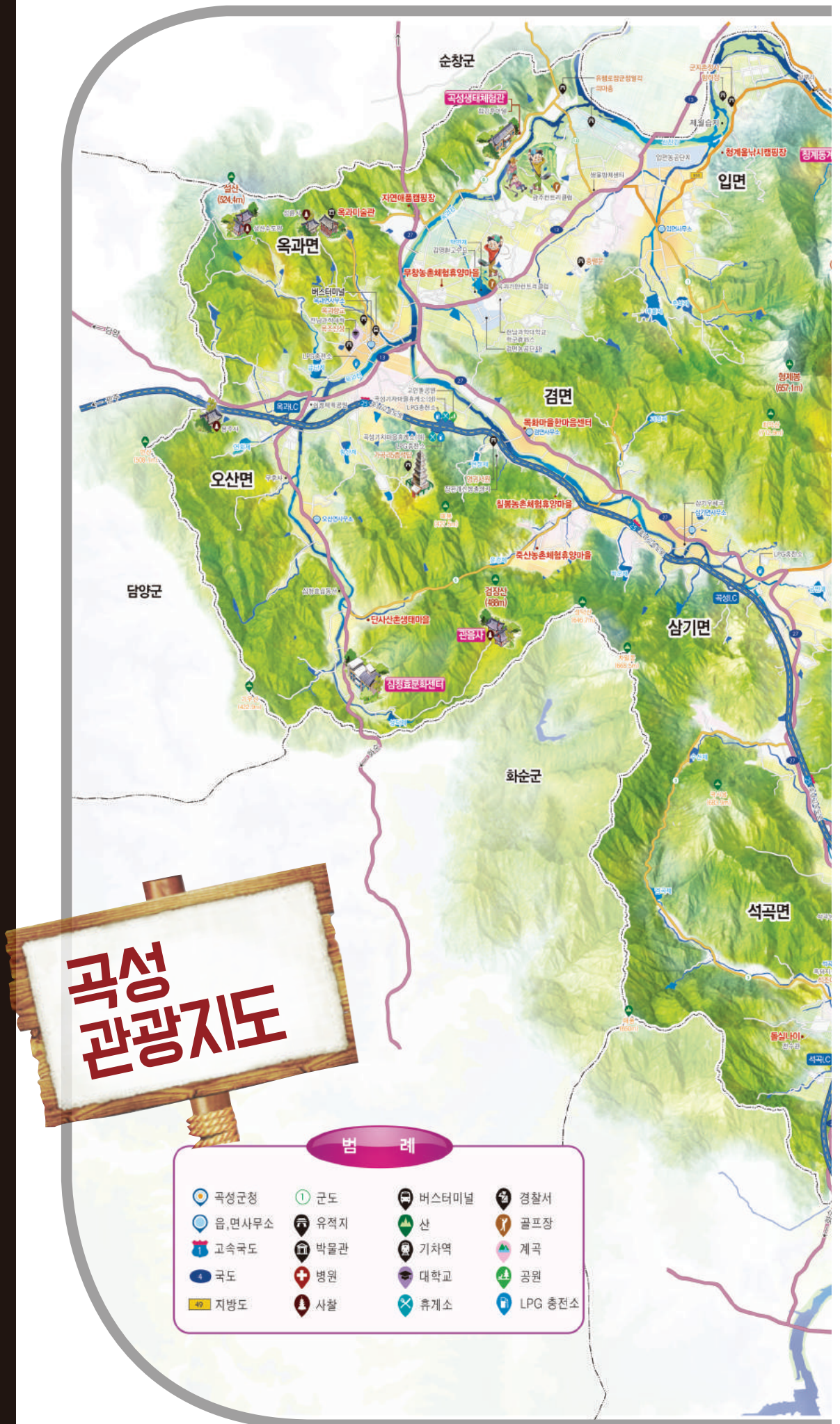
옥과도립미술관



가정리5층석탑



관음사





도림사



침실습지



삼천강도깨비마을



대항강출렁다리



양쪽의 봄

곡성의 사계



섬진강의 여름



미라시콰이어길의 가을



겨울, 섬진강 증기기관차